



2015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결과보고서

본 사업은 서울YWCA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수행기관의 의견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I. 서론

1.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 3
2. 기대효과 / 5

II. 본론

1. 2015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 개요 / 9
2. 모니터링 결과 종합 평가 및 제언 / 19

III. 모니터링 결과

1. 드라마 프로그램 / 33
2. 예능 프로그램 / 72
3. 시사·토론·옴부즈맨 프로그램 / 98
4. 교양 프로그램 / 113
5. 보도 프로그램 / 140
6. 포털사이트 / 152
7. 신문 / 168

참고자료

- 모니터링 점검리스트 / 231
- 양성평등기본법 / 246

I. 서론

1.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2. 기대효과

1.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링을 통해 왜곡된 성 의식, 성차별 언어, 성 상품화의 문제 발견, 개선 노력 확대

젠더(gender)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사회적 의의를 뜻한다. 사회적인 성, 문화적 습득의 결과로서, 생물학적인 성별과는 다르다. 역할로서의 젠더, 혹은 사회적 구조체인 젠더라는 표현은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양성평등적 관점은 여성과 남성의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삶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에 근거한 양성의 서로 다른 요구의 차이를 인식하며, 성 역할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성별 불평등에 대한 민감성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관심과 태도이다. 성 인지 관점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성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고 개선하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된다.

흔히 ‘성평등은 이미 실현되었다’는 의식에 비해 여전히 한국은 불평등한 사회를 살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성평등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2015년)에서 발표한 한국의 성 격차지수(GGI)는 145개국 중 115위로 작년에 비해 2단계 상승하였으나, 그 수준은 여전히 낮다. 경제활동 참여와 기회 순위가 125위로 가장 낮았고 교육과 정치권한 부문에서도 102위, 101위를 기록해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의 경제활동 참여와 기회 점수는 2006년(96위)보다 29계단 하락했으며 특히 양성의 임금 격차가 캄보디아나 네팔보다 뒤진 116위로 나타났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로조건을 측정하는 지수(GCI)는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리직 진출 등의 영역에서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실질적인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일과 더불어 성인지적 관점으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전반에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미디어의 폭력적이고 성불평등적인 요소를 찾아내어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미디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성인지 관점의 TV프로그램 모니터, 보도자료 배포, 캠페인 등의 활동을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에서의 시청자 주권운동과 성평등을 위한 미디어운동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 2015년 7월 시행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기존 여성발전기본법¹⁾에 비해 보다 심화된 규정으로 대중매체상의 양성평등 의식 강조

〈양성평등기본법 전면개정(2015년 7월 시행)〉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7조 (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대중매체에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을 점검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

-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양성평등 미디어 문화 확산에 기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가족부와 서울YWCA가 거버넌스를 통해 실시하는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은 미디어의 책임을 강조하고 시청자 주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중 하나이다. 양성평등적 시각을 담은 모니터링으로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성 상품화의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하려는 시도이다. 또한 대중매체 모니터링과 더불어 인식확산을 위한 양성평등 미디어교육, 양성평등 미디어문화 정착을 위해 미디어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들이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간담회, 시민대상 의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의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도 모니터링 결과 공유, 캠페인 등을 통해 양성평등적 시각을 담은 대중매체를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양성평등 미디어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 기존 여성발전기본법 제28조에서는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에 대한 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남녀평등의식이 확산되도록 하여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 대중매체에 나타난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은 현실 속에서 대중이 생각하는 양성애에 대한 이미지, 역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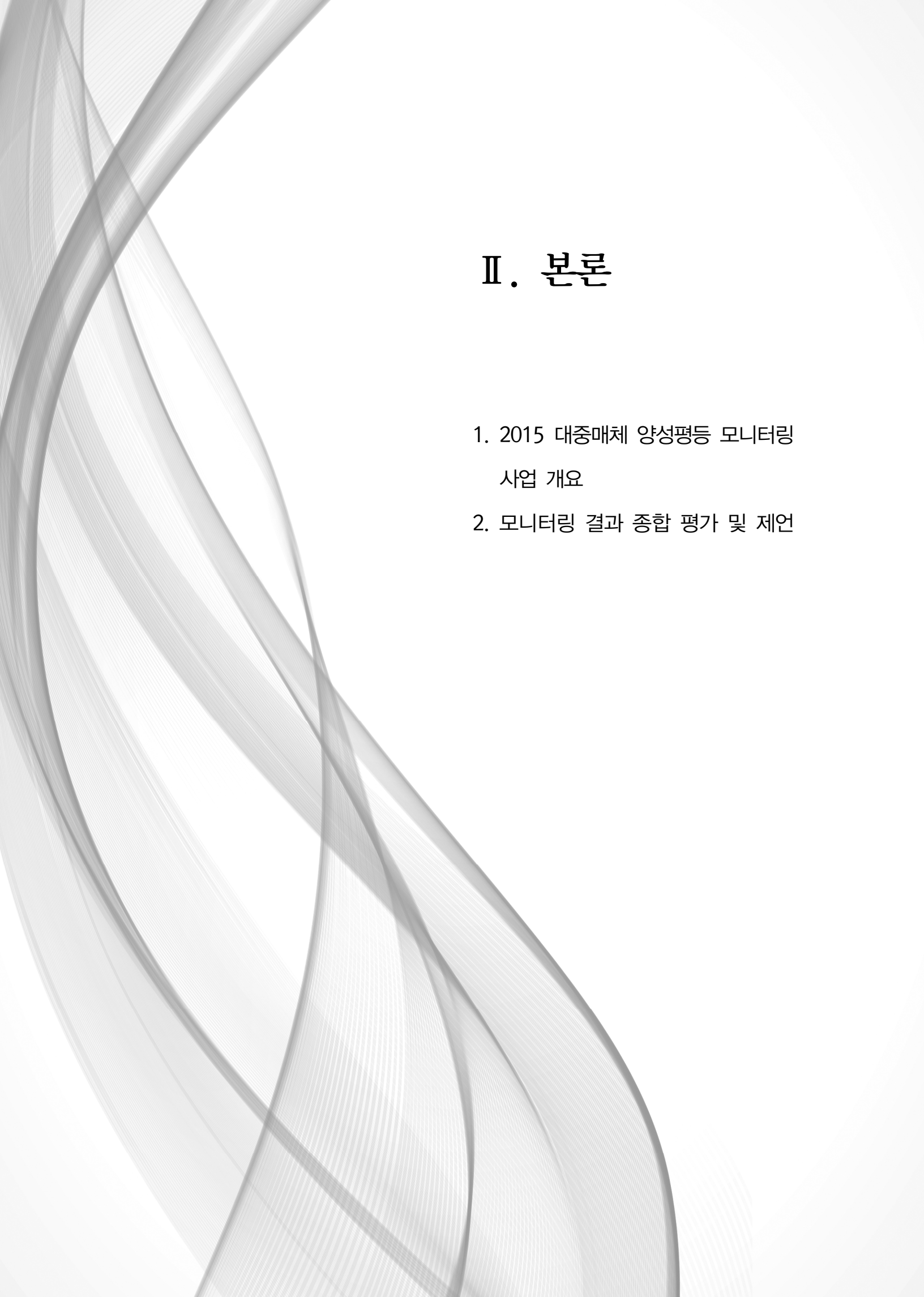
우리 사회는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있으며, 삶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양성평등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더불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마련해야 한다.

미디어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대중매체가 성평등 의식, 성 인지 및 성평등 감수성, 인권 감수성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미디어를 통해 대중은 편견과 선입견을 강화·재생산하기 때문이다. 미디어에서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고,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면, 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에 역행하는 셈이 되어 버린다.

미디어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청자 주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며, 양성평등한 미디어 문화를 만들기 위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가는 일은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매체를 모니터하고 개선을 위한 다양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2. 기대효과

- 양성평등 대중매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양성평등 미디어모니터링 활동을 통한 시민 참여 기회 확대
- 방송 제작자의 양성평등 인식 변화의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
- 주권의식과 양성평등 의식을 가진 시청자 시민의식 향상
- 양성평등 미디어모니터단의 역량강화와 미디어 관련 전문자료 확보
- 캠페인과 이벤트를 통한 양성평등 의식 저변 확대
-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성평등 사례 발굴 및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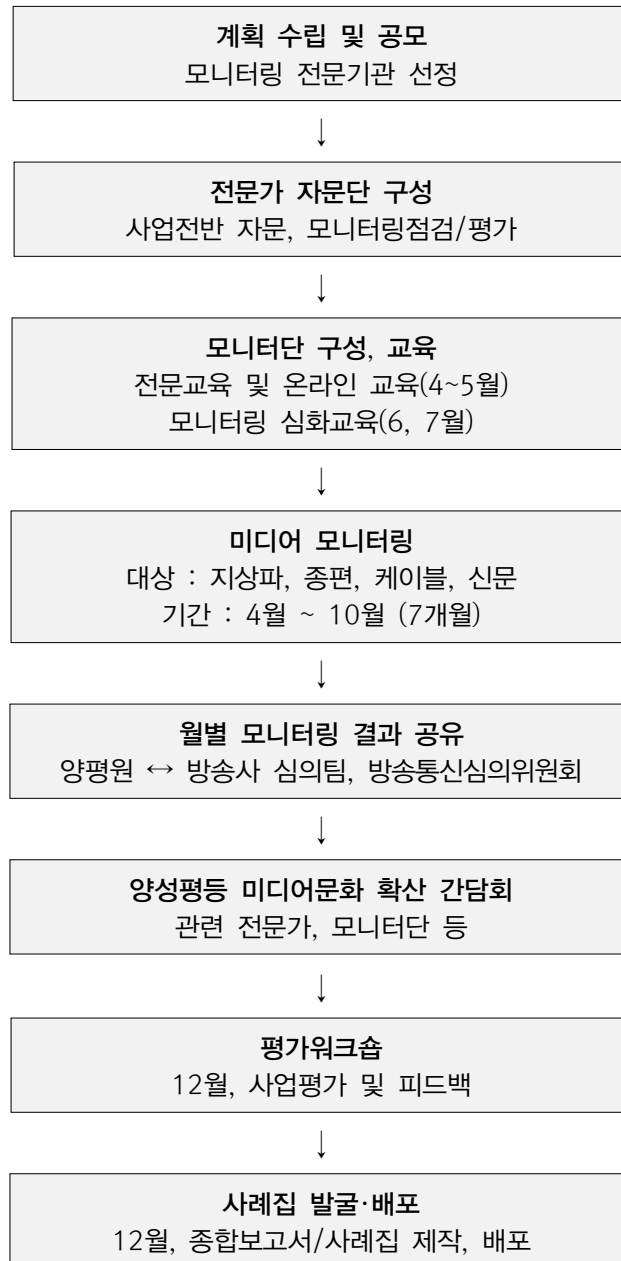


Ⅱ. 본론

1. 2015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 개요
2. 모니터링 결과 종합 평가 및 제언

1. 2015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 개요

1) 사업추진절차



2) 모니터단 구성 및 교육

□ 서울YWCA 양성평등 미디어모니터회

- (1) 여성 13명, 남성 4명, 인턴 4명으로 구성된 서울YWCA 양성평등 미디어모니터회는 2010년부터 양성평등 관점을 기반으로 미디어모니터링 활동 전개

(2)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스터디를 진행하고,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한 모니터단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함양 위해 노력

(3) 모니터단

	남성	여성	인턴
2015 모니터단	고한석 송은엽 염 정 윤동혁	강훈덕 김영림 김진희 남은희 박지은 임지연 이수지 전소영 정모아 정희경 최문희 천우신 하진욱	류영주 명광수 조은숙 정진숙

(4) 전문교육

- 성인지 감수성 키우기
 - 일시 : 2015년 7월 14일(화) 14:00
 - 장소 : 서울YWCA
 - 강사 : 정진숙 강사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흐름과 방향 이해
 - 일시 : 2015년 7월 14일(화) 15:30
 - 장소 : 서울YWCA
 - 강사 : 전길양 부장(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대중매체 모니터링 기법
 - 일시 : 2015년 8월 11일(화) 14:00
 - 장소 : 서울YWCA
 - 강사 : 김현희 강사(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사이버교육 콘텐츠 제공

- 양성평등의식 전환하기
- 매스미디어와 젠더
- 드라마와 젠더는 어떤 관계일까요?
- 가부장주의와 상업주의에 기초한 TV
- 광고 속에 나타난 성 인지도 경향분석
- 대중매체 속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언어실태

(5) 정기회의

- 기간 : 매월 둘째주 화요일
- 장소 : 서울YWCA
- 내용 : 모니터단 전문교육,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토론, 점검리스트 수정/보완, 모니터링 방향 등 논의



〈그림1 미디어 모니터단 정기회의 및 전문교육〉

3) 모니터링 점검리스트 수정 · 보완

- 드라마, 보도, 시사·토론·옴부즈맨, 오락, 교양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위한 점검리스트는 2013년, 2014년 대중매체 양성평등모니터링 사업에 사용된 점검리스트를 기반으로 하되 세부항목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함
- 포털사이트와 신문은 2014년에 전문가 검토를 통하여 개발한 점검리스트를 수정/보완하여 활용

4) 양성평등 미디어 교육(5회) 및 간담회(1회)

- 1차 양성평등 미디어 교육

- 일시 : 2015년 9월 16일(수) 11:00
- 장소 :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
- 대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산지회 모니터단 20명
- 내용 : 미디어와 젠더

양성평등 시각을 담은 미디어 모니터링의 의미와 사례

- 2차 양성평등 미디어 교육

- 일시 : 2015년 9월 22일(화) 11:00
- 장소 : 방송회관
- 대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울지회 모니터단 120명
- 내용 : 미디어 속 양성평등

- 3차 양성평등 미디어 교육

- 일시 : 2015년 10월 17일(토) 11:00
- 장소 : 서울YWCA
- 대상 : 청소년 15명
- 내용 : 청소년 리터러시 교육_미디어 속 양성평등 이해하기

- 4차 양성평등 미디어 교육

- 일시 : 2015년 10월 24일(토) 10:00
- 장소 : 강남청소년수련관
- 대상 : 청소년 25명
- 내용 : 청소년 리터러시 교육_미디어 속 양성평등 이해하기

- 5차 양성평등 미디어 교육

- 일시 : 2015년 11월 21일(토) 9:00
- 장소 : 성동청소년문화의집
- 대상 : 청소년 30명
- 내용 : 청소년 리터러시 교육_미디어 속 양성평등 이해하기





〈그림2 양성평등 미디어 교육〉

5) 월별보고서 및 보도자료 발송

- 미디어 유관기관 및 단체 154곳 매월 발송
- 보도내용

매체	일시	제목
뉴스1	2015.12.10	“女방송작가 많아도 외모 비하·성차별 방송…의식이 문제”
쿠키뉴스	2015.12.08	“웃자고 한 건데”…‘연례행사’ 여성비하 광고, 왜 계속될까
뉴스1	2015.12.02	“女사회진출 늘었지만…” 일간지 외부기고가 6명 중 여성은 1명
연합뉴스	2015.11.27	10월 일간 신문, 성평등적 기사 4.65%로 심각한 수준
코리아저시티스 타임즈	2015.11.26	10월 포털사이트, 무분별한 선정적·낙시성 기사 확산
충청일보	2015.11.18	드라마 여 주인공 성 고정관념 깬다
뉴스1	2015.11.06	‘어셈블리’, ‘미세스 캡’, ‘두 번째 스무살’ 성 역할 고정관념 깨다, 가부장적이고 남아선호적인 대사는 여전
대한뉴스	2015.11.04	9월 드라마 모니터링 결과 성 역할 고정관념 깨는 드라마 3편 소개
뉴시스 와이어	2015.11.04	‘어셈블리’ ‘미세스 캡’, ‘두 번째 스무살’ 성역할 고정관념 깨다
연합뉴스	2015.10.28	9월 일간 신문, 내연녀·부킹녀 등 여성비하 용어 사용 심각
뉴시스 와이어	2015.10.28	
미디어오늘	2015.09.30	뉴스 성차별, 정치기사는 여전히 남자 기자·앵커 차지
충청일보	2015.09.30	女 앵커 ‘보조’ 역할만
해럴드경제	2015.09.28	뉴스 성차별적 구성 여전… 여성앵커·기자·인터뷰 비중 여전히 작아
뉴시스 와이어	2015.09.21	8월 일간 신문, 여성 외부기고가 15.2%로 4개월째 제자리 걸음
연합뉴스	2015.09.21	
연합뉴스	2015.09.18	8월 뉴스 앵커, 나이 많은 남성·젊은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 여전
연합뉴스	2015.07.30	양평원, 6개 일간 신문 대상 양성평등 모니터링 진행
연합뉴스	2015.07.29	양평원, ‘시사·토론 및 TV 옴부즈맨’ 부문 모니터링 실시
해럴드경제	2015.07.29	시사·토론 방송 내 진행자 남녀 비율 2대1 ‘불균형’…남성은 ‘전문성’, 여성은 ‘이미지’구도 변함없어

매체	일시	제목
연합뉴스	2015.06.29	양평원, 5개 일간신문 대상 양성평등 모니터링 진행
여성신문	2015.06.26	5월 예능 프로그램 75% 성차별적 양평원·서울YWCA 29편 모니터링 결과
뉴시스 와이어	2015.06.01	양평원, 6개 일간신문 대상 양성평등 모니터링 실시
위키트리	2015.06.01	6개 일간신문, 여성 기고가는 남성의 5분의 1 수준
여성신문	2015.05.30	‘황홀한 이웃’ 등 4월 방영 드라마 절반은 ‘성차별적’
위키트리	2015.05.29	“4월 드라마 모니터링, 성차별적 내용 51%”

6) 성평등 캐릭터 공모전 이벤트

□ 통계(일반) : 총 참여자 250명 (연령대 : 10~60대)

○ 참여자 : 10~20대 91명 / 30~40대 125명 / 50~60대 34명

○ 성평등한 내용 추천 : 105건 / 성불평등한 내용 추천: 145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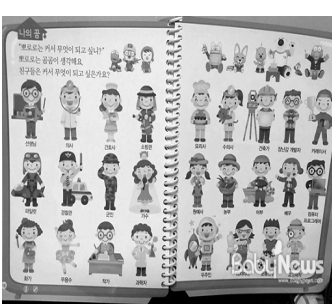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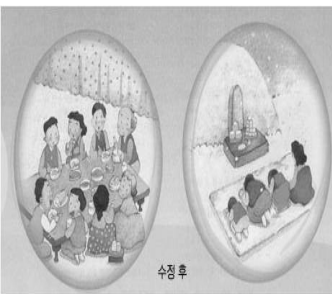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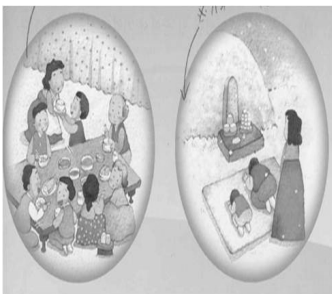
□ 시민이 추천한 성평등·성차별한 프로그램·대사·캐릭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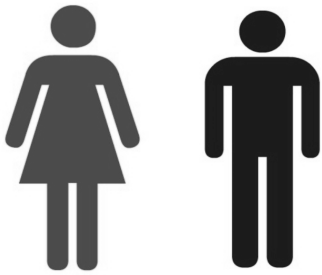
구분	프로그램/매체	추천사유
성평등 프로그램	추적 60분(KBS) -불평등 육아의 경고	육아는 엄마의 역할로만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해외 사례를 통해 육아에 관심을 갖지 않는 아빠들에게 엄마 혼자 육아하는 어려움을 일깨워주었으며, 아이와 아버지 관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새롭게 조명
	막돼먹은 영애씨14 (tvN)	주인공인 영애가 사장으로 나오고, 주체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CEO나 고위직은 남성의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
성차별 프로그램	개그콘서트 (KBS)	개그콘서트 대부분의 코너에서 성차별, 외모 비하 등이 빈번하며,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고, 성상품화하며 자극적인 개그 소재를 활용하는 등 가족이 시청하기에 부정적인 프로그램
	내 딸 금사월 (MBC)	가부장적/남아선호 대사 빈번 남성을 마초로 표현하며, 전 부인을 학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묘사, 끊임없이 여성을 비하하고 가부장적 의식을 심화시키며 여주인공을 수동적으로 묘사
	렛미인5(tvN) 화이트스원(JTBC) 등 메이크오버 프로그램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변신 전후를 자극적으로 보여주고, 예뻐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강요하여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당연하다고 부추김

구분	프로그램/매체	추천사유
성평등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남성이 주인공의 역할이지만, 이 영화는 여주인공에 포커스를 맞춰 상황과 환경이 그렇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삶을 개척해 나가는 강인한 여성의 이미지를 보임
	인턴	여성CEO이면서 워킹맘인 여주인공을 당당하게 표현, 육아는 여성의 역할로 강조되었던 기존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남편이 육아를 전담하는 모습 보여줘 긍정적임
성평등 캐릭터	미세스캡 (KBS)	배우 김희애 워킹맘 이지만 일과 가정을 완벽하게 돌보는 ‘슈퍼우먼’의 역할을 강조했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집에서는 조금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역할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현실적인 여성의 모습을 제시한 점이 돋보임
	어셈블리 (SBS)	배우 송윤아 성별에 관계없이 각자의 능력을 살려 일하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협력하는 모습을 부각하고, 남성의 역할로만 비춰졌던 보좌관을 여성의 역할로 확대하여 재인식
생활 속 성평등	아동도서 (‘인권이 뭐예요?’ 기타 아키토, 미래아이출판사)	“오늘 남자 애들이랑 같이 축구하려는데 여자는 끼지 말라잖아요. 화가 나서 엄마한테 말했더니 여자니까 여자답게 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빠, 여자는 축구하면 안돼요?”아빠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 하셨어. “안될 것 없지. 누구든지 축구를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요즘엔 여자 축구팀도 있는데 여자라고 해서 차별하면 안 되지.” 아빠 말씀을 듣자 기분이 좀 나아졌어. 좋아! 엄마에게도 말해야겠어. 라는 내용으로 축구는 남성의 전유물로 인식되었던 고정관념 탈피
	한국일보 인터넷 기사	미국에 엘사 옷을 입은 남자 아이 사진, 캡틴아메리카 옷을 입은 여자 아이 사진을 게시하며, 미국완구업체는 젠더감수성을 확대하기 위해 남아용/여아용 구분 폐지, 색깔로 성별을 구분하는 것 역시 폐지하기로 함을 보도하여 긍정적인 시각 확대
	화장실	남성이 육아에 동참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남성 화장실에 아기귀저기 거치대 설치 확대 및 장애인 화장실을 가족 화장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구분	프로그램/매체	추천사유
생활 속 성불평등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4-2,11쪽)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나, 동생 등 여러 사람입니다.(중략) 회사에 다니시는 아버지(중략) 어머니는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십니다.” 위는 엄마, 아빠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화함
	교사용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	‘첫째, (남성의) 성에 대한 욕망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충동적으로 급격하게 나타난다. 둘째, 여성은 한 특정 남성에게만 성적으로 반응하는데 건줘 남성은 성적으로 매력적인 여성들과 널리 성교할 수 있다. 셋째, 데이트 비용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남성에서는 여성에게 그에 보응하는 보답을 원하게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데이트 성폭력이 발생 할 수도 있다.’ 위 내용은 성을 왜곡하고, 성폭력 등이 여성의 문제로 여겨지며, 여러 사람들과 성교를 하는 남성을 당연시하고 데이트폭력, 성폭행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맥심 잡지	9월 표지에서 여성을 납치·살해한 상황을 연상 시키는 장면을 연출해 화보를 찍고 이를 표지로 삼아 거센 비난을 받고 있음. 가해자 역을 맡은 모델에게 ‘카리스마 있는 표정’이라는 설명을 덧붙이는 등 강력범죄를 성적 판타지로 미화하고, 상품화 했다는 지적. 현실 속 여성을 상대로 한 납치·살해가 대부분 성범죄까지 동반하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면 보는 사람에 따라 이러한 상상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 성범죄를 연상시키지 않더라도, 많은 여성들이 두려워하는 강력범죄 가해자를 ‘나쁜 남자’로 표현해 그 심각성을 축소시킨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
	광고 KFC (스모키와일드 치킨버거)	여성들이 남자친구에게 비싼 선물을 사달라고 조르자 화가 난 남성들이 ‘숯놈들’의 버거로 기분을 전환해 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음. 또한 광고에는 여성이 “자기야! 나 기분전환 겸 백 하나만 사줘.”라고 말하며 남성은 “음, 그럼 내 기분은?” 이라고 답하는 장면이후 여성은 남성에게 기분 전환을 위해 백을 사달라고 하고 백 하나를 받으면 기분이 풀리는 것으로 해석 할 여지가 있는 여성비하를 보여주는 광고.(이 광고는 광고가 게재된 지 4일 만에 여론의 뭇매를 맞고 업체 측에서 사과와 함께 중지됨)

□ 생활 속 성평등/성불평등 이미지

성평등 이미지		성불평등 이미지	
	가사에 아빠가 참여하는 모습을 통한 고정관념 탈피		장난감 이미지에 남아/여아 구분을 통한 차별 고정관념 확대
	캡틴 아메리카를 좋아하는 여아 엘사를 좋아하는 남아 고정관념 탈피		
			직업에 따른 성 역할 고정화
	색깔 혹은 남아·여아로 구분하지 않음		장애인 화장실에 성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설치로 인한 차별
	초등학교 교과서 개선 후		초등학교 교과서 개선 전

성평등 이미지		성불평등 이미지	
	남성 육아참여가 확대되면서 기저귀거치대 미설치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 장애인 화장실을 가족화장실로 병행		여성/남성의 색깔 구분 여 분홍, 남 파랑 처럼 고정관념 확대

8) 양성평등 미디어문화 확산을 위한 간담회

- 일 시 : 2015년 12월 10일(목) 10:30-13:00
- 장 소 : 서울YWCA
- 참가자 : 20명

• 하주용 교수 (인하대학교) • 김형호 PD (KBS 시청자권익보호국) • 임지연 모니터 (TV조선) • 민근식 팀장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양선희 국장 (서울YWCA) • 성지희 간사 (서울YWCA) • 서울YWCA 미디어모니터회	• 오하룡 차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양은아 기자 (뉴스원) • 한영신 모니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신민재 대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김재현 부장 (서울YWCA) • 권혜진 인턴 (서울YWCA)
---	---

강훈덕, 남은희, 류영주, 명광수, 이수지, 전소영, 정희경 천우신



〈그림3 양성평등 미디어문화 확산을 위한 간담회〉

2. 모니터링 결과 종합 평가

1) 모니터링 결과 종합 평가

- 2015년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은 지상파, 종편 프로그램과 케이블, 포털사이트 내 언론기사,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특히 포털사이트 모니터링은 2014년에 자체 개발한 점검리스트를 수정/보완 후 활용하여 메인화면에서 링크된 기사와 이미지를 모니터링 하였다.

□ 모니터링 대상

구분	방송사	기간	프로그램 수
드라마	지상파, 종편, 케이블 채널	4월 20일 ~ 28일 9월 1일 ~ 27일 (번외 9월 1일 ~ 27일)	44편 / 85회 (‘내딸, 금사월’44회)
예능		5월 6일 ~ 15일	29편 / 32회
시사·토론 옴부즈맨		6월 1일 ~ 14일 (번외 3월 26일)	25편 / 25회
교양		7월 1일 ~ 10일	26편 / 26회
보도		8월 1일 ~ 7일	12편 / 31회
포털사이트 내 언론기사	네이버 뉴스스탠드	10월 5일 ~ 12일	언론매체 35개
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문화일보	4월 22일 ~ 10월 12일	6편 / 111회

〈표1 모니터링 대상〉

- 2015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을 통해 성평등 내용으로 평가된 내용과 성차별적 내용으로 지적된 내용 건수는 다음과 같다.

□ 성평등·성차별 내용 건수 분석

	드라마	예능	시사·토론 옴부즈맨	교양	보도	포털사이트 내 언론기사	신문	합계
성평등	60	17	5	20	13	16	54	185
성차별	65	62	11	48	18	43	57	304

〈표2 성평등·성차별 내용 건수〉

- 모니터링 결과, 장르별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신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매체에서 성차별적 내용으로 지적된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두드러진 점은 사회를 환기시키는 내용이 많았다는 점이다. 2014년 이후 꾸준히 남성이 육아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일·가정 양립, 함께 하는 육아와 가사에 대한 인식을 확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예능분야에서 외모를 강조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은 여전히 많았는데, 비단 예능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양, 시사부분에서도 성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 내용 분석

(1) 성평등적 내용

드라마 모니터링의 가장 큰 특징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는 여성캐릭터들이 다수 등장했다는 것이다.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캐릭터 보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 등장했다. 이러한 변화는 한 사람의 변화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의 삶의 자세에도 영향을 줌으로써 여성들의 건강한 리더십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풍문으로 들었소〉(SBS), 〈순정에 반하다〉(JTBC), 〈TV소설 그래도 푸르른 날에〉(KBS2), 〈초인시대〉(tvN), 〈식샤를 합시다 2〉(tvN) 등을 통해 주체성이 강화된 여성캐릭터가 증가했고, 남성의 결정과 선택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대사가 많아졌다.

여성 주인공의 전문직화도 두드러졌다. 전업주부가 대부분이었던 여주인공이 교수·의사·경찰·회사 경영진·아나운서 등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달려라 장미〉(SBS), 〈착하지 않은 여자들〉(KBS2)에서 교수로, 〈당신만이 내사랑〉(KBS1)은 케이블방송국 PD, 마트 본부장, 명예이사, 건물주로 등장하여 여성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보여주었다. 〈순정에 반하다〉(JTBC)는 형사로, 〈어셈블리〉(KBS2)에서는 양성 보좌관 모습이 등장하기도 했다. 보좌관이라는 직업이 남성의 역할에 제한되었던 데에 비해 각자의 능력을 살려 일하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협력하는 모습이 등장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였고, 〈미세스캅〉(SBS)은 여주인공이 강력계 형사 역할로 등장 해 뛰어난 능력과 임무에 충실한 강인한 여성으로 표현하여 ‘강력계 형사’하면 남성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하는데 기여했고, 일과 가정을 완벽하게 돌보는 ‘슈퍼우먼’의 역할을 강조했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워킹맘이지만 집에서는 조금 부족해도 할 수 있는 역할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현실적인 여성의 모습을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

신선한 점은 ‘성희롱 현실 반영, 왜곡된 성 의식에 대한 표현 거부’ 드라마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스무살〉(tvN)에서는 학교와 직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고 대사를 통해 왜곡된 성 의식을 바로잡는 당찬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중매체에 나타난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은 현실 속에서 양성에 대한 이미지와 역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드라마와 같이 양성·노인·청소년 모두가 접근하기 쉬운 장르의 경우 파급력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드라마 모니터링을 통해 전문직 여성의 역할이 확대되거나 성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하려는 제작진의 노력을 볼 수 있어 긍정적이었으나, 드라마 대부분이 여전히 갈등형, 막장형이 주를 이루고 있어 화합형, 사회

고발형, 사회환기형과 같은 긍정적인 드라마 제작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예능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탈피를 위해 제작진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

〈정글의 법칙 in 인도차이나〉(SBS)에서 유일한 여성 출연자가 사냥 실력을 자랑하고, 섬에서 적극적으로 뱀을 잡는 모습은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는 사례로, 〈꽃보다 할배 in 그리스〉(tvN)에서는 양성이 저녁을 함께 준비하는 모습, 식사 시 여성 출연자를 식탁 중앙에 앉게 하는 모습에서 기존의 가부장적인 인식을 탈피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잘 살아보세〉(채널 A)에서는 양성 출연자가 협동하여 음식을 만드는 모습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외모 지상주의를 극복하고자 시도한 프로그램도 있었다. 〈언니들의 선택〉(MBN)에서는 다이어트를 시작한 주부가 등장, 타 방송에서는 다이어트에 성공한 여성들이 선정적인 옷차림으로 등장하는 것과 달리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출연하는 모습이 새로웠다. 이처럼 소재를 다룸에 있어서 제작진의 의식에 따라 기존과는 다른 시각과 표현 방식을 보여줄 수 있어 긍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었다.

시사·토론·옴부즈맨 프로그램 모니터링에서 남성 편향성을 보인 것과는 달리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경우, 주진행자와 기자/리포터, 패널의 성비가 대체로 균형적이었으며, 역할에 있어서도 대등한 모습을 보여주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추적60분〉(KBS)의 경우 진행자 대다수가 남성이기는 하지만, 김민전 교수와 정용실 아나운서(2015년 4월 11일~현재)를 진행자로 내세워 남성 진행자를 당연시하는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깨는 사례로, 〈썰전〉(JTBC)에서는 남성개그맨이 육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저는 이유식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설명하며 배우자와 가사·육아를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일과 가정 모두를 놓지 않는 다재다능한 예능인”으로 평가하여 공동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심어주었다.

시사·토론 프로그램은 현재 사회 이슈를 논의하기 때문에 다른 장르에 비해 현실 반영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도 남성의 시각이 담긴 논의가 진행된다면 성차별은 더욱 공고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프로그램의 진행자·기자·리포터·패널·전문가 인터뷰 등에서 양성의 수를 균형 있게 조정하고 대등한 역할 배분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옴부즈맨 프로그램에서 시청자의 성평등적 미디어 비평과 지속적인 의견 개진을 다룬다면, 미디어를 통한 성평등 의식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양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를 위해 노력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주진행자의 약 55%, 인터뷰 대상자의 44%를 여성이 차지하는 등 대부분 항목에서 성비가 비슷하게 구성되었고, ‘여성은 약하다’, ‘여성은 날씬해야 아름답다’ 등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사례가 소개되어 매우 고무적이었다.

〈VJ특공대〉(KBS2)에서는 빅 사이즈 모델 표은진씨가 출연하여 “늘씬한 몸매가 부러울 때도 있지만 꿈이 있고 방송인으로서, 빅 사이즈 모델로서, 가수로서, 연기자로서 제 삶에 만족하며

행복한 거 같아요”라며 주체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 방영, 남성 위주의 환경 속에서 묵묵히 활약하고 있는 액션배우 김현이씨의 강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의 신체와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가정 내 성역할을 위해 <6시 내고향>(KBS1)에서는 족발전문점을 공동 운영하는 부부를 소개하여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역할분담으로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SBS)와 <님과 함께 시즌2 - 최고의 사랑>(JTBC)는 부부가 함께 집안일을 하는 모습이, <리얼다큐 숨>(MBN)에서는 평등한 부부관계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부각되어 교양프로그램의 긍정적인 변화를 엿볼 수 있었다.

보도는 뉴스의 구성과 형식, 양성의 역할분담 현황에 대한 양적 분석을 실시하는 동시에 뉴스의 보도내용이 양성평등 의식을 기반으로 있는지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양성 앵커의 아이템 소개에 있어 이분화된 영역 구분이 완화된 경향을 볼 수 있었고, 오프닝과 클로징에 있어서도 작년에 비해 여성이 전담하거나 양성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연합뉴스TV 방송사의 경우, 양성 앵커 간에 나이 차이가 적거나 같은 연령대라는 점은 고무적이었으며, 클로징 멘트는 남성 앵커는 0건, 여성 앵커는 5건이었으나 대체로 양성이 함께 클로징을 하는 경우가 25건, 전체의 약 68%로 절반 이상을 차지 하였다. 양성 앵커가 함께 클로징을 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성 역할구분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연합뉴스TV 방송사는 여성 앵커가 오프닝과 클로징 멘트를 단독으로 진행하여 신선하다고 평가하였다. 정치 분야 관련 보도 시 여전히 남성의 비율이 높았으나 방송사의 특성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소개하는 비율이 동일하거나 여성이 많은 경우도 있었으며, 사회 분야 소개 시 여성과 남성이 거의 유사한 비율을 보이기도 하였다. 정치·경제·과학·사회 주제는 남성 앵커가, 문화·교육·생활정보 주제는 여성 앵커가 소개하던 기존의 패턴이 매우 완화된 경향이 보여졌으며, SBS·MBN·채널A·YTN에서 성별에 따른 특정 주제 소개의 경계가 많이 완화된 모습을, 연합뉴스TV의 경우 모든 분야에서 여성 앵커의 역할이 두드러진 면을 볼 수 있었다.

<뉴스9>(KBS1)에서 뉴스 메인 주제는 25개로 그 중 양성이 같이 진행한 것은 1개, 남성 앵커 12개, 여성 앵커 12개로 차등 없이 나눈 것이 주목을 받았다. 정치나 경제문제 또한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배분해서 소개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종합뉴스>(채널A)는 방송 내용을 양성 앵커가 같이 멘트하거나 오프닝과 클로징뿐 아니라 기사내용도 양성이 함께 멘트하는 경우가 많아 성평등적 관점이 돋보였다. <뉴스만만>(YTN)은 경제계 대기업 총수의 경영권 분쟁 내용을 양성 앵커의 공동 진행으로 세분화하여 보도하여 정치·경제는 남성 앵커의 고유 영역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긍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포털사이트는 인쇄매체와 함께 각종 이슈와 사건 보도 등에 대한 기사를 전달하는 주요 매체로서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여론 환기의 역할을 담당하여 긍정적인 시각을 전달하

고자 노력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으며 여성이 처해 있는 현실을 부각시켜 주위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 기사가 자주 등장하였다.

〈서울신문〉은 ‘성폭력예방교육 안 받은 장교, 부서관 진급심사 못 받는다’는 제목으로 여군 1만 시대 그리고 군대 내 동성 간 성폭력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의 성폭력예방교육은 양성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됨을 강조, 〈매일경제〉에서는 ‘여성혐오 조장광고, 잇따른 구설 수에도 끊이지 않는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등장, 여성과 남성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사용해 여성혐오를 조장하는 사례를 소개 및 비판함으로써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뉴시스〉에서는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 집중 신고기간을 기사화해 ‘모성보호 관련 불법 집중 신고기간’을 소개함으로써 모성보호 관련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고, 〈아이뉴스 24〉는 ‘컴퓨팅적 사고력’을 창시한 지넷 윈 마이크로소프트연구소 부사장이 전문분야에서 여성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디지털 타임스〉에서는 ‘뽕송 뽕송 기저귀의 비밀 SAT(고 흡수성 수지)’로 LG화학 연구원들의 사진에 여성과 남성 연구원을 배치하여 화학 분야에 대한 성 고정 관념에서 탈피하려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었다.

신문은 4월부터 10월까지 매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환기 기사가 많아졌다는 점, 사회 각계에서 활약하는 여성 사례가 다수 등장한다는 점, 육아휴직제도의 현실적인 내용을 다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경향신문〉에서는 ‘치매환자 가족 돌보는 치유연극’이란 기사로 치매 환자를 위해 가족이 함께 노력하도록 긍정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흔히 치매 환자를 돌보는 역할은 여성으로 고정화된 점을 연극이라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한 사람의 역할이 아닌 가족의 역할로 인식시켜 양성평등적 시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일보〉는 ‘긴즈버그, 남성에 대한 차별도 걷어내야 진정한 양성평등’이라는 헤드라인으로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 인터뷰를 통해 “평등을 이루려면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 대한 차별적 장벽까지 걷어내야 한다. 진정한 양성평등은 양성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해주자는 것”임을 분명히 하여 여성우대로 오인되고 있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내용을 담았다. 또한 ‘딸의 부모 부양능력, 아들의 절반만 인정, 양성평등, 못 따라가는 복지 제도 수두룩’에서 국민연금과 부모 부양능력에 여성차별조항과 남성차별조항이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을 다뤄 기초 수급자 대상을 선정함에 아들의 부양비의 절반만 딸에게 부양비로 계정하기에 아들을 둔 부모가 기초수급자 되기가 딸을 둔 부모보다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조선일보〉에는 ‘금남의 벽 허무는 인하공전 항공운항과’를 기사화 해, 1977년 국내 최초로 개설된 인하공전 항공운항과는 지금까지 여성만 선발해 왔으나 ‘인하공전이 객실 승무원을 양성하는 항공운항과 교육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2018년부터는 신입생 모집에 남성도 선발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고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한 사례로 평가된다.

(2) 성차별적 내용

드라마 모니터링 결과, 여전히 여성을 종속적이고 보호받아야하는 대상으로 표현하는 대사와 장면이 존재하여 여성을 상품화하며, 여성의 능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외모’라는 식의 외모지상주의 부각, 여성을 수동적으로 묘사하거나 자극적인 표현 사용, 가부장적/남아선호 대사들이 빈번해졌다.

〈슈퍼대디 열〉(tvN)은 아내가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과 여성을 폄하하는 모습을, 〈황홀한 이웃〉(tvN)은 사업 아이템을 이용하여 성공하려는 매니저가 자신의 아내를 남편의 부속물처럼 표현함으로써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장면을 내포하고, 〈냄새를 보는 소녀〉(SBS)는 ‘여자이기 때문에 밤늦게 다니는 것은 위험하다’고 표현하여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 부재에 대한 접근의 제시 없이 밤늦게 다니는 여성을 문제의 원인 제공자로 인식하게 하여 문제의 소지가 많다. 〈울지 않는 새〉(tvN)은 여주인공이 곤경에 처하자 남주인공이 “곤경에 처한 공주님이 기다리고 있다”거나 “꽃이 나비를 찾아가는 법은 없지” 등의 비유를 통해 여성은 늘 남성의 도움을 받아야만 문제를 해결한다는 식의 수동성을 그려내며, “아무리 아닌 척 해봐야 난 알아, 당신이 얼마나 지독하게 날 원하는지, 당신의 욕망이 얼마나 뜨거운지. 오늘밤 당신이 원하는 걸 가져. 나는 내가 원하는 걸 가질 테니까”라는 자극적인 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가부장적/남아선호대사 역시 자주 등장하는데 〈이브의 사랑〉(MBC), 〈가족을 지켜라〉(KBS1), 〈내딸, 금사월〉(MBC)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내딸, 금사월〉은 가부장적/남아선호대사가 빈번하여 시청자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것으로 볼 때, 수동적 여성·가부장적 가족 문화·왜곡된 모성 등의 성차별적 요소가 여전히 답습되어 나타나고, 자식을 위해 스스로 희생을 강요하는 모성을 담아내는가 하면 왜곡된 모성에 대한 묘사도 많아져 ‘모성보다 강한 것은 없다’는 이데올로기를 심화하고, 심지어 모성으로 인한 범죄를 옹호하려는 시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성차별적 대사를 일삼거나 성 의식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여전히 큰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시대를 거슬러 남아선호사상이나, 가부장적 환경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를 문제로 인지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인지와 인권감수성 관점을 가진 드라마를 홍보하고 건강한 미디어를 확대, 재생산 하도록 제작진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예능은 여전히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상품화·외모 지상주의를 담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희롱을 개그의 소재로 삼으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시청률을 의식하여 자극적인 장면을 통해 관심을 끌고 시청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짜 사나이2〉(MBC)에서는 남성에게 대한 고정관념과 희화화가 유독 많았다. 복장을 착용하는 방법을 교육할 때, 소대장이 훈련병들 앞에서 남 개그맨의 옷을 탈의시키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되었고, 훈련병들이 환복하는 장면에서 속옷이 보이는데

도 여과 없이 화면에 노출되었는데, 이는 ‘남성의 속옷은 보여도 괜찮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드러났고, <코미디 빅리그>(tvN) ‘깍스’에서 남성 개그맨의 성기 부분을 파일로 쳐서 성적 수치심을 개그 소재로 삼는 장면이 방송되고, 놀이동산에서 인형탈을 쓰는 사람이 옷을 거꾸로 입어 꼬리가 앞에 달리자, 상사가 가위로 잘라 남성의 성기 모양이 되도록 만든 장면, 재판장에서 피고가 자신의 성기는 통나무이고 판사의 성기는 이쑤시개라고 말하는 대사 등이 여성을 비하하는 것을 뛰어넘어 남성의 신체 등이 개그소재로 쓰이고 있어 지나치게 선정적일 뿐 아니라 남성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남성에게 대한 성희롱을 개그 소재로 삼아 희화화했다는 점에 대한 시정이 필요해 보인다.

아동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문제의식의 부재는 여전하다. <슈퍼맨이 돌아왔다>(KBS2)의 경우, 사회적으로 공동 육아의 중요성을 알렸고 아빠 육아의 필요성과 방법을 잘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남자는 강해야 한다’라는 자막을 사용하여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화하였다. 외모지상주의를 부각하거나 성상품화와 여성외모 비하는 그 수준이 심각하다. 34년째 방송되고 있는 <전국노래자랑>(KBS1)은 여성의 신체를 부각시키는 촬영기법을 사용한 점, 노래하는 여고생의 춤추는 장면을 아래에서 위로 훑으면서 여성의 신체를 더듬듯이 촬영하는 점, 여성 출연자의 노출 의상과 신체를 과도하게 부각시킴으로써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여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코미디 빅리그>(tvN)의 ‘희극지왕’에서는 여성무림고수의 싸움에서 여성의 가슴을 부각하여 선정적이고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였다. ‘아이 러브 뎀드’에서는 여성이 스님 역할인 개그맨을 유혹하며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는 모습을, <스타킹>(SBS)은 다이어트 후 날씬해진 여성에게 ‘꿀 보디로 남심 지대로 저격’이라는 자막으로 여성의 아름다운 신체가 남성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의도를 보여주었고, <개그콘서트>(KBS2) ‘이개세’에서 여성개그맨에게 “앞뒤가 같다” 등 여성개그맨의 외모를 폄하하고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장면에서 여성개그우먼뿐 아니라 남성개그맨의 외모 비하 및 희화화로 개그 소재로 사용하였다.

흥미와 오락을 추구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오히려 대중들에게 쉽게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출연자보다 제작진의 의지와 의식개선이 중요하다. 따라서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의 지속적인 의견 개진이 이루어져야 하며 인권감수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는 제작진의 노력이 요청된다.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진행자와 기자/리포터의 성별 비율이 약 2:1의 차이를 보였다. 패널의 경우, 남성은 40명인데 비해 여성은 7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생방송 심야토론>(KBS1)의 경우는 남성 진행자와 4명의 남성 패널로만 구성, 여성은 전무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SBS)는 한 번도 여성 진행자가 없었는데, 이는 여성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거나 신뢰감이 약하다는 선입견으로 인한 결과로 보여져 아쉬웠다.

다문화 이주여성에 대한 편향된 시각 확산 우려를 낳은 방송도 있었다. <썰전>(JTBC)에서

는 성매매특별법에 관해 토론하던 중,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들을 낮은 계층으로 규정하며 자녀를 ‘관리 대상’으로 치부하였다. 또한 성차별로 인해 국제결혼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이주 여성들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선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주 여성들과 그 아이들만이 사회문제의 원인이라고 말함으로써 편협한 사고방식을 보여주었다. 특히 강용석은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의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아 대중에게 국제결혼·다문화가정을 문제시하고 사회적 소수자인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차별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편향된 시각을 드러내었다. 진행자의 발언에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아래 개인의 생각이 마치 공통된 의견인 것처럼 여과 없이 방송에 그대로 내보내는 제작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공적책임을 갖고 있는 방송사가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방송을 내보낸 것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시사기획 창〉(KBS1) 등 전문성 제공은 남성, 이미지 제공은 여성의 구도도 여전했다. 취재기자는 남성으로만 구성, 인터뷰 대상자 중 여성에 비해 남성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전문가집단도 대부분 남성으로만 구성하여 남성을 전문적인 존재로 규정짓고 여성을 사적인 영역, 가정 내 어머니·주부·아내의 이미지만 부각시켰다.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MBC)에서는 여성 아나운서에게 단 두 번의 질문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역할 없이 방송 내내 앉아 있도록 해, 비중을 낮추고 구색 맞추기 식의 이미지 연출을 위해 출연시켜 성차별적 요소로 내포하였으며, 〈시청자의회〉(JTBC) ‘TV 대 TV’에서 아침에 아이를 깨우고 아침밥을 챙겨주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어 마치 엄마의 역할인 양 고정화하였다. 〈PD수첩〉(MBC)에서는 청년 취업난을 다루는 인터뷰에서 인사담당자가 “여성은 자기 의견도 없고 소극적이다. 비슷한 시기에 다 결혼할 텐데 또 비슷한 시기에 임신, 출산 휴가를 낼 것”이라며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을 여과 없이 방송하는 것을 볼 때, 제작진까지 이에 대한 비판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점에서 인권과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교양에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문제는 출연자들의 성차별적 발언이 여과 없이 방송되거나 심지어 방송 자체가 성차별적인 방향으로 연출되는 등 제작진의 성인지 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화이트스완〉(JTBC)와 〈렛미인5〉(tvN) 등의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주인공으로 선정된 일반인 여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패널은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된 점이 아쉬웠다.

〈정보끝판왕 황금마차〉(TV조선)은 여성 진행자들이 주도적으로 방송을 이끌어 나가는 점은 고무적이거나, 일명 ‘끝판왕’으로 등장하는 전문가들은 모두 남성, 방청객들은 모두 여성으로 구성되어 성비 불균형이 여전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패널의 경우 여성비율이 약 35%에 그쳤다.

제작진의 양성평등적 시각이 부족한 프로그램은 외모 때문에 고통 받는 여성들을 선정해 성형수술과 다이어트, 정신과 상담을 진행하는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이다. 이는 수많은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논란과 비판을 일으키고 있는데, 〈렛미인5〉(tvN)은 출연자의

전·후 차이의 극대화를 위해 “드럼통 같다”, “시댁에는 오지도 말고 아들과 손녀만 보내라”는 시어머니의 외모 비하 발언을 그대로 내보낸 점, 변신 전 출연자의 살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을 클로즈업하고, 변신 후에는 출연자의 전신을 위아래로 훑는 등 극단적인 장면을 연출하여 자극적으로 표현, <화이트 스완>(JTBC)의 경우도 출연자의 외모지상주의로 인한 스트레스를 드러내는 모습 등 자극적인 장면들을 방송했다. 이처럼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재건해야 할 부분보다는 전신 성형 등을 통해 외모의 변화를 더욱더 극적으로 보여주거나 반전 외모를 강조하고 있어, 이는 제작진이 성형 수술을 권장하고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는 사회가 요구하는 미의 기준에 출연자들을 맞춘 뒤 그들을 ‘당당하고 행복한 여성들’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외모지상주의에 순응하며 이를 재생산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프로그램에서 성차별적인 장면들이 발견되어 제작진의 비판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인간극장>(KBS)에서 한 출연자의 “젊어서는 어떤 사람도 다 좋지 화사하고 좋고 예쁘고. 더군다나 여자들은 더 그렇고 그래서 그때가 꽃필 때예요. 지금은 할미꽃. 그래도 열매는 맺고 씨는 다 받아놔오니 됐지”라는 발언이나, <충격실화극 싸인>(채널A)에서 “씨받이 주제에”, “꽃뱀 주제에”라는 대사 등 여성비하 발언을 그대로 방송하였다.

교양은 아니지만 이슈가 되었던 <쇼미더머니 4>(M.net)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욕설이나 비속어가 많아서 비프음 처리를 하거나 XX로 자막을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출연자의 랩 가사 중 “MINO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라는 내용이 방송되었다. 이는 명백한 여성비하의 내용이었지만 제작진이 여과없이 방송을 하였다. 성차별적인 내용을 편집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후에야 뒤늦게 사과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며 문제를 일시적으로 봉합하려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15세 이상 관람가인 이 프로그램의 주 시청자 층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방송책임자 및 관계자는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건강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연자들과 제작진·방송사는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건강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보도는 뉴스 분야별 양성기자 보도 수 차이 분석에서 여성기자는 경제·문화·스포츠 영역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남성기자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영역 분포로 영역의 불균형이 문제시되었다. 또한, 인터뷰 대상자의 직업별 분포에서 공무원과 전문직 대상 인터뷰에 여성 참여가 부족한 면이 두드러져 아쉬움으로 남았다. 한편, 내용적인 면에서 여전히 양성평등적 관점에 입각한 보도보다는 성차별적 내용이 남아있어 미디어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한 다각적인 개선운동이 필요해 보인다.

앵커의 연령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방송사에서 남성은 40~50대 기자 출신, 여성은 20~30대의 아나운서 출신으로 양성의 평균 연령이 10~20년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차이가 전문성의 차이로 연결되어 남성 앵커에게 신뢰감과 전문성이 부여되고 있다. 또한 오프닝 시 남성 단독 진행은 15건, 여성 단독 진행은 4건으로 남성 단독 진행이 4배 가량 많은 것으로 볼 때, 성차별의 전형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인터뷰 시 공무원과 전문직 대상 인터뷰에서 여성의 참

여가 부족하고, 인터뷰 내용에 따른 성별에서 전문 분야 의견 제시 역시 대부분 남성이 담당, 여성의 경우 전문적인 견해보다 일반 시민의 의견제시가 많아 인터뷰 대상자 선정에 있어 성별 고정관념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뉴스데스크〉(MBC)는 기자의 성비를 볼 때 남성은 21명, 여성은 4명으로 남성 기자의 수가 압도적이고, 〈종합뉴스〉(채널A)는 주 진행은 남성 앵커가 맡아 여성 앵커는 보조 진행자라는 느낌을 전달하였으며, 〈연합뉴스20〉(연합뉴스TV)는 주요 패넬, 인터뷰 대상자가 남성으로 집중 편향되어 여성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분야에서 남성 기자의 취재보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치·경제·사회 분야 담당, 여성기자가 문화·생활정보 분야를 취재하는 양상은 여전하다. 〈종합뉴스〉(채널A)는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뉴스에서 담화문 내용과는 상관없는 대통령의 패션에 대해 언급하며 유독 여성 정치인에 대해서만 정치적인 행보보다는 패션과 외모에 대해 언급하는 보도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렇듯 2012년~2014년 모니터링 결과와 비교해볼 때, 여전히 양성 기자의 역할분담이 뚜렷이 구분되고 있는 점과 기자의 분야별 취재보도에 있어서 성역할 고정관념 및 역할 이분화는 개선되지 않은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포털사이트 내 언론기사는 선정적인 이미지 사용으로 여성을 상품화, 성적대상화를 한 기사가 많았다.

〈SPORTAL KOREA〉는 여성 연예인의 몸을 강조하여 표현하는 제목들로 여성을 성상품화하였으며, 여성을 비하하는 기사 제목이 다른 언론사에 비해 자주 표현, 〈스포츠동아〉는 선정적 화보와 제목으로 유인했으나 내용과는 상이하고, ‘조안나 크루파, PETA 기념파티서 또 한번 화끈한 노출 드레스’라는 제목으로 지나치게 선정적인 사진과 제목을 사용, 〈일간스포츠〉는 스포츠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선정적 사진 모음판의 개념이 강했으며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사진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심각하다.

또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언어 사용도 무분별하다. 〈세계일보〉에서는 교사가 여고생에게 ‘너희는 다리만 잘 벌리면 돼’라는 제목의 기사로 교사가 수업 중 여고생들에게 ‘너희는 다리만 잘 벌리면 된다’는 입으로 읊기기도 민망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기사에서, 자극적인 발언을 제목에 실은 것은 독자들의 불쾌감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클릭만을 유도한 기사로 보여지고, 〈YTN〉에서는 ‘명절스트레스, 날 위한 분노의 쇼핑으로 푼다’라는 제목으로 명절후유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명절후유증 문제와 원인이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처럼 보도하며 여성의 스트레스 해소 방식을 자극적으로 표현, 〈마이데일리〉는 전반적으로 사진과 기사제목이 여성의 특정부위를 강조하고 선정적이고 스포츠 뉴스에서는 경기 내용보다 치어리더의 치마 속이나 다리를 강조하는 기사나 사진을 실어 성을 상품화 하는 기사가 많았다. 〈코리아헤럴드〉는 해외 기사를 여과 없이 번역하여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소 선정적인 부분들이 있어 필터링의 기능이 필요해 보인다.

인쇄매체와는 다르게 포털사이트 내에서는 방대한 정보가 쏟아지고,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적·낙시성 기사들이 무분별해지고 있으며,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 혹은 과도한 문구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언론사가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에서의 선정성 문제는 사회적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규제 방안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인터넷상에서의 언론기사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TV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빈도보다 훨씬 높고 다양한 연령층에게 노출되어 있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또한 인터넷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아 그 제재마저 쉽지 않아 포털에서의 언론 기사를 규제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신문은 여성차별·여성비하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여성 외모지상주의를 부각하는 기사를 빈번히 찾을 수 있다.

〈중앙일보〉에서는 ‘어릴 적 요리사 꿈꾸던 여대생, 국제 기능올림픽 제빵왕 됐네’, 〈경향신문〉은 ‘법원, 내연녀에게 준돈은 불법... 못 돌려받는다. 불륜유지비용으로 손해배상도 기각’에서 ‘불륜관계’로 표시할 기사를 ‘내연녀’라고 표현하여 여성의 문제로 인식되도록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 〈문화일보〉는 ‘부킹녀 性폭행 2심 법정구속’에서도 부킹녀라는 표현으로 여성을 비하하여 양성평등적 관점을 찾기 어려웠다. 〈동아일보〉에서는 ‘화장도 취업 전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대학생이 취업을 위해 능력을 배양하거나 인성을 쌓는 것을 강조하기보다 외모를 가꾸어야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그대로 담아내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문화일보〉는 ‘수업 중 제자 가슴 만지고... 교수가 남학생 나체 촬영도...’는 성폭력이나 성추행 등의 잘못된 행동을 표현하는 삽화로 남성이 성폭력 가해자로 그려지고 있는데, 성폭력은 이성 간의 상황이 아니라 동성이나 노소(老少) 등의 사이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삽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렇듯 6개 신문을 볼 때, 대체로 양성평등 위배기사가 많고, 여성 관련 보도는 총 보도 수 8,696건 중 497건 인 5.71%로 여전히 부족하며, 여성 외부 기고가의 수는 18.3%(총 639명 중 117명)에 불과하다. 또한 비키니 여성을 자주 등장시켜 여성 이미지 왜곡 및 성 상품화, 외모 지상주의를 부각하는 것은 심각한 수준이다.

3. 대중매체 모니터링을 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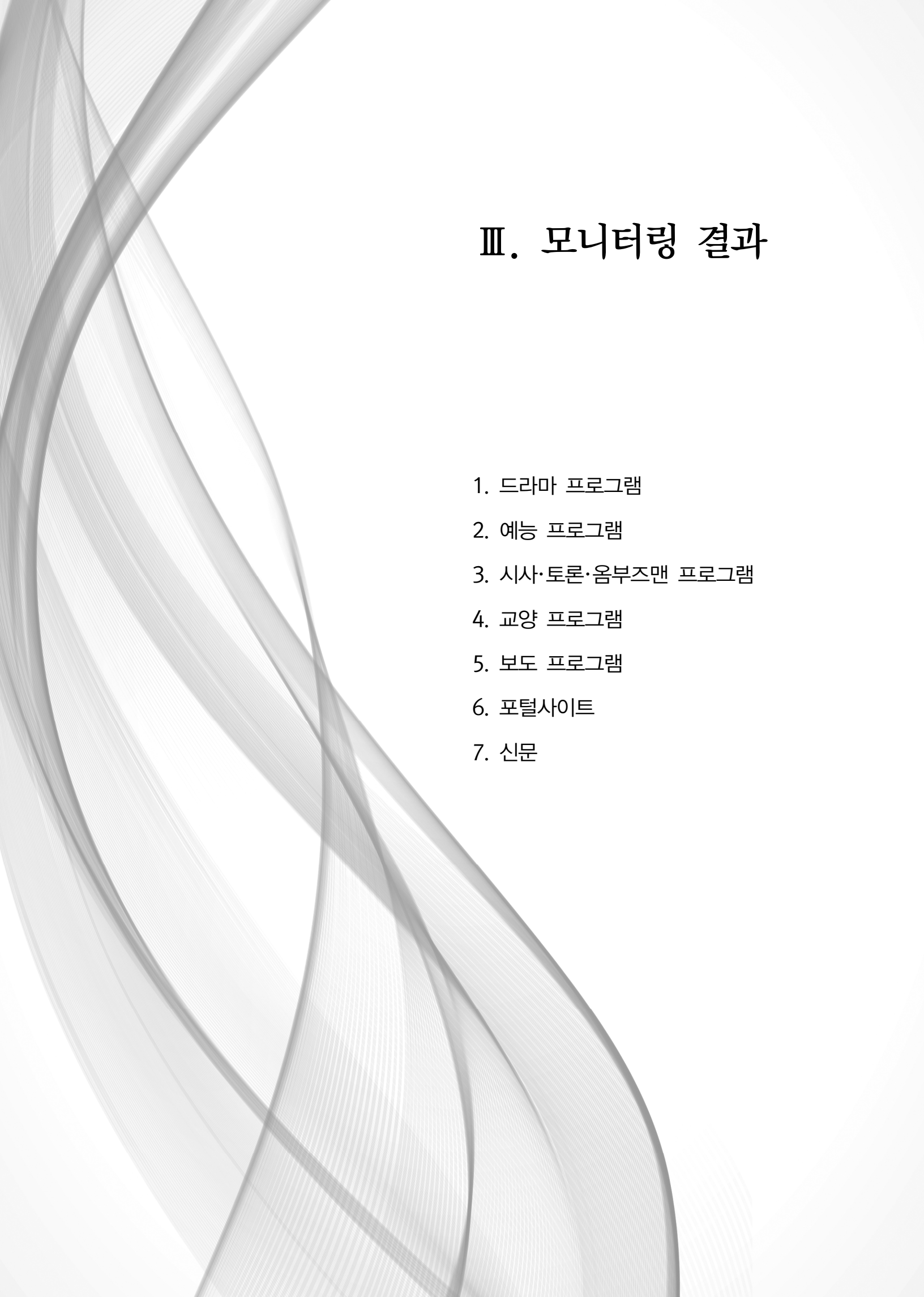
- 1) 매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성의 신체를 조롱하거나 희화화 확대
- 2) 성별 고정관념을 확대 재생산하는 등 성차별적인 내용이 방송의 소재로 쓰이는 경우 빈번
- 3) 방송심의규정 제30조(양성평등)은 방송 내용이 성평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으로 심의에 제재를 받은 사례는 거의 없음.

- 2013년에 양성평등 조항인 제30조 심의위반 건수는 5건으로 총 심의위반 건수(652)의 0.8%에 그쳐
- 2014년에는 총 심의제재 393건 중 5건으로 1.3%에 불과

- (1) 한국의 양성평등 조항이 심의제재를 위반한 사례가 극히 적은 이유는
 -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의 젠더 의식 미흡
 - 심의규정이 선언적이며, 구체적이지 않아 심의제재에 적용 어려움
 - (2) 현재 양성평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심의제재를 받은 사례는 소수에 불과
방송에서는 성희롱과 성폭력을 정당화 및 희화화·외모차별을 강화하는 메시지들은
지속적으로 노출
 - (3) 웃음 유발장치가 필요한 드라마나 오락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교양 및 뉴스 프로그램에서까지 확대·재생산
- 4) 심의위원, 방송 제작자(PD/작가)의 젠더 의식 및 양성평등적 시각 현저히 부족

4. 제언

- 성평등 관점의 미디어 모니터링 강화 필요
- 구체적 심의규제 기준 마련
-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역할 및 권한 강화
 -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성평등 관점 미디어 비평 확대
 - 드라마, 오락, 교양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지속적 문제제기
- 심의규정 조항을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하도록 개정, 방송제작자 대상 양성평등 교육 강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성평등 감수성 갖춘 여성 위원 비율 확대
- 성평등 내용을 담은 공익광고 제작 확대 및 황금시간대 편성
- 시민단체 중심의 시청자 주권 운동 필요
 -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성평등' 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성불평등/성차별 제안, 시행 절차 간소화
 - 시민 참여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링과 개선운동 지속 전개
 -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 미디어교육, 캠페인 확대
 - 민·관 거버넌스 강화



Ⅲ. 모니터링 결과

1. 드라마 프로그램
2. 예능 프로그램
3. 시사·토론·옴부즈맨 프로그램
4. 교양 프로그램
5. 보도 프로그램
6. 포털사이트
7. 신문

드라마 프로그램 보고서(4월)

I. 모니터 개요

- 모니터 장르 : 드라마(지상파, 종편, 케이블)
- 모니터링 기간 : 2015년 4월 20일 ~ 28일
- 모니터링 대상매체 : KBS1, KBS2, MBC, SBS, JTBC, tvN
- 프로그램 수 : 21편, 41회

방송사	제목	시간
KBS1	징비록	토, 일 21:40
	당신만이 내 사랑	월 ~ 금 20:25
KBS2	블러드	월, 화 22:00
	착하지 않은 여자들	수, 목 22:00
	파랑새의 집	토, 일 19:55
	TV소설 그래도 푸르른 날에	월 ~ 금 09:00
	오늘부터 사랑해	월 ~ 금 19:50
MBC	압구정 백야	월 ~ 금 20:55
	화정	월, 화 22:00
	앵그리맘	수, 목 22:00
	여자를 울려	토, 일 20:45
	여왕의 꽃	토, 일 22:00
	폭풍의 여자	월 ~ 금 07:50
SBS	풍문으로 들었소	월, 화 22:00
	냄새를 보는 소녀	수, 목 22:00
	황홀한 이웃	월 ~ 금 08:30
	달려라 장미	월 ~ 금 19:20
tvN	식사를 합시다2	월, 화 23:00
	슈퍼대디 열	금, 토 20:30
	초인시대	금 23:30
JTBC	순정에 반하다	금, 토 21:45

Ⅱ. 내용 분석

1. 성평등적 내용

(1) 주체성이 강화된 여성캐릭터의 증가

최근 드라마에서는 여성캐릭터가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캐릭터로 등장하기 보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한 사람의 삶의 변화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의 삶의 자세에도 영향을 줌으로써 여성들의 건강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풍문으로 들었소〉(SBS)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서봄이 권력을 가진 집안인 시택에 들어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조금씩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는 모습을 그린다. 이 드라마에서 서봄은 자신의 위치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남편에게도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조언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풍문으로 들었소(SBS)〉



〈순정에 반하다(JTBC)〉

〈순정에 반하다〉(JTBC)에서 김순정은 정확한 일솜씨와 좋은 인간 관계로 많은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주체적인 여성으로 묘사된다. 김순정은 자신의 삶만 주체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남주인공인 강민호에게 절도감 있고 긍정적인 자아감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

〈TV소설 그래도 푸르른 날에〉(KBS2)에서 여주인공 이영희는 자신을 도와주려는 남자의 도움을 거절하고 홀로 사장을 찾아가 사건을 해결한다. 이는 여성이 남성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드라마에서 여성캐릭터들이 호감 있는 남자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모습이 증가하고 있다.

〈초인시대〉(tvN)에서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이 남성에게 먼저 데이트를 신청하는 모습이 보인다. 4월 28일(20회) 〈풍문으로 들었소〉(SBS)에서 “서철식(봄이 삼촌)씨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먼저 데이트 신청했어요”라고 말하는 민주영의 모습이 나타난다. 4월 27일(7회) 〈식샤를 합시다 2〉(tvN)에서 홍민아는 서브 남성 주인공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

며, 사귀고 싶다고 말한다. 이는 기존에 만남에 있어서 남성의 결정과 선택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었던 여성의 모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2) 전문직 직업을 가진 여성캐릭터 증가

여성의 직업이 전업주부의 모습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닌 교수, 의사, 경찰, 회사 경영진, 아나운서 등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달려라 장미〉(SBS)의 최교수와 〈착하지 않은 여자들〉(KBS2) 정마리는 연구교수로 등장한다. 극중 이 두 인물은 적극적으로 자료를 찾고, 연구프로젝트를 신청하여 발표하는 등 자신의 직업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당신만이 내사랑〉(KBS1)은 한 지붕 다가죽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로 여성들의 다양한 직업을 발견할 수 있다. 극중 송도원은 케이블방송국 PD와 과일 시장 상인, 남혜리는 빅마트 본부장, 강부남은 푸르트코리아 명예이사, 오말수는 동성시장 건물주로 등장하여 여성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보여준다.

〈순정에 반하다〉(JTBC) 나옥현은 극중 서대문구 경찰서 형사로 출연한다. 4월 27일(7회) 방송에서 나옥현이 이준혁을 마동욱의 살해 용의자로 취조하는 장면은 새로운 직업 영역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기존의 드라마에서는 취조실에서 남성이 남성을 취조하는 설정이 대부분이었으나 여성형사인 나옥현이 남성 범무팀장을 취조하는 장면이 연출되어 참신하였다.



〈순정에 반하다(JTBC)〉

〈냄새를 보는 소녀〉(SBS)의 염미는 광역수사대 프로파일러이다. 염미는 사건 조사 지휘에 있어서 팀원들에게 사건의 전말을 잘 파악하여 명확하게 조사를 진행시키며, 성공적으로 사건을 조사하는 인물로 표현된다.

〈슈퍼대디 열〉(tvN)의 차미래는 최초 대학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 자신의 일에 있어서 완벽하고 당당한 전문직 여성으로 묘사함으로써 남성으로 한정되었던 다양한 직업에 여성이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인식 환기

가족형태의 다양한 모습을 반영한 드라마가 증가했다. 싱글맘, 혈연 관계로 맺어지지 않은 가족, 한 지붕 다가족의 모습을 다룬 드라마가 등장했다.

〈파랑새의 집〉(KBS2)은 혈연을 뛰어넘는 가족의 확장을 담아낸 드라마이다. 김지완의 가족 구성은 조부모, 피한방울 안 섞인 엄마와 여동생, 그리고 할머니의 수양딸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혈연을 뛰어넘는 가족의 확장을 다룸으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한다.

〈슈퍼대디 열〉(tvN)은 싱글맘의 모습을 경제적으로 어렵고, 독기를 품고 악착같이 살아가는 극단적인 형태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경제적 여유와 당당함과 밝은 모습으로 묘사함으로써 싱글맘에 대한 기존의 선입견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당신만이 내사랑〉(KBS1)은 가족으로부터 버림 받은 오말수의 집에 아내로부터 버림받은 송덕구와 그의 딸 송도원, 싱글파파 노영기, 코피노 남순이 경제적인 이유로 함께 모여 산다. 경제적 이유로 동거하는 쉐어하우스의 모습을 그리며, 이 시대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2. 성차별적 내용

(1) 여성의 성 상품화 및 외모지상주의 여전히 부각

〈착하지 않은 여자들〉(KBS2) 4월 23일 방송에서 강순옥은 장모란에게 멸칭하게 생겼으면서 못난 남자들을 만났다고 언급한다. 이는 여성의 외모가 결혼 등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척도임을 암시하는 대사로 볼 수 있다.



〈식샤를 합시다 2(tvN)〉



〈여왕의 꽃(MBC)〉

〈식샤를 합시다 2〉(tvN)에서는 편의점 알바생인 황혜림과 이주승이 만나는 장면에서 황혜림의 가슴을 보여주고 이주승이 이에 반해 황혜림을 따라다니며 편의점 알바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의 외모가 남성의 판단기준이 된다는 성차별적 표현이다. 특히, 이 장면에서 이주승의 심리를 묘사하기 위해 황혜림의 굴곡진 가슴과 몸의 라인을 클로즈업한다. 이는 여성의 몸을 성상품화한 장면이다. 4월 28일(8회) 방송은 이주승과 황혜림의 갈등관계에서 황

혜림의 가슴이 팔에 닿자 이주승의 화가 풀리는 장면을 방영한다. 이는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부각시킨 장면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식당이 맛집으로 판명된 이유가 알바하는 여학생의 외모 때문이라고 설정한 것은 여성의 외모지상주의가 반영된 것이다.

〈여왕의 꽃〉(MBC) 4월 25일 방송에서 은솔이가 어린 영구에게 “영구 도사님, 난 언제쯤 취직이 될까요?”라고 질문한다. 어린 영구는 “살 먼저 빼세요.”라고 대답한다. 이 장면은 어린 아이임에도 외모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외모가 능력이나 실력보다 우선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만든다.

〈초인시대〉(tvN) 4월 24일(3회) 방송에서 김창완이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앞에 선 여성의 다리와 뒤에 서있는 여성의 가슴을 클로즈업한다. 김창완의 초인적 능력과 연결되기에 맥락상 설정은 맞지만, 여성의 신체를 부각시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풍문으로 들었소〉(SBS) 4월 28일(20회) 방송에서 아버지 한정호가 정상적인 체중으로 보이는 딸 한이지에게 10kg을 감량하라 한다. 이에 딸 이지가 “너무 한 거 아냐”라고 대답하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때는 육체를 강제하는 것도 방법이다. 왜 사람들이 돈과 시간을 들여 운동과 다이어트를 하는지 알려주마. 과체중은 자기관리를 못하는 사람의 전형”이라며 한정호가 말한다. 이러한 대화는 외모지상주의와 날씬한 몸매를 선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돈과 시간을 들여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의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

(2) 여성을 종속적이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서 인식

〈슈퍼대디 열〉(tvN)은 남편의 사표수리를 막기 위해 회사동료 부인에게 선물을 하고, 상사들에게 애교작전을 과도하게 펼치는 여성의 모습이 나온다. 이는 아내가 남편의 성공을 위해 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과 더불어 여성을 폄하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황홀한 이웃〉(tvN)은 사업 아이템을 이용하여 성공하려는 매니저가 자신이 부르면 언제든지 아내가 달려온다고 언급한다. 이는 아내를 남편의 부속물처럼 표현함으로써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장면임을 알 수 있다.

〈순정에 반하다〉(JTBC)에서 강민호가 대표이사자리를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겠다고 이준희에게 선전포고를 하며 “전처럼 계속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 사는 데 중간은 없어서 살면서 모든 걸 가질 순 없고, 그래서 노선하나 정한 게 누가 뭐래도 내가 이 회사 살린다. 어제 네 덕분에 확실히 알게 됐다. 내 힘으로 꼭 지켜야 할 것들, 이 회사 그리고 김순정. 절대 너한테 안 넘겨 밥 많이 먹고 다녀”하며 말한다. 강민호와 이준희 사이의 삼각구도에서 김순정이 대표이사의 비서라는 설정과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의 남자에게 구속되어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설정과 대사는 아직도 뿌리 깊은 가부장적 사고와 수동적인 여성의 위치를 보여주는 모습의 반영이라 아쉬웠다.

〈냄새를 보는 소녀〉(SBS) 4월 22일(7회) 방송에서는 최무각이 오초림에게 여자이기 때문에

밤늦게 다니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한다. 이는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 부재에 대한 접근의 제시 없이 밤늦게 다니는 여성에게 문제의 원인 제공자로 인식되게 하는 문제가 있는 대사이다.

(3) 여전히 왜곡된 여성의 모습 부각

〈오늘부터 사랑해〉(KBS2)에서 장세령이 정운호에게 윤승혜를 자르라고 강요한다. 장세령은 정운호가 윤승혜에게 친절하다는 이유로 퇴사를 강요한다. 이는 장회장의 딸로서 실력도 없고,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여성이 부모의 후광덕분에 외식 사업부 팀장에 올라간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왕의 꽃〉(SBS) 4월 26일(14회) 방송에서 레나정이 TNC그룹 본부장 박민준의 도움으로 요리방송에 다시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에 대하여 방송국 예능 국장과 메인 MC는 레나정이 박본부장에게 몸을 허락하여 방송출연의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언급한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기회 획득을 폄하하고 성적인 문제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을 강화시키는 위험성이 있다.

(4) 가부장적이고 고정화된 남성의 모습

〈착하지 않은 여자들〉(KBS2)에서 김철희가 식사자리의 가장 상석에 앉고, 그 자리에 앉아서 가족들에게 훈계하는 장면. 김철희와 강순옥 부부가 저녁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으나 예약을 하지 않아 식당을 나오게 되었을 때, 불평하는 김철희에게 강순옥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자, 김철희가 남자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느냐고 대답하는 장면은 가부장적 가치관을 반영한 모습이다.

이문희와 김현정이 커플링을 맞추면서 남자들이 커플링을 먼저 맞추고 프로포즈링을 사기 때문에 호수가 틀리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프로포즈가 남성의 역할이라는 고정된 관념을 묘사한 것이다. 또한, 이문희가 김철희에게 결혼 승낙을 위해 보여드려야 할 목록 중 ‘통장사본’이 언급된다. 이는 남성의 경제력이 결혼승낙에 중요한 요소임을 표현한 것으로 남성의 역할을 ‘경제 영역’에 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순정에 반하다〉(JTBC)에서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친구 이준희가 김순정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 묘사된다. 이 때 이준희는 “훨씬 멋있고 힘 있는 남자가 되어야 할 거 같았어. 나 이제 대표이사로 선임될 것 같아”라고 말한다. 이 대사만으로도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남성은 힘이 있어야하고 권력을 가져야한다는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것이라 아쉬웠다.

〈풍문으로 들었소〉(SBS)에서 반기를 드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석고대죄라도 모자라 어머니께 빌어라”, “기회를 주겠다. 이 자리에서 빌고 공부에 전념하면 용서하겠다. 아니면 집을 나가라. 부모를 손가락질하며 호의호식하며 사는 건 모순 아니냐”, “시끄러워”와 같은 가부장적이며 호통을 치는 아버지의 모습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는 아들의 사기를 꺾는 부정적이며 강압적인 모습이며, 자식에게 종속적이며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모습이 부각돼 아쉬웠다.

Ⅲ. 나가며

이번 드라마 모니터링의 가장 큰 특징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는 여성캐릭터들이 다수 등장했다는 것이다. 여주인공들이 남성에게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종속적인 모습으로 그려진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척하며, 어려움을 주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캐릭터들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여성캐릭터의 발전과 더불어 여전히 여성을 종속적이고 보호 받아야하는 대상으로 표현하는 대사와 장면이 존재하여 아쉬웠다. 또한, 여성을 성 상품화하며, 여성의 능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외모라고 표현하는 드라마도 여전히 많은 아쉬움을 남게 하였다.

[첨부]

■ 성평등 내용

1. 주체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평등적 내용
MBC	앵그리맘	4월 22일 (11회)	 학교 건물의 부실공사를 막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들이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에서 주체성이 드러남.
KBS2	TV소설 그래도 푸르른 날에	4월 27일 (41회)	주인공 이영희가 자신을 도와주려는 남자를 뒤로하고 홀로 사장을 찾아가 사건을 해결하려함. 여성이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인상적임.
SBS	풍문으로 들었소	4월 27일 (19회)	 〈여주인공 서봄의 모습〉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평등적 내용
			재개발 지역의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서봄(고아성)은 혼전 임신으로 거대한 갑의 집안인 시택에 들어와 당당하게 조금씩 자기 자리를 찾아가며 소극적인 남편에게도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조언하며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줌.
		4월 28일 (20회)	“서철식(봄이 삼촌)씨 만나기로 했어요. 사귀냐고 물어보시니까 사람이 달라보이더라구요. 제가 먼저 데이트 신청했어요.”라며 민주영(한송 비서실 직원)이 멘트함 남성에게 데이트를 먼저 신청했다며 당당하고 적극적인 여성의 모습 보임.  〈민주영이 데이트 신청했다고 멘트하는 장면〉
tvN	슈퍼대디 열	4월 24일 (13회)	말기 암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다거나 필요 이상 슬프거나 애달픔 등의 수동적인 태도보다는 다소 코믹하거나 가볍게 그려지기는 하나 자신의 삶을 밝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 보기 좋음.
SBS	황홀한 이웃	4월 23일 (79회)	재벌녀와 외도를 한 남편, 둘 모두가 그녀를 노골적으로 괴롭혀도 피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점이 기존의 현모양처형과는 다른 적극적인 모습임. 
		4월 24일 (80회)	회장은 수래에게 회사에서 나가달라고 부탁하지만 1인 시위를 해서라도 버텨 회사에서 살아남겠다는 입장을 전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평등적 내용
			
KBS2	파랑새의 집	4월 25일 (19회)	마케팅 부서의 여성대리로서 직장에서 프로로서 자립심을 강하게 나타내는 서미진 역
		4월 26일 (20회)	고인이 된 남편의 아들과 친구가 버리고 간 딸을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키워내는 어머니의 강인함을 보여줌.
MBC	여자를 울려	4월 25일 (3회)	여주 정덕인이 자녀를 잃고 원만치 않은 부부관계 속에서도 홀로 곳곳이 식당을 운영하고 시어머니까지 극진히 모심.
		4월 26일 (4회)	남편의 이혼요구에 잠시 흔들렸으나 이내 다시 식당운영과 자신감을 회복함.
KBS1	징비록	4월 25일 (21회)	 대체로 여성의 역할이 없는 사극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주체적 모습을 볼 수 있음.
tvN	식샤를 합시다 2	4월 27일 (7회)	서브 남성 주인공(이상우)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고 먼저 사귀고 싶다고 말하는 여성인물(홍민아)이 등장하였음. 이는 기존에 여성은 수동적인 존재로 남성의 의중을 기다리는 모습이 아닌 사랑에 있어서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쟁취하는 모습으로 주체성 있는 여성의 모습이 보였음.
		4월 28일 (8회)	여성이 운전하고 고백하는 장면들에서 주로 수동적으로 보여지던 여성상을 바꿈.
MBC	여왕의 꽃	4월 26일 (14회)	재준엄마 희라와 이슬과의 대화중에 이슬이 ‘누구를 좋아하는데는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자기표현을 함. 이슬은 재준을 처음 만났을 때 직업이 없는 줄 알고 좋아하는 감정을 갖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평등적 내용
KBS2	오늘부터 사랑해	4월 24일 (15회)	윤호는 승혜에게 할머니의 반대가 심하지만 열심히 해서 유명한 바리스타가 된다면 한집에서 전통차의 명인과 세계적인 커피 전문가가 탄생 하는거라며 용기를 줌. 자연스럽게 성구별 없이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음을 보여줌. 
SBS	냄새를 보는 소녀	4월 22일 (7회)	염미 경위가 사건 조사의 지휘를 하는 부분에 있어 팀원들에게 명령하고 조사 진행에 있어 성공적인 지휘를 하는 모습. 용의자 지목과 집중 수사에 있어 '강혁'은 헛다리를 짚었지만 평정심을 잃지 않고 염미 경위가 사건의 전말을 잘 파악하여 사건 조사경로를 정확히 명령하는 모습
tvN	초인시대	4월 24일 (3회)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이 먼저 데이트를 신청하는 적극적인 자세
JTBC	순정에 반하다	4월 24일 7회	김순정은 강민호가 괴로워하자 “25년 전 강현철 회장이 한 짓과 뭐가 다르니까”, “품위 있게 돌아가시게 기회를 주세요”라며 절도감 있고 긍정적인 자아감을 남주인공 강민호에게 심어주는 씩씩하며 현명한 비서역할을 함. 정확한 일숨씨와 절도 있는 인간관계로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있는 주체적인 여성임.
		4월 25일 (8회)	 〈당차며 적극적인 김순정의 캐릭터〉 김순정이 중부공장과 헤르미아 연구소의 신제품 합작 기획서를 보여주며 “이 공장은 아버님이 평생을 바쳐서 만드신 곳이에요. 전 이사님이 조금씩 변화하는 중이라 생각했습니다.”라고 멘트하자 강민호가 “닥쳐, 나는 강민호답게 꼭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평등적 내용
			그렇게 살거야”라고 말하자 “제가 지켜 드릴게요. 무섭지 않게 도와드리고 지켜드리겠습니다.”라며 바르고 선하게 사는 방법을 제시하며 강민호를 리드함. 수동적인 캐릭터의 여성의 모습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줌.

2. 현실반영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평등적 내용
KBS1	당신만이 내사랑	4월 23일 (109회)	시장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선두적인 역할
		4월 24일 (110회)	경영진이 여성으로 출연함 - 남혜리, 김부남 등
tvN	슈퍼대디 열	4월 24일 (13회)	미혼모라면 경제적으로 어렵기만 하거나 독기를 품고 악착같이 살아가는 등의 극단적인 캐릭터가 보편적인 드라마의 모습인데 현사회의 다양한 가정형태를 긍정적으로 반영한 듯 아이를 밝게 키울만큼 정신적 여유와 경제적 여유를 보이는 당당한 전문직 여성으로 묘사함.
		4월 25일 (14회)	밝고 긍정적이고 바른 차사랑(딸)의 모습으로 부모의 양육 형태보다는 방식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다양화된 가정의 형태를 긍정적으로 보여줌.
SBS	황홀한 이웃	4월 24일 (80회)	친딸은 아니지만 가슴으로 키운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엄마의 모습은 다양한 가족형태가 공존하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반영한 듯함.
KBS2	파랑새의 집	4월 25일 (19회)	퇴직한 남편의 부담을 덜기위해 50대 여성이 직업을 찾아 나섬. 가정의 경제는 남자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님.
MBC	여왕의 꽃	4월 25일 (13회)	레나정 스스로 방송일로 다시 시작하려는 과정에서 준비과정과 게스트역할을 잘 소화하려고 노력하는 현실적인 모습이 보임.
KBS2	착하지 않은 여자들	4월 22일 (17회)	김현정, 이문학 커플과 정마리, 이루오(송재림 분) 커플이 상호 존대어를 사용함.
tvN	초인시대	4월 24일 (3회)	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고 모든 인물이 직업을 갖고 사회에 편입되기를 희망함.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평등적 내용
JTBC	순정에 반하다	4월 24일 (7회)	 〈나옥현이 이준희를 취조하는 장면〉 경찰 취조실에서 순정의 친구 나옥현(조은지)이 이준희(윤현민)를 마동욱의 살해 용의자로 취조하는 장면은 새로운 직업 영역을 보여주는 장면임. 보통 취조실에서 남성이 남성을 취조하는 설정이 주였으나 여성경찰이 남성 범무팀장을 취조하는 장면은 새로운 직업 영역의 변화로 보여 유용함.
		4월 25일 (8회)	중부공장에서 용역에게 다친 직원들 앞에 강민호가 나타나 자 대들고 울부짖는 직원들 앞에 김순정이 “이사님이 한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곳에 왔겠어요. 제가 이사님을 모셔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쯤하세요”하며 무마하자 “그 꼴하고 누구 편들어”하자 “제가 지켜 드린다고 했잖아요”라며 멘트함.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며 갈등 국면과 함께 현실을 반영하며 투영하는 장면임.  〈병원에서 강민호를 대변하는 모습〉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평등적 내용
SBS	풍문으로 들었소	4월 27일 (19회)	 고아성은 시어머니 유호정의 비서 이비서(서정연)를 장악했다고 생각하고 이준과 고아성이 아버지 유준상과 유호정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쳐나갈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려함. 하지만, 이 비서는 자신이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 복종한 이유는 인간으로서가 아닌 계약관계에서 비서로서의 복종이지 인간 대 인간으로서 관계는 아니라며 고아성에게 일침을 놓음. 그러면서 “무릎 꿇고 복종하면 당신한테 진심을 줄 수 없다.”라며 제왕적 갑과 을의 맹점을 멘트함. 이때 고아성은 크게 놀라며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말하며 자신이 그 동안 칼을 세운이유는 자신의 처지에 밝히고 당할까봐 그랬다며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말함.

3. 다양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평등적 내용
MBC	여자를 울려	4월 25일 (3회)	여주 정덕인이 전직 형사의 모습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학생 소매치기 사건을 직접 모두 해결함.
		4월 26일 (4회)	여주 정덕인이 밤길 술집거리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남자들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구해줌.
KBS2	TV소설 그래도 푸르른 날에	4월 27일 (41회)	여성(정덕희)이 화장품 회사의 상무이사로 나옴. 70년대의 시대극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모습이 임원직으로 나오는 모습이 다른 시대극과는 차별화.
KBS1	당신만이 내사랑	4월 23일 (109회)	다양한 국적과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가정을 구성함.
		4월 24일 (110회)	전체적인 내용의 기본구도가 여성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직업이 소개됨-PD, 일수업, 회사임원 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평등적 내용
tvN	슈퍼대디 열	4월 25일 (14회)	 딸과 아빠의 캐치볼 모습은 기존에 부자간의 전유물처럼 되어왔는데 아빠라면 딸이든 아들이든 같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줌.
KBS2	파랑새의 집	4월 26일 (20회)	지완의 가족구성에서 다양성을 보임-조부모, 재혼한 남편의 아들, 친구가 버리고 간 딸, 시어머니, 수양딸 등의 가족구성
tvN	식샤를 합시다 2	4월 27일 (7회)	기존의 삼각 혹은 사각관계의 로맨스물이 아닌 음식을 먹는 것에 보다 많은 초점을 둔 점에서 다양성이 보임. 드라마 초반에는 남성 서브 주인공(이상우)이 5급 공무원으로서 유능함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을 부각시켰으나 4월 27일 방송분에서는 남성 서브 주인공이 여성 주인공(백수지)이 신춘문예에 당선된 소설 작가임을 알게 되어 직업적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경한다는 대화를 나눔. 남성의 직업적 전문성뿐만이 아니라 여성의 직업적 전문성을 부각 시킴으로서 양성평등적 시각을 견지
SBS	냄새를 보는 소녀	4월 23일 (8회)	권재희 웨프가 살인 용의자로 몰렸을 때 오초림의 냄새를 보는 능력으로 실제 살인 용의자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증거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모습. 여성으로서 남성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을 명확히 캐치함과 오초림의 능력으로 살인 사건의 용의자를 체포하여 구속함. 또한, 염미 경위의 프로파일링 데이터로서 단순 우발성 살인 사건을 바코드 연쇄살인사건과 무관한 사건이라는 사건 조사 방향을 지시함으로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얻는 모습.
JTBC	순정에 반하다	4월 24일 (7회)	나옥현(조은지) 서대문구 경찰서 형사는 마동욱 형사(순정의 전남자친구)의 후배이자 파트너. 여자라고 아무도 파트너 삼지 않으려 하자, 동욱이 거두어 여태껏 짝을 이루며 늘 티격태격하지만 내심 동욱을 진정한 형사라고 생각하며 존경함. 동욱의 약혼녀인 순정과도 친구사이. 의리와 우정으로 똘똘 뭉친 열혈여 형사인 인물로 다양한 직업 형태와 여성, 남성 구분없는 직업적 영역을 보여주어 유용함. 김순정의 전 남친인 마동욱의 죽음을 파헤치려함.

4. 대안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평등적 내용
SBS	황홀한 이웃	4월 24일 (80회)	회장의 그릇된 부정으로 자칫 부도덕함으로 기울 수 있는 부정을 남의 자식의 아픔까지도 자신의 딸처럼 생각하는 올바른 부정을 보여줌. 
JTBC	순정에 반하다	4월 24일 (7회)	김순정은 前회장님의 충직한 비서였던 아버지 김하준이 강현철과 손을 잡고 온당치 못한 경영 승계에 협조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짐. 아버지를 따라 자연스럽게 비서의 길을 걷게 된 그녀는 결코 아버지 같은 파렴치한 참모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주체적이고 현명하며 약자의 편을 들어주는 여성임.
		4월 25일 (8회)	민호가 변화하는 자신의 감정을 보며 솔직히 “두려워 너무 두려워”하자 김순정이 “제가 옆에서 응원하고 도울게요”라며 늘 남주인공에게 도움을 받는 수동적인 여성의 모습에서 남자 주인공에게 도움을 주며 용기를 심어주는 모습이 고무적임.

■ 성차별적 내용

1. 남녀의 이분법적 구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적 내용
MBC	압구정 백야	4월 22일 (132회)	백야의 폭로로 조장훈과 서은하가 불륜으로 맺어진 사이임을 알게 된 조지아가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키워준 계모에게 칼을 들이댐. 특히 조지아는 부친인 조장훈에게는 전혀 분노하지 않고, 계모인 서은하에게만 불륜의 책임을 물음. 이는 불륜의 잘못을 여자에게만 물으며, 수십년간 기른 정도 핏줄을 이길 수 없다는 가부장적 세계관이 들어있는 것임.
tvN	슈퍼대디 열	4월 25일	남편의 사표수리를 막고자 회사동료의 부인에게 선물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적 내용
		(14회)	하거나 상사들에게 애교작전을 과도하게 펼치는 모습이 여성을 폄하하는 듯 보였음. 
SBS	황홀한 이웃	4월 23일 (79회)	 조강지처 아이템을 이용 성공하려는 매니저의 말에 자신이 필요해서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 오는 부속물처럼 아내를 표현함.
SBS	황홀한 이웃	4월 23일 (79회)	여주인공(공수래)이 직업적 전문성이 없이 남편이나 아이 등 개인적인 일로 자리를 비우는 무책임한 모습이 반복적으로 그려짐.
KBS1	당신만이 내 사랑	4월 23일 (109회)	이지애(한유이)의 역할로 부유한 사장집 아들과 임신으로 인해 결혼을 하게됨. 여성을 임신을 무기로 하여 신분 상승의 방법인 결혼으로 연결시킴.
KBS2	파랑새의 집	4월 26일 (20회)	강영주가 취재를 간 두부공장에서 폐허가 된 공장 건물에서 귀신을 무서워하며 친구 오빠인 지원에게 울며 도움을 청하는 연약한 여기자의 모습으로 표현
tvN	식샤를 합시다 2	4월 27일 (7회)	‘형수님이 밥차려주시지 못하시니까’라는 언어를 사용하여 여성이 집안일을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여짐.
SBS	냄새를 보는 소녀	4월 22일 (7회)	최무각이 오초림과 만담연습을 하여 함께 공연을 준비하는 대신 오초림의 냄새를 보는 능력으로 사건 현장에 함께 다니며 알리바이를 깰 수 있는 힌트를 알려달라고 부탁한 후 오초림이 다치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 후, 최무각은 오초림이 사건 현장에 같이 다니지 않았으면 하고 밤늦게 다니는 것 조차 여자여서 위험하다고 말함.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적 내용
MBC	폭풍의 여자	4월 24일 (124회)	 남성 직원은 노트북을 켜고 굉장히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여직원 두명은 건성건성 일하는 장면으로 나타남.
MBC	여왕의 꽃	4월 26일 (14회)	레나정이 TNC그룹 본부장 박민준의 도움으로 요리방송을 다시 한 번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자 방송국 예능 국장과 메인 MC는 레나정에게 여자로서 수치가 되는 말을 한다. 스폰서라는 의미로 레나정이 서포트를 받는 대신 박 본부장에게 몸을 허락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거침없이 한다. 처음에는 같은 여자들이 말을 함으로 크게 문제를 못 느꼈지만 이 부분은 명확히 짚어야 할 부분임. 여자가 남자의 도움을 받으면 당연히 몸을 허락했다는 식의 의심을 받는 경향이 있다. 반면 남자가 여자의 도움을 받았을 경우는 여자가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했다고 포장이 된다.
KBS2	착하지 않은 여자들	4월 22일 (17회)	김철희가 김현정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이문희가 있는 것을 보고 정식 결혼 승낙 후에야 집에 드나들 수 있다고 함.
KBS2	착하지 않은 여자들	4월 23일 (18회)	강순옥이 장모란에게 멀쩡하게 생겼으면서 못난 남자들을 만났다고 말함. 여성의 외모가 가장 중요한 척도임을 암시.
JTBC	순정에 반하다	4월 24일 (7회)	여주인공 김순정은 비서, 남주인공 강민호는 세계 최대 금융골드 파트너스의 투자 전문가이자 대표 이사로 직업적 이분법이 다소 아쉬움. 다만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한지현(공현주)은 골드 파트너스의 투자 전문가, 여형사(조은지) 등 다양한 직업형태를 선보여 긍정적임.
		4월 25일 (8회)	키스로 마음을 나눈 후 김순정이 집 앞에 찾아와 중부공장 기획서를 보여주자 “난 그날 진심이었으니까. 난 그 일 후 설레고 떨리고 그랬는데. 넌 회사 일밖에 없어” 하며 화를 내며 멘트함. “죄송합니다. 괜히 공적인 영역에 사적인 일을 결부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하며 더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줌. 조직을 와해하고 분해하려고 하는 중요한 시점에 이성과의 사랑에 연연하는 남주인공의 모습에서 드라마 캐릭터와 전형성이 보여 아쉬움.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적 내용
			 〈강민호가 김순정에게 상처받고 서운해 하는 장면〉 강민호가 대표이사자리를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겠다고 이준희에게 선전포고를 하며 “전처럼 계속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 사는 데 중간은 없어서 살면서 모든 걸 가질 순 없고. 그래서 노선하나 정한 게 누가 뭐래도 내가 이 회사 살린다. 어제 네 덕분에 확실히 알게 됐다.  〈강민호가 이준희에게 대결을 선포하는 장면〉 내 힘으로 꼭 지켜야 할 것들. 이 회사 그리고 김순정, 절대 너한테 안 넘겨 밥 많이 먹구 다녀”하며 멘트함. 강민호와 이준희 사이의 삼각구도에서 김순정이 대표이사의 비서라는 설정이나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의 남자에게 구속되어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설정과 대사는 아직도 뿌리 깊은 가부장적 사고와 수동적인 여성의 위치를 보여주는 모습의 반영이라 아쉬움.
SBS	풍문으로 들었소	4월 27일 (19회)	서민가정의 아내인 서봄의 엄마 김진애는 늘 주방에서 가스레인을 켜 차를 마시거나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고 최연희는 우아하고 도도한 모습으로 거실이나 현관, 화장대에 앉아 마사지를 받거나 온 가족과 비서와 가정부의 배웅과 시중을 받는 모습으로 그려져 같은 여성을 그림에도 부와 권력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요소라 다소 아쉬움.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적 내용
			 〈서봄 엄마의 모습〉 남편의 바람을 안 후 유호정이 “개입해야겠어. 어머니 별명이 섭정왕후였던 거 기억 안나. 난 그렇게 살기 싫었지만 어쩔 수가 없네”하고 멘트하자 유준상이 그건 “팔자 센 여자들이 하는 거 몰라”, “암울하네”하며 괴로워함. 부인의 입김이 거세지자 여성의 힘이 커지고 강해질까 두려워하는 모습임. 다소 순종적인 여성을 요구하는 멘트로 보여져 아쉬움.  〈“섭정왕후로 살겠다”며 남편에게 선전포고하는 최연희〉 가정부 정순의 경우 무릎을 꿇고 음식을 내오는 모습에서 제왕적인 가문에서의 하녀의 모습으로 그려져 아쉬움. 사회적 위선과 가식을 껌는 블랙 코미디라는 설정이지만 약자의 위치에 속한 여성의 모습을 극대화한 거 같아 아쉬움. 궁궐의 하녀의 모습을 패러디한 듯 아쉬움.  〈가정부 정순이 음식을 내오는 모습〉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적 내용
		4월 28일 (20회)	 〈딸 이지에게 체중감량의 당위성을 설명함〉 최연희의 섭정 공포 후 딸 이지에게 10킬로를 감량하라 함. “너무 한 거 아냐”하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때는 육체를 강제하는 것도 방법이다.” 왜 사람들이 돈과 시간을 들여 운동과 다이어트를 하는지 알려주마. 과체중은 자기관리를 못하는 사람의 전형“이라며 아버지 한정호가 멘트함. 드라마에서 딸 이지는 정상적인 체중의 학생으로 보이는데 살찐 것은 자기관리에 실패한 것이라는 식으로 멘트하여 외모지상주의와 날씬한 몸매를 선호하는 양상과 가치관을 은연중에 대사로 보여주는 방식이라 아쉬움.

2. 왜곡된 성역할 고정관념의 강화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적 내용
MBC	앵그리맘	4월 22일 (11회)	 담임선생님이 학부모들을 찾아가서 설득하는 장면에서, 아빠들은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음으로써 아이들의 학교 문제는 엄마들만의 몫이라는 성 고정관념을 강화함.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적 내용
MBC	앵그리맘	4월 23일 (12회)	 남성 출연자와 여성 출연자가 포옹하는 장면에서, 여성 출연자가 즐거워하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라고 말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여성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고정관념을 강화함.
SBS	황홀한 이웃	4월 24일 (80회)	 올케의 과거가 의심되자 몰래 음성녹음을 한다든가 하수인을 시켜 과거를 캐는 등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도덕함을 당당함으로 그려짐.
KBS1	징비록	4월 26일 (22회)	 여인들끼리의 시기, 질투에 찬 표정이 느껴짐.
tvN	식샤를 합시다 2	4월 27일 (7회)	극중 편의점알바생인 황해림과 이주승이 만나는 장면에서 황해림의 가슴을 보여주고 이를 보고 이주승이 반해 황해림을 따라다니며 편의점알바를 하는 모습을 보여줌 (여성의 외모가 남성의 판단기준이 되어지도록 보이도록 하여 성차별적이라고 보여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여성(황해림)에게 반하는 서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적 내용
			브 남자 주인공(이주승)의 심리를 묘사하기 위해 여성의 굴곡진 가슴과 몸의 라인을 클로즈업하였는데 여성의 몸을 상품화한 것 
		4월 28일 (8회)	황혜림의 외모가 예쁘고 이로 인해 알바장소에 남자들이 따라오는 모습(외모지상주의 조장) 이주승이 황혜림과의 갈등관계에서 황혜림의 가슴이 팔에 닿자 화가 풀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부각시킴. 식당이 맛집으로 판명된 이유가 알바하는 여학생의 외모 때문이라고 설정한 점에서 여성의 외모 지상주의 그대로 반영함.
SBS	달려라장미	4월 27일 (94회)	경찰서가 나오는 장면에서 형사와 경찰들이 모두 남자인 모습을 보여줌.
MBC	폭풍의 여자	4월 27일 (126회)	 남자가 항상 상석에 앉는 구조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적 내용
			박현성을 좋아하는 미혼 장미영은 박현성 지시에 따라 옳지 않은 일들도 앞장서서 행하는 의존적, 비주체적 인물임.
MBC	여왕의 꽃	4월 25일 (13회)	은솔이가 어린 영구에게 ‘영구도사님 난 언제쯤 취직이 될까요?’ 질문하자 ‘살 먼저 빼세요’ 라고 대답. 어린 아이임에도 외모에 대한 편견을 갖고, 외모가 능력이나 실력보다 우선이라고 알고 있음. 
KBS2	오늘부터 사랑해	4월 27일 (16회)	세령이 윤호에게 승혜를 자르라고 강요. 윤호는 인사권은 내 권한이니 참견하지 말아 달라고 잘라 말함. 세령은 오너의 딸로 단지 윤호가 승혜에게 친절하며 가깝게 한단 이유로 퇴사를 강요하는건 실력없고 감정조절도 못하는 여자가 부모덕에 그위치에 까지 간 것으로 볼수있음. 현실적으로 자기 실력으로 올라간 여자들이 더 많은데 오해를 부를 소지가 다분함. 
KBS2	착하지 않은 여자들	4월 22일 (17회)	식사자리의 가장 상석에 김철희가 앉아 가족에게 훈계함. 위의 훈계 내용 중 결혼하지 않은 처자는 독립해서 살면 안 된다고 발언함. 김철희가 김현정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이문희가 있는 것을 보고 정식 결혼 승낙 후에야 집에 드나들 수 있다고 함. 이문희가 김철희에게 결혼승락을 위해 보여드릴 것 중 ‘통장사본’이 있음
KBS2	착하지 않은 여자들	4월 23일 (18회)	김철희와 강순옥 부부가 저녁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으나 예약을 하지 않아 식당을 나옴. 불평하는 김철희에게 강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적 내용
			순옥이 당연한 것이라고 하자 김철희가 남자가 그런 것 까지 신경 써야 하느냐고 말함. 이문희와 김현정이 커플링을 맞추면서, 남자들이 커플링을 먼저 맞추고 프로포즈링을 사기 때문에 호수가 틀리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함. 프로포즈가 남성의 역할이라는 고정된 관념 평소에 정구민을 사랑하고 있던 포장마차에서 박종이 정구민을 유혹하기 위해 술취한척하며 집에 데려다 달라면 교태를 부리는 장면은 여성들이 남성을 유혹하는 공식적인 장면이라고 보는 부분임이 있음.
tvN	초인시대	4월 24일 (3회)	유병재가 중소기업에 면접을 볼 때 회사의 중역 2명은 남성이고, 옆에서 사무를 보는 직원 1명은 여성임. 유병재가 면접 탈락 이유를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받아 단순하고 무식하게 응대하는 직원이 여성임. 김창완이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앞에 선 여성의 다리와 뒤에 선 여성의 가슴을 클로즈업함.(김창완의 초인적 능력과 연결되기에 맥락상 맞지만 설정 자체가 여성의 신체를 부각하는 것임) 이이경과 소개팅을 한 여성이 이이경의 외제차를 보고 마음을 돌이켜 이이경에게 잘해주는 장면. 여성의 속물적 근성을 강조함. 유병재, 이이경, 김창완이 장기밀매 사기꾼들에게 잡힐 때, 그들을 유혹한 여성들 중 한 명이 재킷을 열며 가슴으로 유병재를 유혹함.
JTBC	순정에 반하다	4월 24일 (7회)	거리에서 사고날뻔한 순정을 구해내 키스하며 “내가 어떻게 너따위를”, “나 좋아하는 거 맞네”하며 되뇌이는 강민호의 멘트장면. 〈김순정과 강민호의 키스장면〉 대표이사이고 비서라는 위치이나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가진 남성의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뿌리깊은 의식을 투영하는 장면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적 내용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친구 이준희가 김순정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으로 “훨씬 멋있고 힘있는 남자가 되어야 할 거 같았어. 나 이제 대표이사로 선임될거 같아”. 남성은 힘이 있어야하고 권력을 가져야한다는 가부장적 관념을 심어주는 멘트라 아쉬움.  헤르미온느 회장 강현철은 죽기 전 병원 침대 위에 절규하는 편지를 남김. “누군가의 아버지, 남편보다는 헤르미온느의 수장으로 살아왔다. 절대 안몰려난다. 난 누군가의 아버지, 남편보다는 수장으로 남을 거다.”라며 말기암의 위급한 상황임에도 양복을 입은 채 회장실 의자에 앉아 쓰러져 있는 장면을 보여줌. “삼촌, 이깟자리가 뭔데, 뭐라구”하며 오열하는 강민호의 모습 속에서 강현철이 현대판 세조의 역할로 형의 회사를 차지한 인물이지만 끝까지 회사를 지키려는 모습 속에 책임감을 가진 인물이자 뿌리 깊은 권력과 허무를 동시에 보여줌. 헤르미온느 회장 강현철의 죽음
SBS	풍문으로 들었소	4월 27일 (19회)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의 모습〉 아들 인상에게 아버지에게 조금이라도 반기를 들면 “석고대죄라도 모자라 어머니께 빌어라”, “기회를 주겠다.” “이 자리에서 빌고 공부에 전념하면 용서하겠다. 아니면 집을 나가라. 부모를 손가락질하며 호의호식하며 사는 건 모순 아니냐”, “시끄러워.”하며 가부장적이며 호통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적 내용
			치는 아버지의 모습, 아들의 사기를 꺾는 부정적이며 강압적인 모습과 대사, 종속적이며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모습이 많아 다소 아쉬움.
		4월 28일 (20회)	“여자를 키우는 건 8할이 남자의 바람기고 나머지 2할은 너같이 나쁜 친구야.” 연희가 지영라를 향해 얼음을 던지며 멘트함. 다만 여성을 키우는 요소가 남편과 친구라는 멘트는 다소 아쉬움. 결혼한 여성의 성장이 남편에게 종속되었다는 점은 가부장적인 요소의 잔재로 보여 아쉬움.  〈연희가 지영라에게 얼음을 던지는 장면〉 최연희가 섭정왕후를 공포하며 “대표님과는 이미 이야기가 다 됐어요”라며 멘트함. 남편의 호칭을 ‘대표’로 사용해 아쉬움.  〈연희가 이 비서에게 섭정왕후가 될 것임을 시사함〉

3. 왜곡되고 과장된 모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적 내용
tvN	슈퍼대디 열	4월 24일 (13회)	아무리 응급한 상황이라도 자신이 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수술을 감행 수술후 쓰러짐. 엄마로서 애뜻함으로 임산부의 응급뇌수술은 감행한 것은 의사로서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며 그릇된 모성이나 감성에 휘둘러 위험한 선택을 한 여성으로 보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적 내용
			
SBS	황홀한 이웃	4월 24일 (80회)	 아들이 외도녀인 재벌딸의 기자회견으로 희생불능이 되자 며느리에게 찾아가 일편단심을 강요하며 남편인 자신의 아들을 구할 증거물을 고시든지 훔쳐서라도 가져오라고 부당한 요구를 강요함.
MBC	여왕의 꽃	4월 26일 (14회)	 희라(김미숙)는 아들의 인생을 자기 잣대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병적인 모정을 보여줌. 돈이 우선이란 사고와 욕심에서 아들이 원하는 삶을 나중에 정신 들면 후회할 것이라며 모든 관계를 자기방식으로 차단시킴. 성숙하지 못한 모정을 극에 몰입된 시청자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감싸질 수 있음.

SBS	황홀한 이웃	4월 24일 (80회)	 아들이 외도녀인 재벌딸의 기자회견으로 회생불능이 되 자 며느리에게 찾아가 일편단심을 강요하며 남편인 자 신의 아들을 구할 증거물을 꼬시든지 훔쳐서라도 가져 오라고 부당한 요구를 강요함.
-----	--------	-----------------	--

MBC 여왕의 꽃	4월 26일 (14회)	 희라(김미숙)는 아들의 인생을 자기 잣대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병적인 모정을 보여줌. 돈이 우선이란 사고와 욕심에서 아들이 원하는 삶을 나중에 정신 들면 후회할 것이라며 모든 관계를 자기방식으로 차단시킴. 성숙하지 못한 모정을 극에 몰입된 시청자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감싸질 수 있음.
-------------------------	-------------------------	--

4. 성차별적 대사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적 내용
KBS1	징비록	4월 26일 (22회)	중전의 진언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하시오(체념).”라는 대사는 여성의 의견을 무시하는 언사임.
KBS2	TV소설 그래도 푸르른 날에	04월 27일 (41회)	‘미정이가 술집을 나간다’라는 사실을 매우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느낌으로 표현(영희, 남동생, 가족) 술집에서 일하는 모든 여성을 부정적이고 불쌍한 존재, 돈을 벌기 위한 사람으로 판단하는 NickAngs를 주어 아쉬움.
tvN	슈퍼대디 열	4월 25일 (14회)	프롤로그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이 말기암임에도 수술을 감행한 차미래를 비난하는 병원장 장면이 그녀를 더 무모하고 자극적으로 보임. 
tvN	슈퍼대디 열	4월 25일 (14회)	‘남자가 대범해야지’ 하는 대화가 남자의 자존감을 규정 짓는 것처럼 보임. 
KBS2	파랑새의 집	4월 25일 (19회)	화가 난 여성 출연자가 남성 출연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자, “무슨 여자가 툭하면 손부터 올라가?”라며 ‘여자’가 폭력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함.
sbs	달려라 장미	4월 24일 (93회)	백장미의 남동생인 백장수의 대사에서 “엄마한테 껌떡대잖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주로 남성에게 쓰이고 좋은 의미의 표현이 아니기에 차별적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적 내용
KBS2	오늘부터 사랑해	4월 27일 (16회)	 치킨집 사장이 ‘여잔 드센 건 안돼. 버들가지처럼 유들유들 해야지’ 라고 도진 친구에게 얘기함. 여성비하 발언임. 많은 대중이 보는 공중파 드라마에서 주의해야 할 발언임.
KBS2	블러드 (BLOOD)	4월 21일 (20회)	드라마가 시작했을 때는 남녀 주인공 모두 존댓말을 사용하다가 회차를 거듭하면서 여자 주인공만 남자 주인공을 존대하기 시작함.
KBS2	착하지 않은 여자들	4월 22일 (17회)	장모란에게 ‘여사’라 호칭함. 김철희가 잘 모르는 자녀의 선생님 나말년(나현애의 본명)을 부를 때 ‘말년이’라 하대함.

5. 성차별/성폭력 감수성 부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적 내용
KBS1	당신만이 내 사랑	4월 24일 (110회)	시어머니(지수연)의 며느리를 구박하는 현대적이지 못한 모습
SBS	황홀한 이웃	4월 23일 (79회)	외도로 자식을 죽인 주홍글씨를 떼기 위해 부도덕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구하려 하는 극단적인 설정 

드라마 프로그램 보고서(9월)

I. 모니터 개요

- 모니터 장르 : 드라마
- 모니터링 기간 : 2015년 9월 1일 ~ 12일
- 모니터링 대상매체 : KBS, MBC, SBS, JTBC, tvN
- 프로그램 수 : 22편, 44회

방송사	제목	시간
KBS1	가족을 지켜라	월~금 오후 8:25
KBS2	별이 되어 빛나리	월~금 오전 9:00
	다 잘될거야	월~금 오후 7:50
	별난 며느리	월, 화 오후 10:00
	어셈블리	수, 목 오후 10:00
	부탁해요, 엄마	토, 일 오후 7:55
MBC	이브의 사랑	월~금 오전 7:50
	위대한 조강지처	월~금 오후 7:15
	딱 너 같은 딸	월~금 오후 8:55
	화정	월, 화 오후 10:00
	밤을 걷는 선비	수, 목 오후 10:00
	엄마	토, 일 오후 8:45
	내 딸, 금사월	토, 일 오후 10:00
SBS	어머님은 내 며느리	월~금 오전 8:30
	돌아온 황금복	월~금 오후 7:20
	미세스 캡	월, 화 오후 10:00
	용팔이	수, 목 오후 10:00
	애인있어요	토, 일 오후 10:00
JTBC	라스트	금, 토 오후 8:30
tvN	울지 않는 새	월~목 오전 9:30
	막돼먹은 영애씨 14	월, 화 오후 11:00
	두 번째 스무살	금, 토 오후 8:30

II 내용 분석

1. 양적 분석

드라마 모니터링은 남녀 주인공의 연령, 결혼여부, 직업군으로 구분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모니터링 양적 분석은 다음과 같다.

드라마 주인공의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20대의 경우, 남자 주인공 보다 여자 주인공의 비율이 더 높았다.

□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여주인공	1	8	11	2		
남주인공		3	14	4		1

결혼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비혼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주인공의 직업군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었는데 전문직이나 기업의 CEO는 91%가 남성, 9%만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드라마 상에서도 성비불균형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만 기업의 임원급은 여성과 남성 주인공의 큰 차이가 없었으며, 기업 중간관리자의 수는 여성 주인공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결혼여부

	비혼	기혼	이혼	기타
여주인공	14	8		
남주인공	12	9	1	

□ 직업군

	전문직	기업				교직	공무원	연예인 운동선수	프리 랜서	자영 업자	주부 학생	기타
		CEO	임원급	중간 관리자	사원							
여주인공	1		2	5	2		2	1		1	2	6
남주인공	6	4	3	2	2		1			1		3

2. 질적 분석

□ 성평등적 내용

1) 여성 주인공의 전문직화

〈어셈블리〉(KBS2)에서는 양성 보좌관 모습이 많이 등장한다. 보좌관이라는 직업이 기존 에는 남성의 역할에 제한되었던데 비해 성별에 관계없이 각자의 능력을 살려 일하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협력하는 모습이 등장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였다.



〈어셈블리〉(KBS2)



〈미세스캡〉(SBS)

〈미세스캡〉(SBS)은 강력계 형사라는 직업에 여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면서 능력이 뛰어나고 임무에 충실한 강인한 여성으로 표현함으로써 ‘강력계 형사’하면 남성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워킹맘이지만 일과 가정을 완벽하게 돌보는 ‘슈퍼우먼’의 역할을 강조했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집에서는 조금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역할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현실적인 여성의 모습을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 주인공 외에도 다른 여성을 팀원으로 배치해 강력계 형사의 역할이 남성에게만 적용된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자 노력하였다.

2) 성희롱 현실 반영, 왜곡된 성 의식에 대한 표현 거부



〈두 번째 스무살〉(tvN)

〈두 번째 스무살〉(tvN)에서는 신입생 환영회에서 교수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하는 모습을 본 여주인공이 “그만하시죠, 재들 몸은 재네들 것이거든요. 여자들은요, 마음으로 허락하지 않은 남자들이 만지는 거 아주 아주 아주 싫어하거든요!” 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학교와 직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고 대사를 통해 왜곡된 성 의식을 바로잡는 당찬 여성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신선했다.

□ 성차별적 내용

1) 여성을 수동적으로 묘사하거나 자극적인 표현

〈울지 않는 새〉(tvN) 대사 중 여주인공이 곤경에 처하자 남주인공이 “곤경에 처한 공주님이 기다리고 있다”거나 “꽃이 나비를 찾아가는 법은 없지” 등의 비유를 통해 여성은 늘 남성의 도움을 받아야만 문제를 해결한다는 식으로 여성을 수동적으로 그려내 기존의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아무리 아닌 척 해봐야 난 알아, 당신이 얼마나 지독하게 날 원하는지, 당신의 욕망이 얼마나 뜨거운지. 오늘밤 당신이 원하는 걸 가져. 나는 내가 원하는 걸 가질 테니까”라는 자극적인 대사로 여성이 직장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성적 매력을 이용한다는 뉘앙스를 확대함으로써 부정적인 여성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울지 않는 새〉(tvN)

2) 가부장적, 남아선호 대사



〈이브의 사랑〉(MBC)

〈이브의 사랑〉(MBC)은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모습이 자주 등장하며, “남자는 말보다 행동이 우선이다” 등의 성차별적이고 강압적인 발언을 하였다. 또한 부부관계를 마치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처럼 수직적인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가족을 지켜라〉(KBS1)에서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오밤중에 아녀자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서는 집 잘되는 것 못 봤다”고 말하거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어디 살림하는 며느리가 집 나가서 외박을 해”라는 등의 성차별적인 대사를 그대로 쏟아내었다.

〈내딸, 금사월〉(MBC)에서는 손녀들이 어질러놓은 것을 치우던 할머니가 손녀들 앞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고추를 달고 나왔으면 말을 안 해. 아휴, 내 팔자야” 라는 대사를 통해 남아선호사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Ⅲ. 나가며

대중매체에 나타난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은 현실 속에서 대중이 생각하는 양성에 대한 이미지와 역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드라마와 같이 여성·남성·노인·청소년 모두가 접근하기 쉬운 장르의 경우 파급력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드라마 모니터링을 통해 전문직 여성의 역할이 확대되거나 성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하려는 제작진의 노력을 볼 수 있어 긍정적인 반면, 성차별적 대사를 일삼거나 성 의식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여전히 큰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시대를 거슬러 남아선호사상이나, 가부장적 환경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드라마 대부분이 여전히 갈등형, 막장형이 주를 이루고 있어 화합형, 사회고발형, 사회환기형과 같은 긍정적인 드라마 제작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성차별적 언어, 가부장적 관념 등을 문제로 인지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인지와 인권감수성 관점을 가진 드라마를 홍보하고 건강한 미디어를 확대, 재생산 하도록 제작진의 노력이 필요하다.

□ 성평등적 내용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평등 내용/사진
MBC	위대한 조강지처	9월 1일 (57회)	여주인공이 생활 제품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하는 등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보여줌.
MBC	딱 너 같은 딸	9월 1일 (77회)	여주인공을 통해 완벽한 커리어를 가진 독립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었음. 또한 여성 상사와 남성 부하 직원의 결혼을 보여줘 기존의 남성 상사, 여성 부하에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평등 내용/사진
MBC	밤을 걷는 선비	9월 3일 (18회)	 시대적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이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직언하는 등의 당당함을 보여줌.
SBS	미세스캡	9월 8일 (12회)	 강력계 형사로서의 임무에 충실한, 강인한 여성을 표현함으로써 강력계형사라는 직업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함. 또한 일과 가정을 모두 완벽하게 돌보는 ‘슈퍼우먼’ 캐릭터가 아니라 집에서는 조금 부족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현실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제시함.
tvN	두 번째 스무살	9월 4일 (3회)	 신입생 환영회에서 교수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하는 모습을 본 여주인공이 “그만하시죠, 재들 몸 재들 것이거든요. 여자들요, 마음으로 허락하지 않은 남자들이 만지는 거 아주 아주 아주 싫어하거든요!”라는 대사를 통해 빈번히 발생하는 성희롱을 현실적으로 표현했으며,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함.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평등 내용/사진
KBS2	별이 되어 빛나리	9월 10일 (9회)	남존여비 사상이 팽배했던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임에도, 여성 인물들의 능력을 부각시켜 비교적 성평등적으로 묘사함.
KBS2	어셈블리	9월 10일 (18회)	 다양한 성별의 보좌관을 등장시키는 등 성별에 관계 없이 각자의 능력을 살려 일하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협력하는 모습을 부각함.

□ 성차별 내용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사진
KBS1	가족을 지켜라	9월 1일 (80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오밤중에 아녀자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서는 집 잘되는 것 못 봤다”고 말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어디 살림하는 며느리가 집나가서 외박을 해”라고 말하는 등 가부장적, 성차별적인 발언이 자주 등장함.
KBS2	별이 되어 빛나리	9월 10일 (9회)	남편이 아내에게 화를 내면서 “밥버러지”라는 등의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대사를 통해 여성을 비하함.
KBS2	다 잘될거야	9월 1일 (2회)	공모전에 참여한 여주인공의 역할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발표는 남성 팀원에게 주어져 여성을 보조자의 역할로 묘사함.
KBS2	다 잘될거야	9월 1일 (2회)	호스티스가 재벌회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데려와 유전자 검사를 하는 장면에서, 회장의 외도는 전혀 문제삼지 않고 호스티스만 ‘최악의 여자’로 묘사하여 성별 고정관념을 답습함.
KBS2	다 잘될거야	9월 7일 (6회)	여성이 임신을 통보하자 남성이 “네가 운이 나쁜 거야. 나같이 재수 없는 놈을 고르지 말았어야지”라고 말하며 회피하고자 함.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임신 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표현,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인식을 드러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사진
MBC	이브의 사랑	9월 7일 (81회)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모습을 부각하거나, 부부관계를 마치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수직적인 관계로 묘사하고 있음.
MBC	위대한 조강지처	9월 4일 (60회)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남편은 “너 어제 보니까 뱃살 좀 빠졌더라. 좀 더 노력해 그럼 좀 나아질 거야”라고 농담처럼 가볍게 말함. 이혼 문제와 아내의 외모를 결부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며 성차별적임.
MBC	엄마	9월 5일 (1회)	 세령이 스포츠센터에서 타이트한 옷을 입고 운동하는 장면에서, 카메라 앵글을 가슴 위아래로 훑고 뒷모습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등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부각시킴.
MBC	엄마	9월 6일 (2회)	시댁의 경제력에 실망한 며느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부부가 다투는 장면에서 여성이 지나치게 돈만 밝히는 모습을 부각함.
MBC	내딸, 금사월	9월 5일 (1회)	손녀들이 어질러놓은 것을 치우던 할머니가 손녀들 앞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고추를 달고 나왔으면 말을 안 해. 아휴, 내 팔자야.” 라고 말함. 남아선호사상을 드러내 가부장적이며 성차별적인 대사로 문제시됨.
SBS	어머님은 내 며느리	9월 4일 (55회)	시어머니가 재혼한 며느리에게 불임약을 먹이고, 죄책감을 느끼기는 커녕 “이게 왜 범죄야. 너 땀에 내 아들 죽었어”라며 소리치는 등 악행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시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을 묘사함.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사진
SBS	돌아온 황금복	9월 10일 (67회)	 갓 시집온 며느리가 늦잠을 자서 부엌에 늦게 오자 시어머니가 “아무리 니 엄마가 가르친 것이 없어도 그렇지, 어디 결혼 첫 날부터 늦잠을 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새는 거다. 엄마랑 했던 상스러운 짓을 여기서도 했다간 쫓겨날 줄 알아!”라며 폭언을 수시로 표현하여 성 차별과 관계없는 늦잠의 문제를 여성의 대물림으로 확대, 재해석함.
tvN	울지 않는 새	9월 10일 (76회)	미혼인 조달연은 병원에서 부부로 오해를 받자, 병원을 나서면서 “애엄마한테 이런 바디라인이 나올 수 있냐고”라고 말함. ‘애엄마’는 몸매가 아름답지 않다는 의미가 담겨있어 성차별적임.
SBS	애인있어요	9월 5일 (5회)	 남편의 외도를 걱정하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남편 관리 잘하라”며 “만약 외도로 인해 아이가 생기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말함. 아내가 ‘남편 관리를 잘해서’ 외도를 막아야 한다며 관리 못하면 남편은 모두 외도를 하는 듯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함.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사진
tvN	울지 않는 새	9월 8일 (74회)	 남성은 여주인공이 곤경에 처하자 “곤경에 처한 공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는데”라고 말함. 여성이 남성의 도움을 받아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존의 고정 관념을 고스란히 드러냄.
tvN	울지 않는 새	9월 8일 (74회)	 남성은 여주인공에게 “꽃이 나비를 찾아가는 법은 없지”라고 말하며 데리러 가겠다고 함. 여성을 꽃에, 남성을 나비에 비유하는 것은 여성을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성차별적 사고방식임.
tvN	울지 않는 새	9월 8일 (74회)	 여주인공은 남주인공을 만나기 전 “아무리 아닌 척 해 봐야 난 알아, 당신이 얼마나 지독하게 날 원하는지, 당신의 욕망이 얼마나 뜨거운지. 오늘밤 당신이 원하는 걸 가져. 나는 내가 원하는 걸 가질 태니까.”라고 독백함. 여성이 직장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성적 매력을 이용한다는 뉘앙스를 줌으로써 부정적인 여성상을 보여줌.

예능 프로그램 보고서(5월)

I. 모니터 개요

- 모니터 장르 : 예능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 모니터링 기간 : 2015년 5월 6일 ~ 15일
- 모니터링 대상매체 : KBS1, KBS2, MBC, SBS, JTBC, MBN, 채널 A, tvN
- 프로그램 수 : 29편, 32회

방송사	제목	시간
KBS1	전국노래자랑	일 오후 12:10
	가요무대	월 오후 10:00
KBS2	개그콘서트	일 오후 9:15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 1박 2일 시즌3)	일 오후 4:50
	불후의명곡 - 전설을노래하다	토 오후 6:05
MBC	일밤(복면가왕, 진짜 사나이 2)	일 오후 4:50
	무한도전	토 오후 6:25
	나 혼자 산다	금 오후 11:10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일 오전 10:45
	해피타임	일 오전 8:00
SBS	자기야 - 백년손님	목 오후 11:15
	놀라운 대회 스타킹	토 오후 6:25
	정글의 법칙 in 인도차이나	금 오후 10:00
JTBC	비정상회담	월 오후 11:0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토 오후 8:30
	유자식 상팔자	수 오후 9:40
MBN	황금알	월 오후 11:00
	아궁이	금 오후 11:00
	속풀이쇼 동치미	토 오후 11:00
	엄지의 제왕	화 오후 11:00
	알토란	일 오후 11:00
	언니들의 선택	토 오후 9:40
	천기누설	일 오후 9:40

채널 A	나는 몸신이다	수 오후 11:00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일 오후 11:00
	잘 살아보세	목 오후 11:00
tvN	꽃보다 할배 그리스편	금 오후 9:45
	SNL 코리아	토 오후 9:45
	코미디빅리그	일 오후 7:40

II. 내용 분석

1. 성평등적 내용

(1) 요리하는 남자

최근에 요리하는 남자의 모습은 다양한 채널의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방송의 소재로 삼을 만큼 주요 아이템으로 부각되고 있다. 요리하는 남자 ‘차츰마’ 신드롬을 만들어 낸 〈삼시세끼 어촌편〉(tvN)과 개그맨 신동엽과 가수 성시경의 〈오늘 뭐 먹지〉(tvN), 요식업계의 유명 셰프인 백종원이 혼자 사는 남자·요리 못하는 남자·기러기 아빠에게 요리 방법을 가르쳐주는 〈집밥 백선생〉(tvN)뿐만 아니라 8명의 남성 셰프가 출연자의 냉장고 재료를 통해 멋진 음식을 만들어내는 〈냉장고를 부탁해〉(JTBC), 셰프들의 요리 레시피를 전달하는 〈올리브쇼 2015〉(Olive) 등 요리하는 남성을 소재로 하는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모니터링 기간 동안에도 나타났는데 〈정글의 법칙 in 인도차이나〉(SBS, 5월 15일)에서는 남성 출연자들이 여성 출연자 보다 더 요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요리를 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하는 것이고 오히려 남자들이 능숙하게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요리가 여성만의 일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또한 〈스타킹〉(SBS, 5월 9일) 방송에서는 ‘깜찍한 엄마표 캐릭터 도시락’부터 ‘실용적인 아빠표 리폼 도시락’까지 다양한 아이들 도시락을 소개하면서 ‘아이들 도시락은 엄마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을 극복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아빠가 만드는 도시락이 더욱 먹음직스럽고 정갈하여 시청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였다.



〈스타킹〉(SBS)



〈잘 살아보세〉(채널A)

〈잘 살아보세〉(채널A, 5월 14일)에서 남성 출연자와 여성 출연자가 한 팀을 이루어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요리를 더 잘하는 사람이 주도해서 함께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심도 있게 보여주었다. 남녀가 한 팀일 경우 여자가 주로 요리를 하고 남자가 돕는 역할을 했던 기존의 전형적인 경우와 달리, 능력에 의해 주도자를 정하여 미션을 수행하는 모습을 통해 요리에 능숙한 남성들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신선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2) 성역할 고정관념의 탈피

〈정글의 법칙 in 인도차이나〉(SBS, 5월 15일)에서 유일한 여성 출연자 임지연은 뛰어난 손재주와 사냥 실력을 자랑하며 단숨에 병만족의 에이스로 등극해 ‘임목수’, ‘정글지연’ 등 수많은 애칭들을 탄생시키며 방송 내내 화제를 모았다. 특히, 이 날 방송에서는 임지연과 이성재가 한 팀이 되어 섬에서 뱀을 잡을 때, 여성인 임지연이 겁먹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뱀을 잡는 모습에서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고 여성의 주체성을 보여주었다.



〈정글의 법칙 in 인도차이나〉(SBS)

〈꽃보다 할배 in 그리스〉(tvN, 5월 8일)에서는 산토리니에서 이서진과 최지우가 테이블을 정리하고 김치찌개를 끓이는 등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성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4명의 할배들과 최지우가 함께 저녁을 먹을 때 식탁의 중심 자리에 여성 출연자인 최지우가 앉은 모습에서 기존의 가부장적인 인식을 탈피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꽃보다 할배 in 그리스〉(tvN)

〈잘 살아보세〉(채널A, 5월 7일)에서는 북한식 순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모든 남성 출연자와 여성 출연자가 협동하여 함께 음식을 만드는 모습과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일을 분배하여 요리하는 모습에서 성평등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5월 14일 방송에서는 보통 남성이 고기를 굽고 여성이 채소를 다듬는 장면을 많이 보았던 것과 달리 남녀가 함께 고기를 굽고 채소를 다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성역할 고정관념을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3) 외모 지상주의 극복



〈언니들의 선택〉(MBN)

〈언니들의 선택〉(MBN, 5월 9일)에서는 다이어트로 21일 만에 11Kg을 감량한 고영미 주부가 출연하여 살빼기에 성공한 사례를 설명하였다.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다이어트에 성공한 여성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여성들이 선정적인 옷차림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과 달리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출연한 점이 신선하였다. 또한 자막도 ‘위풍당당’이라 표현하여 주체성을 담고 있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각이 느껴졌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처럼 같은 소재를 다룸에 있어서 제작진의 의식에 따라 다른 시각과 표현 방식을 보여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긍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었다

2. 성차별적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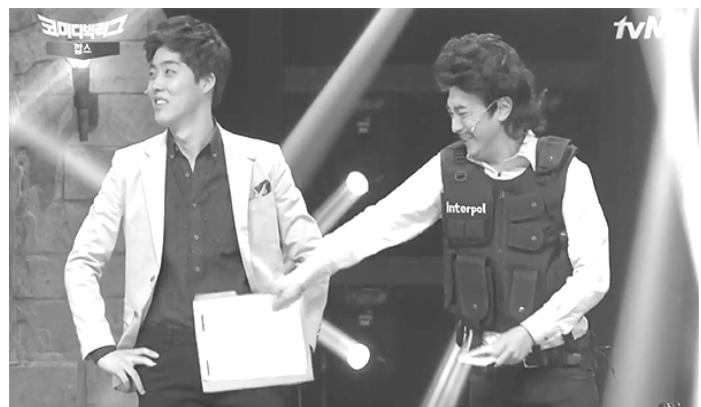
(1)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 남성에 대한 희화화

〈진짜 사나이2〉(MBC, 5월 10일)에서 복장을 착용하는 방법을 교육할 때, 소대장이 훈련병들 앞에서 김영철의 옷을 탈의시키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되었다. 김영철이 부끄러워하지만 소대장은 이에 개의치 않고 매뉴얼대로 진행하였고 훈련병들이 환복하는 장면에서 속옷이 보이는데도 여과 없이 화면에 노출되었다. 만약 같은 상황에서 여성 출연자였다면 이런 장면이 방송되지 못했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며, 따라서 ‘남성의 속옷은 보여도 괜찮다’는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드러나는 방송이었다.



〈진짜 사나이2〉(MBC)

뿐만 아니라 〈코미디 빅리그〉(tvN, 5월 10일) ‘갭스’ 코너에서 황재성이 용의자 하준수를 취조하며 하준수의 성기 부분을 파일로 쳐 남성의 성적 수치심을 개그 소재로 삼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되었다. 또한 같은 날 방송의 ‘갭과 읍’ 코너에서 놀이동산에서 인형탈을 쓰는 사람이 옷을 거꾸로 입어 꼬리가 앞에 달리자, 상사가 가위로 잘라 남성의 성기 모양이 되도록 만든 장면이 그대로 전파를 탔다. 또한 재판장에서 피고가 자신의 성기는 통나무이고 판사의 성기는 이쑤시개라고 말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코미디 빅리그〉(tvN)

이러한 장면들은 지나치게 선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남성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남성에 대한 성희롱을 개그 소재로 삼아 희화화했다는 점에서 시정이 필요해 보인다.

(2) 아동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문제의식의 부재

〈슈퍼맨이 돌아왔다〉(KBS2)의 경우, 사회적으로 공동 육아의 중요성을 알렸고 아빠 육아의 필요성과 방법을 잘 보여줬다는 점에서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일상에서 출연자들의 모습을 촬영하는 가운데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몇몇 장면이 있어 문제가 되었다.

5월 10일 방송에서 송일국과 아이들이 제주도 오름을 씩씩하게 끝까지 오르는 모습을 본 엄태웅이 “아이들을 남자답게 키운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인터뷰 하였는데 ‘남자답게 키운

다’는 말이 어렸을 때부터 성을 구분지어 다르게 키워야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KBS2)

또한, 송일국에게 훈육 상담을 하던 엄태웅이 “딸 하나고, 딸이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라고 말하였는데 이 멘트는 ‘여자 아이이기 때문에 훈육이 조심스럽다’, ‘딸이라서 단호하게 혼내기 힘들다’는 뉘앙스를 주는 동시에 여자 아이이기 때문에 곱게 키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5월 17일 방송에서는 사랑이와 달리기 대결에서 진 유토가 우는 장면에서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라는 자막이 등장하였는데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강해야 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자막을 사용하여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화하는 등 아동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문제의식의 부재를 살펴볼 수 있었다.

(3) 외모 지상주의 : 성상품화와 여성외모 비하

〈전국노래자랑〉(KBS1)은 34년째 방송되고 있는 대국민 참여형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이자 국내 최장수 프로그램으로 전국의 재능 있는 출연자들의 노래자랑을 즐기는 것이 기획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재미를 위해 여성의 신체를 부각시키는 촬영기법을 사용한 점에서 큰 아쉬움을 주었다.

5월 10일 방송에서는 여고생 2명이 무대에 올라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에서 카메라가 아래에서 위로 훑으면서 여성의 신체를 더듬듯이 촬영하였는데 이는 방송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장면이었으며 불필요하게 여성의 신체를 묘사하는 인상을 주었다. 또한 5월 17일 방송에서도 여성 출연자의 노출 의상과 신체를 과도하게 부각시킴으로써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여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코미디 빅리그〉(tvN, 5월 10일)의 ‘희극지왕’ 코너에서는 무림고수의 여성 제자와 반대파의 여성 제자, 두 명이 싸움을 하기 위해 겹옷을 벗자 여성들의 가슴이 부각되었다. 그러자 무림고수가 자신의 제자에게 “(가슴이 작아서) 졌다”며 물러서게 하는 장면이 연출되었는데 이는 여성의 가슴 크기로 상대적 우위를 결정하는 모습으로 대단히 선정적이었으며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었다.



〈코미디 빅리그〉(tvN)

같은 프로그램의 ‘아이 러브 뽀뽀’ 코너에서 고교 동창이 모인 자리에서 여성 참석자 안영미가 회비가 없다며 돈 대신 어우동 춤을 추는데 이 때 한복 저고리를 벗어 스님인 윤성호를 유혹하는 장면이 있었다. 이는 여성의 노출을 개그 소재로 삼아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례였다.



〈스타킹〉(SBS)



〈개그콘서트〉(KBS2)

〈스타킹〉(SBS, 5월 9일)에서 다이어트 후 날씬해진 여성을 소개하면서 ‘꿀 보디로 남심 지대로(?) 저격’이라는 자막을 제공하였는데 이 자막은 다이어트가 여성 자신의 건강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닌 여성의 아름다운 신체가 남성에게 보여주기 위함을 의미하는 느낌을 주어 성상품화 및 외모 지상주의를 부각시킨 사례로 지적되었다.

또한 〈개그콘서트〉(KBS2, 5월 10일) ‘이개세’ 코너에서 박소라가 누드화보를 찍자고 하자 류근지가 “앞뒤가 같다”고 말하며 외모를 비하하였고 허민이 힙업 운동을 한다면서 과한 엉덩이 뿔을 넣은 엉덩이를 흔들고 김재욱은 이를 보고 좋아하는 장면에서 선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다.

한편, ‘나미와 봉봉’ 코너에서, 오나미가 “나 같은 스타일 좋아하는 남자 많거든”이라고 하자 이상민과 이상호가 “대박 신기해”라며 방청객 남성에게 “오나미씨 좋아하세요?”라고 질문을 하였다. 이는 오나미의 외모를 폄하하고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장면이었으며, 개그우먼의 외모를 희화화 하여 개그의 소재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제작진과 출연진의 인식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었다.

(4) 전통적인 희생적 모성과 왜곡된 모성

〈가요무대〉(KBS1, 5월 11일)에서 한 편의 짧은 연극을 보여주었다. 시골집의 혼자되신 어머니를 아들 셋이 찾아가는 장면을 연출하였는데 처음에는 아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탐내고 자식의 도리는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머니가 끝까지 아들들을 위하는 모습을 보이자 결국 아들들은 반성하고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이 장면은 어머니들은 늘 헌신하고 양보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희생적 어머니’, ‘끝없는 어머니의 모정’이라는 왜곡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해피타임〉(MBC, 5월 10일)은 한 주간에 자사 프로그램에 대한 리뷰와 NG장면을 주요 아이템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과거 방영되었던 드라마 ‘욕망의 불꽃’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신은경이 대기업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출산 사실도 감추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녀이자, 그릇된 모정을 가진 어머니로서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장면을 최고의 장면으로 보여주었다.

두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어머니의 모습은 평범하고 일반적인 어머니의 모습이 아닌 극단적 어머니상을 보여준 것이다. 〈가요무대〉의 어머니처럼 여성에 스며든 가부장 문화라는 어두운 면이 상쇄되고 희생과 헌신만을 아름답게 그려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며, 〈해피타임〉에서 어머니의 모습도 그릇된 모성이 여성의 특성인 것으로 그려져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모성에 대한 바른 시각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Ⅲ. 나가며

이번 모니터링 기간 동안 요리하는 남자의 모습을 비롯해 성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한 사례를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외모 지상주의를 벗어나고자한 제작진의 의지가 엿보인 프로그램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상품화·외모 지상주의를 담고 있는 여러 예능 프로그램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희롱을 개그의 소재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시청률을 의식하여 자극적인 장면을 통해 관심을 끌고 시청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흥미와 오락을 추구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오히려 대중들에게 쉽게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출연자보다 제작진의 의지와 의식개선이 중요하다. 따라서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의 지속적인 의견 개진이 이루어져야 하며 인권감수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는 제작진의 노력이 요청된다.

■ 성평등적 내용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평등 내용 / 사진
KBS2	해피선데이 슈퍼맨이 돌아왔다	5월 17일 (541회)	 밥 한술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날, 엄마, 아빠들이 모두 모여 아침식사를 하는 장면에서 아빠·엄마 모두가 아이의 식사를 챙기며 돌봄. 공동육아의 모습이 잘 드러난 장면임
	불후의 명곡	5월 9일 (198회)	 고음 절대 강자 소향 출연자들이 여성과 남성 간의 조건 구별 없이 오직 노래로만 승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진행자와 보조 진행자들 또한 성 고정관념을 드러내거나 성차별적인 언행을 드러내지 않음
MBC	복면가왕	5월 10일 (6회)	 출연자를 수행하는 경호원 중에 여성이 있어 '경호원은 남성의 직업'이라는 편견을 깬
	나 혼자 산다	5월 15일 (105회)	김동완이 집안일하고, 요리하고, 과일을 능숙하게 깎는 장면을 통해서 가사는 여성만의 일이 아님을 보여줌
		5월 15일 (105회)	김동완이 일본어학원으로 지인을 만나러 갔을 때 부모가 아기를 돌보는 모습이 나왔는데, 엄마뿐만 아니라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평등 내용 / 사진
			아빠도 함께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어 육아는 부모가 함께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줌
		5월 15일 (105회)	김동완이 학원에 간 장면에서, 남성 상담직원의 모습이 보여 ‘상담직원은 여성의 직업’이라는 고정관념을 깨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5월 10일 (662회)	내레이션을 하는 성우들의 성비가 균형을 이루고 있음
	해피타임	5월 10일 (514회)	 박진영이 못생긴 연예인으로 묘사되었던 경우와 대비시켜 박진영이 “외모 콤플렉스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그의 실력과 노력하는 과정을 보여줌. 이는 외모지상주의에서 벗어나 개인의 노력과 실력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바람직함
SBS	정글의 법칙	5월 15일 (161회)	임지연과 이성재가 뱀을 잡을 때, 여성이 겁먹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뱀을 잡는 모습에서 기존의 성 고정관념을 깨고 여성의 주체성을 보여줌
		5월 15일 (161회)	요리를 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하고, 또 오히려 남자들이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요리가 여성만의 일이 아님을 보여줌
	자기야 백년손님	5월 14일 (277회)	남재현이 가족들을 위해 요리해주는 모습에서 요리는 여성만의 몫이 아님을 보여줌
	스타킹	5월 9일 (412회)	 ‘깜찍한 엄마 표 캐릭터 도시락’부터 ‘실용적인 아빠 표 리폼 도시락’까지 다양한 아이들 도시락을 소개하면서 ‘아이들 도시락은 엄마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을 극복함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평등 내용 / 사진
JTBC	비정상회담	5월 11일 (158회)	한 출연자가 “결혼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므로,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해서 남편 탓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자, 다른 출연자가 “여자가 결혼생활을 힘들어하는 것은(개인적 차원보다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함. 이 장면에서 부부갈등이나 부부 간 불평등 문제는 개인적 차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사회구조적으로 다뤄져야 함을 지적함
MBN	동치미	5월 9일 (130회)	출연자들이 엄앵란의 80번째 생일을 축하해주자, 엄앵란이 “(남편인) 신성일 씨와 생일이 앞뒤로 있어 한 번도 생일을 제대로 치룬 적이 없었는데 정말 고맙다”며 울먹임.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소외되는 나이든 여성들을 위로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바람직함
	언니들의 선택	5월 9일 (11회)	 다이어트에 성공한 여성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다이어트에 성공한 여성들이 선정적인 옷차림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과 달리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등장하여 신선했음. 같은 소재에 대해서도 제작진의 의식에 따라 연출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채널A	잘 살아보세	5월 7일 (8회)	 북한식 순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모든 남성 출연자와 여성 출연자가 협동하여 함께 음식을 만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일을 분배하여 요리하는 모습이 성평등적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평등 내용 / 사진
		5월 14일 (9회)	삼겹살을 굽는 과정에서 한정수와 한송이가 함께 고기를 구움. 보통 남자들이 고기를 굽고 여자들이 채소를 다듬는 장면을 많이 보았던 것과 달리 남녀가 함께 고기를 굽고 채소를 다듬는 모습을 보여주어 성평등적임 
		5월 14일 (9회)	남자와 여자가 한 팀을 이루어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관계 없이 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주도해서 함께 음식을 만듦. 남녀가 한 팀일 경우 여자가 주로 요리를 하고 남자가 돕는 역할을 했던 경우와 달리, 능력에 의해 주도자를 정하여 미션을 수행하는 모습이 성평등적임
tvN	꽃보다 할배 in 그리스	5월 8일 (7회)	 산토리니에서 이서진과 최지우가 테이블을 정리하고 김치찌개를 끓이는 등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성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함
		5월 8일 (7회)	 4명의 남성 출연자들과 1명의 여성 출연자가 함께 저녁을 먹을 때 식탁의 '중심 자리'에 여성 출연자가 앉은 모습에서 기존의 가부장적인 인식을 탈피함

■ 성불평등/성차별 내용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 / 사진
KBS1	가요무대	5월 11일 (1417회)	시골집의 혼자되신 어머니를 아들 셋이 찾아가는 장면을 연출함. 처음에는 아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탐내고 자식의 도리는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아들들을 위한 모습을 보임. 결국 아들들은 반성하고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말함. 이 장면은 어머니들은 늘 헌신하고 양보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강화하므로 부적절함
	전국노래자랑	5월 10일 (1751회)	 초대가수의 백댄서들은 모두 여성인 반면, 심사위원들은 모두 남성인 것은 직업에 대한 성 고정관념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임
		5월 10일 (1751회)	 여고생 2명이 나와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에서, 카메라를 아래에서 위로 훑으면서 촬영함. 이는 방송 내용은 무관한 장면이었으며, 불필요하게 여성의 신체를 부각하는 듯한 인상을 줌
		5월 17일 (1752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 / 사진
			여성 출연자의 노출 의상과 신체를 과도하게 부각시킴으로써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함
KBS2	해피선데이 슈퍼맨이 돌아왔다	5월 10일 (540회)	 송일국의 삼둥이들이 오름을 씩씩하게 끝까지 오르는 모습을 본 엄태웅이 “아이들을 남자답게 키우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인터뷰함. ‘남자답게 키운다’는 말이 어렸을 때부터 성을 구분지어 다르게 키워야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5월 10일 (540회)	 송일국에게 훈육 상담을 하던 엄태웅이 ‘딸 하나고, 딸이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라고 말함. 이 멘트는 여자아이이기 때문에 훈육이 조심스럽다, 딸이라서 단호하게 혼내기 힘들다는 뉘앙스를 줌. 여자아이이기 때문에 곱게 키워야 한다는 의미로 느껴져 성불평등하다고 보임
		5월 17일 (541회)	 사랑이와 달리기 대결에서 진 유토가 우는 장면에서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라는 자막이 나옴. ‘남자는 울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 / 사진
	해피선데이 1박2일		면 안 된다, 강해야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자막을 사용하여 성 고정관념을 강화함
		5월 10일 (540회)	복불복 게임 ‘도전 경매왕’을 진행하기 위해 김민서 경매사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6명의 남성 출연자들이 인사도 제대로 하기 전부터 외모를 보고 놀라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 또한 출연자들이 김민서 경매사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김종민이 “시집은 갔냐? 결혼을 했냐?”며 방송과는 무관한, 사적인 질문을 함
	개그콘서트	5월 10일 (795회)	 ‘핫이슈’ 코너에서 박진영이 초상권 소송중이라며, 박진영의 외모를 험크 님은꼴로 희화화함으로써 외모를 비하함
		5월 10일 (795회)	‘나미와 봉봉’ 코너에서, 오나미가 “나 같은 스타일 좋아하는 남자 많거든”이라고 하자 이상민과 이상호가 “대박 신기해”라며 방청객 남성에게 “오나미씨 좋아하세요?”라고 질문함. 오나미의 외모를 다소 폄하하는 듯한 멘트가 이뤄져 아쉬움. 또한 개그우먼의 외모와 그에 대한 평가가 개그의 소재로 사용되는 점도 아쉬움
		5월 10일 (795회)	‘불량엄마’ 코너에서, 선생님은 남성, 학부모들은 여성으로 설정된 것은 기존의 성 고정관념을 따른 듯해 다소 아쉬움. 또한 여성을 엄마, 나쁜 여자, 수감자 등으로 설정하여 여성에 대한 일차원적인 전형성을 보여주어 아쉬움
		5월 10일 (795회)	‘이개세’ 코너에서 박소라가 누드화보를 찍자고 하자 류근지가 “앞뒤가 같다”고 말하며 외모를 비하함. 또한 여성을 상품화하는 발언에서 선정성이 드러남
		5월 10일 (795회)	허민이 힙업 운동을 한다면서 엉덩이를 흔들고, 김재욱은 이를 보고 좋아하는 장면에서 여성을 상품화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으며 선정적이었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 / 사진
			
		5월 10일 (795회)	안소미가 등장하면서 대기실에 김민경이 있어서 더웠다고 말함으로써 외모를 비하하는 뉘앙스를 줌
	불후의 명곡	5월 16일 (199회)	여성 출연자의 외모를 두고 ‘노안’, 또는 ‘동안’이라고 말하며 희화하는 장면에서 여성의 외모를 웃음거리로 삼음
MBC	무한도전	5월 9일 (426회)	아이돌 중 가장 예쁜 사람을 물어보는 장면은 여성을 외모로 평가하는 듯해 부적절함
		5월 16일 (427회)	 남성 멤버들을 응원하기 위해 몸매가 노출되는 옷을 입은 여성 5명으로 구성된 응원단이 등장함. 남성 멤버들을 응원하기 위해 여성이 등장하는 이 장면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함
	진짜 사나이2	5월 10일 (105회)	 복장을 착용하는 방법을 교육할 때, 소대장이 훈련병들 앞에서 김영철의 옷을 탈의시키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음. 김영철이 부끄러워하지만 소대장은 이에 개의치 않음. 또한 훈련병들이 환복 하는 장면에서 속옷이 보이는데도 여과 없이 방송함. 만약 여성 출연자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 / 사진
	복면가왕		였다면 이런 장면이 방송되지 못했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며, 따라서 ‘남성의 속옷은 보여도 괜찮다’는 고정관념이 드러남.
		5월 10일 (6회)	 캔의 이종원이 출연하자, 그의 얇은 다리를 ‘바비인형’에 빗대어 표현함. 여성의 몸매가 말라야 한다는 불합리한 잣대를 표상하는 바비인형을 사용한 점이 아쉬움
		5월 10일 (6회)	보조 진행자 11명 중 남성이 7명으로 다수를 차지해 성비가 맞지 않았고, 특히 중요한 역할은 모두 김구라(발언 기회가 많았음), 설운도(가요계 대선배), 윤일상(작곡가) 등 남성 출연자들이 맡고 있어서 남성 편향적인 느낌을 줌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5월 10일 (662회)	‘내부고발자’ 편에서 기자로 설정된 배우들이 모두 남성으로만 이루어져 특정 직업에 대한 성 고정관념을 보여줌. 또한 남성들은 주로 이야기를 끌어가는 역할을 한 반면, 여성들은 보조적인 역할에 그쳐 아쉬움
	해피타임	5월 10일 (514회)	 드라마 속 선생님들의 인기 순위를 정하는 코너에서, 인기 있는 여자 선생님들은 학습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학생들에게 휘둘리며, 무능하고 감정적이라고 묘사함
		5월 10일 (514회)	드라마 ‘여왕의 꽃’을 소개하던 중, 두인(여성 인물)이 잘못된 윤서를 야단치다 주먹을 휘두르자 진서(남성 인물)가 막아서다가 대신 맞는 장면이 묘사됨. 이 장면에 대해서 여성 인물은 감정이 앞서서 반면 남성 인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 / 사진
			물은 이성적이라고 묘사함 
		5월 10일 (514회)	드라마 ‘육망의 불꽃’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나영(여성 인물)은 대기업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출산 사실도 감추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녀이자, 그릇된 모정을 가진 어머니로서 부정적으로 묘사됨
SBS	정글의 법칙	5월 15일 (161회)	임지연에게 붙이는 수식어가 ‘뱀 잡은 여배우’, ‘여전사’, ‘여배우 모드’, ‘파충류소녀’ 등 여성임을 강조하는 성차별적 표현이 많음
	자기야 백년손님	5월 7일 (276회)	여성 출연자가 “의사한테 시집가면 용돈 걱정은 덜어 났다”고 말한 데서, 장모가 딸이 아닌 사위의 경제력에 기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줌
		5월 14일 (277회)	진행자가 남성 출연자들에게는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을 잘 먹냐”고 질문하고 여성 출연자들에게는 “음식을 잘 만드냐”고 질문하는 모습에서 ‘아내는 요리를 하고 남편은 먹는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드러남
		5월 14일 (277회)	진행자가 남성들에게는 ‘냄새’라는 표현을, 여성들에게는 ‘향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성을 두고 고정관념을 강화함
	스타킹	5월 9일 (412회)	다이어트 후 날씬해진 여성을 소개하면서 ‘꿀보디로 남심 지대로 저격’이라는 자막을 띄움. 이는 여성의 아름다운 신체가 남성을 위한 것인 듯한 느낌을 주어 다소 아쉬움
		5월 9일 (412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 / 사진
			다이어트 후 출연자들의 신체 변화를 소개하는 장면에서, 남성 출연자들에 비해 여성 출연자들의 의상이 더 노출이 많았음. 또한 여성 출연자들은 노출 의상을 입고 춤을 추거나 자극적인 포즈를 취한 반면 남성 출연자들은 영화 ‘킹스맨’ 컨셉으로 강한 액션을 보여준 데서 연출 상 남녀 간의 차이가 보여 아쉬움 
JTBC	비정상회담	5월 11일 (45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의 고정 출연자는 모두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심각한 성비불균형을 보이고, 이 날 출연한 여성 게스트들의 외모를 희화화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어 전반적으로 성차별적인 모습을 보임
		5월 11일 (45회)	‘얼굴 찌푸리기 대회’를 하는 장면에서 한 출연자의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외모 1순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라는 자막을 띄우는 장면에서 외모에 따라 서열화하는, 외모지상주의가 드러남
		5월 11일 (45회)	진행자가 “어쨌든 여자 두 분이 왔는데 차분한 반응을 보인다”라고 말한 데서, ‘두 여성 출연자의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서 남성 출연자들의 반응이 없다’는 뉘앙스를 풍겨 외모지상주의를 드러냄
		5월 11일 (45회)	전현무가 송은이와 김숙을 가리키며 “이 아줌마한테 집사더니 한통속이 됐어”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아줌마’라는 표현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함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 / 사진
		5월 11일 (45회)	유세윤이 일리아의 모기발언에 반박하면서 일리아에게 “약간 모기같이 생긴”이라며 토론 내용과는 무관한 외모 비하발언을 함
		5월 11일 (45회)	김숙이 “송은이와 로빈이 과거에 같이한 프로그램에서 커플이었다. 로빈이 재수가 없었다”고 하면서 송은이의 나이나 외모를 폄하하는 뉘앙스를 줌
	유자식 상팔자	5월 13일 (101회)	아버지에게 왜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가지 않았는지 묻자 “사실 귀찮더라고, 어디 달고 다니기가”라고 대답하고, 또한 진행자가 “열심히 일하고 나서 집에 오면 힘들다”고 옹호함. 이 장면에서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아이들은 여자가 돌본다’는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드러남
MBN	황금알	5월 11일 (158회)	남성 출연자가 부인과 말다툼했던 일을 설명하는 장면에서 “남자가 쪼잔하게 이걸 따지겠냐”고 말함으로써 ‘남자는 대범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강화함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 / 사진
		5월 11일 (158회)	 출연자가 부부 갈등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남자는 단순해서 밥만 잘 챙겨줘도 행복한데, 여자는 복잡해서 내면의 갈등이 많다”며 기존의 성 고정관념을 강화함
		5월 11일 (158회)	출연자가 결혼식에 대한 남녀의 차이가 있다면서 “여자는 실리적인 것을 추구하고, 남자는 위신과 명예를 중시한다”고 말함으로써 성 고정관념을 강화함
		5월 11일 (158회)	출연자가 “남자들이 어휘력이나 긴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함으로써 성 고정관념을 강화함
	동치미	5월 9일 (130회)	여성 출연자가 토크 주제를 소개하는 장면이 불필요하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연출됨. 자막 또한 ‘후끈한 안선영의 복근 노출댄스’, ‘나이트 죽순이’ 등 자극적이고 성차별적인 표현으로 구성되어 아쉬움
		5월 9일 (130회)	안선영이 조혜련에게 “언니, 그래서 (결혼생활에) 실패한 거야”라고 하자 조혜련이 “그것 땀에 실패한 거 아니야”라고 대답함. 이 장면에서 이혼을 가리켜 ‘실패’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아쉬움
		5월 9일 (130회)	한 남성 출연자가 “남자들이 아내를 속이는 경우는 대부분 여자 만날 때, ‘지하 세계’에서 술 먹고 있을 때”라고 말함. 이어서 다른 남성 출연자가 이를 부인하자 “방송을 진실하게 해야지”라며 언성을 높임. 이 출연자는 모든 남성들이 아내를 속이고 부정한 일을 한다는 뉘앙스를 줌으로써 남성 전체를 비하함
		5월 9일 (130회)	한 남성 출연자가 “여자가 좋아서 바람피우는 것은 순수한 바람”이라고 말하자 다른 남성 출연자가 “아주 시원하고 깨끗한 봄바람”이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불륜 행위를 미화하는 모습을 보여줌
	언니들의 선택	5월 9일 (11회)	다이어트에 성공한 여성의 다이어트 전후 사진을 보고, 김태훈이 “이 사진은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의 사진을 찍은 거 같다”고 말한 데서 ‘중년 남성은 배가 나오고 중년 여성은 날씬하다’는 고정관념이 드러남.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 / 사진
			또한 여성의 신체를 희화화해 아쉬움 
		5월 9일 (11회)	 김신영이 “사진 속의(통통한) 박민 은 개그우먼 공채 시험을 봐도 된다”고 말한 데서, ‘개그우먼들은 통통하다’는 고정관념이 드러나서 아쉬움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5월 10일 (177회)	 전반적으로 여성 출연자들을 ‘탈북 미녀’라고 칭하면서 방송 내용과는 무관한 외모를 언급함으로써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함. 또한 남성 출연자들은 이름표에 ‘前 김일성 재정담당’, ‘前 북한 국가과학원 연구사’, ‘前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장교’ 등 직함을 명기하고 토크 역시 정치 관련 내용으로 이루어진 반면, 여성 출연자들은 이름표에 이름과 고향만 적혀 있었으며 토크는 일상적이고 신변잡기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짐
	잘 살아보세	5월 7일 (8회)	방송 전반에 걸쳐 여성 출연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북한 미녀’를 자주 사용함. 이는 여성의 외모를 불필요하게 부각시켜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 / 사진
			
		5월 7일 (8회)	 맷돌을 돌리며 콩을 가는 장면에서 남성 출연자(한정수)가 맷돌을 힘껏 돌리기 시작하자 여성 출연자(신은하)가 '역시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해'라고 말함. 이 장면에서 힘이 필요한 일은 남성만이 할 수 있다는 성 고정관념이 강화됨
		5월 14일 (9회)	 짜깁을 정하는 과정에서 남성 출연자들이 여성 출연자들에게 매력 어필을 위해 섹시댄스를 추라고 계속 강요하고, 섹시댄스를 추지 않자 반응을 보이지 않음. 이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섹시 댄스를 잘 춰야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식의 뉘앙스를 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 / 사진
tvN	SNL 코리아	5월 9일 (13회)	 여성 아이돌 그룹 EXID와 여성 코미디언 정명옥을 대조시키면서 외모를 평가해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
		5월 10일 (76화)	 나이트에서 양세광(웨이터)이 여성 손님에게 마술을 보여줄 때 예쁜 두 명의 여성에게 목걸이와 꽃을 주고, 못생긴 설정의 정주리에게는 오징어와 닭았다고 하면서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
	코미디 빅리그	5월 10일 (76화)	 특별출연한 여성 아이돌 가수가 춤을 추는 장면에서 다리 부분을 로즈업해 선정적인 장면을 보여줌. 또한 안영미가 '섹시댄스 경연대회'에서 복부를 노출하고, 춤이 아닌 탈의로 상을 받는 장면 또한 선정적임
		5월 10일 (76화)	나이트에서 정주리가 웨이터인 전 남자친구 양세광에게 부킹을 부탁하면서 “오빠처럼 미래가 어두운 사람 말고, 나를 밝혀줄 사람을 소개시켜줘”라고 하자 양세광은 부자 남성을 소개해줌. 이는 남성의 경제력에 기대려는 여성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성차별적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 / 사진
		5월 10일 (76화)	범죄자를 취조하러 온 국제경찰 황존슨 형사가 한국인 할머니를 흉내내며 “애미야, 왜 애비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냐? 내가 니 밥 그릇 닦으라고 내 아들 키운 줄 아냐? (...) 애미야, 아이 너는 시집 온 지 몇 년이나 됐는데 애비한테 오빠라고 그러냐?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워 왔냐?”라고 함. 이는 가정 내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강화함
		5월 10일 (76화)	 황재성이 용의자 하준수를 취조하며 하준수의 성기 부분을 파일로 쳐 남성의 성적 수치심을 개그 소재로 삼음
		5월 10일 (76화)	 고교 동창이 모인 자리에서 여성 참석자 안영미가 회비가 없다며 대신 어우동 춤을 추는데. 이때 한복 저고리를 벗어 스님인 윤성호를 유혹함. 이는 여성의 노출을 개그 소재로 삼음으로써 여성을 상품화하는 모습을 보임
		5월 10일 (76화)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기혼 여성에 대해서, 옆에서 장사를 하는 남성이 ‘여편네’라고 부르고 그 남편에게는 “마누라 교육 좀 잘 시켜라”라고 말함. 이 장면에서 성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교육시켜야 한다는 가부장적인 사고가 드러남
		5월 10일 (76화)	놀이동산에서 인형탈을 쓰는 사람이 옷을 거꾸로 입어 꼬리가 앞에 달리자, 상사가 가위로 잘라 남성의 성기 모양이 되게 함. 또한 재판장에서 피고가 자신의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 / 사진
			성기는 통나무이고 판사의 성기는 이쑤시개라고 말하는 장면이 방송됨. 이런 장면들은 지나치게 선정적일 뿐만 아니라 남성에 대한 성희롱을 개그 소재로 삼아 미화했으므로 성차별적임
		5월 10일 (76화)	무림고수의 제자와 반대파의 제자, 두 명의 여성이 싸움을 시작하려 하는데 겹옷을 벗자 여성들의 가슴이 부각됨. 그러자 무림고수가 자신의 제자에게 “(가슴이 작아서) 졌다”며 물려서게 함. 이는 여성의 가슴 크기로 우위를 결정하는 모습으로 선정적이며,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

시사·토론/옴부즈맨 프로그램 보고서(6월)

I. 모니터 개요

- 모니터링 장르 : 시사·토론/옴부즈맨
- 모니터링 기간 : 2015년 6월 1일 ~ 14일(번외 : 3월 26일)
- 모니터링 대상매체 :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조선, 채널A, tvN
- 프로그램 수 : 25편, 25회

방송사	제목	시간
KBS1	남북의 창	토 오전 7:50
	일요진단	일 오전 8:10
	시사기획 창	화 오후 10:00
	취재파일K	일 오후 11:20
	생방송 심야토론	금 오후 11:40
	TV비평 시청자데스크	토 오후 1:00
	미디어 인사이드	일 오후 5:10
KBS2	특파원 현장보고	토 오전 8:20
	추적60분	수 오후 11:10
MBC	시사매거진2580	일 오후 11:15
	PD수첩	화 오후 11:15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일 오전 7:10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토 오후 11:15
	열린TV 시청자 세상	금 오후 2:00
JTBC	썰전	목 오후 11:00
	시청자 의회	금 오전 6:00
MBN	열린TV 열린세상	금 오전 5:50
TV조선	TV조선 뉴스쇼 판	월~금 오후 9:30
	이봉규의 정치옥타곤	토, 일 오후 4:30
	장성민의 시사탱크	월~금 오후 4:30
	열린비평 TV를 말하다	금 오전 5:30
채널A	직언직설	월~금 오후 3:00
	시사 인사이드	월~금 오전 10:20
	채널A 시청자마당	금 오전 6:00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	수 오후 8:40

Ⅱ. 내용 분석

□ 양적 분석

○ 시사·토론 프로그램

방송사	프로그램	유형	주진행자		기자/리포터		패널	
			남	여	남	여	남	여
KBS1	남북의 창	시사		1		3		
KBS1	일요진단	시사	1		1		2	1
KBS1	시사기획 창	시사	1		4			
KBS1	취재파일K	시사			1	2		
KBS2	특파원 현장보고	시사	1	1	4			
KBS2	추적60분	시사		1			4	
MBC	시사매거진2580	시사	2	1				
MBC	PD수첩	시사	1		1		8	2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시사	1			1	3	1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시사	1		2			
JTBC	썰전	시사	5	1			3	
TV조선	TV조선 뉴스쇼 판	시사	1	1			1	
TV조선	이봉규의 정치옥타곤	시사	1	1	2	1	4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시사	1				5	
채널A	직언직설	시사		1	2	2	3	
채널A	시사 인사이드	시사	1	1	2		3	1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	시사	1					2
KBS1	생방송 심야토론	토론	1				4	
성별합계			19	9	19	9	40	7
총합			28		28		47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진행자와 기자/리포터의 성별 비율이 약 2:1의 차이를 보였다. 패널의 경우, 남성은 40명인데 비해 여성은 7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생방송 심야토론〉(KBS1)의 경우는 남성 진행자와 4명의 남성 패널로만 구성, 여성의 참여는 전혀 없어 아쉬웠다. 또한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SBS)의 경우, 역대 진행자를 살펴보면 1대 문성근, 2대 박원홍, 3대 오세훈, 4대 문성근, 5대 정진영, 6대 박상원, 7대 김상중으로 진행자가 7회나 바뀌는 동안 단 한 번도 여성 진행자가 없었다. 이는 여성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거나 신뢰감이 약하다는 선입견으로 인한 결과로 보여져 아쉬웠다.

반면, 〈추적60분〉(KBS)의 경우, 1983년 2월 시작해 1대 장윤택·故김양일, 2대 송지현, 3대

김병찬, 4대 고성국, 5대 전인석, 6대 김민전, 7대 유지철, 8대 이영돈, 9대 구수환, 10대 김영선, 11대 윤태호, 12대 강희중, 13대 이상협, 14대 정용실 진행자가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다. 진행자의 대다수가 남성이기는 하지만, 6대 김민전 교수와 14대 정용실 아나운서(2015년 4월 11일~현재)를 진행자로 기용한 것은 남성 진행자를 당연시하는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깨는 사례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 옴부즈맨 프로그램

방송사	프로그램	유형	주진행자		기자/리포터		패널	
			남	여	남	여	남	여
KBS1	TV비평 시청자데스크	옴부즈맨	1	1	1	1	3	2
KBS1	미디어 인사이드	옴부즈맨	1			2		
SBS	열린TV 시청자 세상	옴부즈맨	1	1	1	1		1
JTBC	시청자 의회	옴부즈맨	1	1	1	2	1	1
MBN	열린TV 열린세상	옴부즈맨	1	1	1	1		1
TV조선	열린비평 TV를 말하다	옴부즈맨		1	2			
채널A	채널A 시청자마당	옴부즈맨	1	1	4	3		
성별합계			6	6	10	10	4	5
총합			12		20		9	

TV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지상파 방송 뿐 아니라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은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방송법 4조 4항), 시청자 위원회를 두어야 하고(방송법 87조),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방송법 89조)’는 현행 방송법에 의해 모든 방송사에서 편성하고 있다.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남성 편향성을 보인 것과는 달리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경우, 주진행자와 기자/리포터, 패널의 성비가 대체로 균형적이었으며, 역할에 있어서도 대등한 모습을 보여주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 질적 분석

1. 성평등적 내용

○ 성역할 고정관념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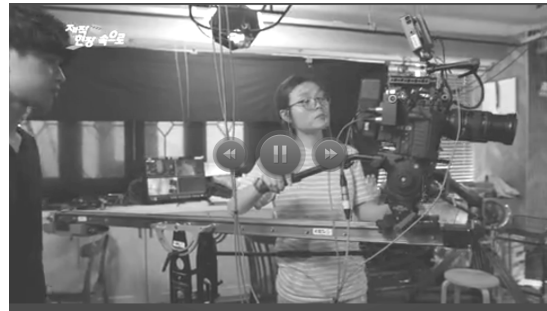
〈남북의 창〉(KBS1, 6월 6일)에서는 한미연합 대잠전 훈련에서 여성이 대원들에게 명령하는 모습과 레이더 영상을 보는 모습을 보여주어 주로 남성의 직종이라고 여겨지는 군사 분야에서 여성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한 사례로 꼽혔다.

〈TV비평 시청자데스크〉(KBS1, 6월 6일)의 ‘제작 현장 속으로’에서는 〈요리인류 키친〉이라

는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는데 남성 PD가 직접 다양한 세계 요리를 하고 PD와 작가, 카메라 감독 등 제작진에 여성의 비중이 많음을 보여주었다. 요리하는 남성 PD의 모습이나, 여성 PD와 여성 카메라 감독 등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있는 방송제작현장의 현실을 보여주어 고무적이었다.



〈남북의 창〉(KBS1, 6월 6일)



〈TV비평 시청자데스크〉(KBS1, 6월 6일)

○ 공동육아에 대한 긍정적 시각



〈썰전〉(JTBC, 6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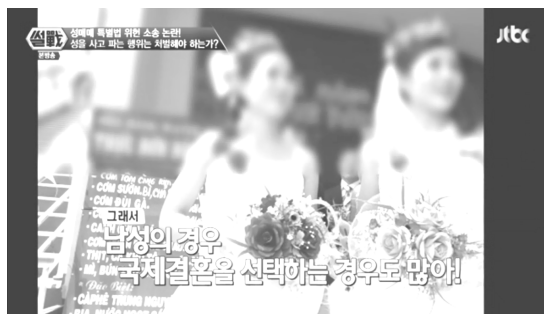
〈썰전〉(JTBC, 6월 11일)에서는 초대 손님으로 출연한 정상훈이 평소 육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소개되었다. 정상훈이 “저는 이유식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설명하면서 배우자와 가사·육아를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에 진행자들이 “일과 가정 모두를 놓치 않는 다재다능한 예능인”으로 평가하여 공동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심어주었다.

2. 성차별적 내용

○ 다문화 이주여성에 대한 편향된 시각 확산 우려

〈썰전〉(Jtbc, 3월 26일)에서는 성매매특별법에 관해 토론하던 중, 강용석이 “남성들이 자신보다 낮은 계층의 여성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하위층 남성은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이 동남아에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일이 발생한다”며, “이 가정이 깨지고 나면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여기에 많은 세금이 투입될지도 모른다. 성매매특별법 같이 엄격한 법이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결혼을 외국 친구를 데리고 와서 하는 바람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면서 다문화 이주여성이 성매매를 위해서 한국에 온 것처럼 표현하였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들을 낮은 계층으로 규정하고, 그 아이들을 ‘관리 대상’으로 치부해 버리거나, 성차별로 인해 국제결혼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나 이주 여성들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선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주 여성들과 그 아이들만이 사회 문제의 원인이라는 듯이 말함으로써 편협한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강용석은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의 발언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 불편함을 갖게 했으며, 대중에게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정을 문제시하고 사회적 소수자인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차별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편향된 시각을 드러내는 구조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썰전〉(JTBC, 3월 26일)

진행자의 발언에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아래 개인의 생각이 마치 공통된 의견인 것처럼 여과 없이 방송에 그대로 내보내는 제작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공적책임을 갖고 있는 방송사가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방송을 내보낸 것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전문성 제공은 남성, 이미지 제공은 여성의 구도 여전

〈시사기획 창〉(KBS1, 6월 9일)의 취재기자는 남성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인터뷰 대상자 중 여성에 비해 남성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전문가집단 중, 남성은 이종구 前 질병관리본부장, 영국 바이러스학자 벤뉴먼, 건대병원 메르스관리 관계자, 빅데이터를 활용해 메르스 확산지도로 만든 박순영씨를 비롯해 대다수인데 반해, 여성은 이귀옥 세종대 교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이주실 국립보건원장에 불과했다.

인터뷰의 경우,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을 방문한 어머니 신혜선씨, 평택시장 상인, 양악 수술한 딸의 어머니, 14번 환자의 부인 등 어머니와 아내에 치우친 인터뷰가 많아 다소 아쉬움이 남았다. 남성을 전문적인 존재로 규정짓고 여성을 사적인 영역, 가정 내 어머니·주부·아내로 구분하여 ‘엄마’ 또는 ‘아내’의 이미지만 부각시켰다.



〈시사기획 창〉(KBS1, 6월 9일)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MBC, 6월 7일)에서는 아르바이트생 이라고 소개되는 채선아 아나운서에게 단 두 번의 질문과 간단한 답을 요구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역할이 없이 방송 시간 내내 앉아있도록 하였다. 여성 진행자를 아르바이트생 이라고 칭하는 것은 방송의 콘셉트로 이해한다고 해도 여성 진행자의 역할 비중이 매우 낮았고 구색 맞추기 식의 이미지 연출을 위해 출연시킨 점은 성차별적 요소로 보였다.



〈이슈를 말한다〉(MBC, 6월 7일)

○ 성역할 고정관념 여전

〈TV비평 시청자 데스크〉(KBS1, 6월 6일)의 ‘제작 현장 속으로’에서 진행자 이재홍 아나운서가 초대 손님으로 출연한 유승지 시청자에게 “만드신 요리 중에 집에서 직접 해 봐야겠다 하시는 거 없었나요?”라고 질문하였다. 해당 방송에서는 〈요리인류 키친〉의 제작현장을 다녀왔는데 〈요리인류 키친〉의 진행자는 이옥정 PD로 남성이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기 프로그램이었다. 따라서 여성 초대 손님에게 어떤 요리를 해보겠냐는 질문보다는 남편에게 요리를 유도하게 하거나 참여시킬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질문이 되었을 것이다. ‘엄마가 만드는 요리’, ‘요리는 엄마가 하는 것’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요리란 온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라는 관념을 심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시청자의회〉(JTBC, 6월 12일)

또한, 〈시청자 의회〉(JTBC, 6월 12일)에서 ‘TV 대 TV’ 코너의 주제는 ‘〈유자식 상팔자〉 속 최고의 엄마 찾기’였는데, 아침에 아이를 깨우고 아침밥을 챙겨주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어 마치 아침에 아이를 깨워서 밥을 먹여야 최고의 엄마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이는 가정 내 여성 역할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그대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해 보였다.

○ 성인지 감수성 부족

〈PD수첩〉(MBC, 6월 2일)에서는 청년 취업난을 다뤘는데, 한 대기업 인사담당자가 “여성은 자기 의견도 없고 소극적이다. 비슷한 시기에 다 결혼할 텐데 또 비슷한 시기에 임신, 출산 휴가를 낼 것”이라며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을 여과 없이 방송하였다. 이는 여성이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제작진 측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점에서 인권과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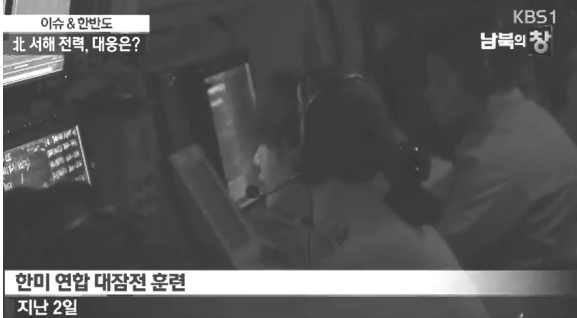
〈PD수첩〉(MBC, 6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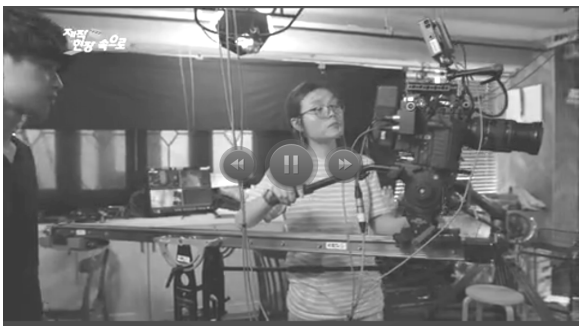
Ⅲ. 나가며

이번 모니터링 기간 동안 메르스(MERS)로 인해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주제가 메르스 극복을 위한 방안에 초점을 모아져 여성 이슈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한 사례나 공동육아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보인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전문성 제공은 남성, 이미지 제공은 여성이라는 구도는 답습되고 있었으며 성역할 고정관념을 그대로 드러내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시사·토론 프로그램은 현재 사회 이슈를 논의하는 것으로 다른 장르에 비해 현실 반영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주로 남성의 시각이 담긴 논의가 진행된다면 성차별은 더욱 공고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프로그램의 진행자, 기자·리포터, 패널, 전문가 인터뷰 등에서 양성 수를 균형 있게 조정하고 대등한 역할 배분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옴부즈맨 프로그램에서 시청자의 성평등적 미디어 비평과 지속적인 의견 개진을 다룬다면, 미디어를 통한 성평등 인식변화는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 성평등적 내용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평등 내용 / 사진
KBS1	남북의 창	6월 6일	  한미연합 대잠전 훈련에서 여성이 함선 대원들에게 명령하는 모습과 레이더 영상을 보는 모습을 보여주어 인상적이었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평등 내용 / 사진
KBS1	TV비평 시청자데스크	6월 6일 (624회)	  ‘요리인류 키친’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했는데, 남성 PD가 직접 다양한 세계 요리를 하고, PD와 작가, 카메라감독 등 제작진에는 여성의 비중이 많다는 것을 보여 줌. 요리하는 남성 PD의 모습이나, 여성 PD와 카메라 감독 등 방송 제작환경에서 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어 고무적임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6월 7일 (50회)	패널들이 응답을 하거나 의견을 피력할 때, 남성 패널과 여성 패널의 비중이 비교적 균등하여 성평등함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평등 내용 / 사진
JTBC	썰전	6월 11일 (119회)	 일과 가정, 모두 놓치지 않는 다재다능 예능인 게스트로 출연한 정상훈이 평소 육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소개됨. 정상훈이 “아내는 육아에 전념하고, 저는 이유식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설명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에 진행자들 역시 “다재다능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함
채널A	직언직설	6월 5일	 A씨 딸, 고시텔·쪽방 등 생활... '생활고 극심' 여성앵커가 진행하는 시사토크쇼임. ‘신생아 택배 사건’을 다루면서, 이를 여성 개인의 문제로 보는 대신 가정,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국가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여성을 둘러싼 사회 현실을 분석함

■ 성 불평등/성차별 내용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 / 사진
JTBC	썰전	3월 26일 (108회)	 남성의 경우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 / 사진
			 성매매특별법에 관해 토론하던 중, 강용석이 “남성들이 자신보다 낮은 계층의 여성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하위층 남성은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이 동남아에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일이 발생한다”며, “이 가정이 깨지고 나면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여기에 많은 세금이 투여될지도 모른다. 성매매특별법 같이 엄격한 법이 없었다면 그렇게 까지 안 했을 텐데 결혼을 외국 친구를 데리고 와서 하는 바람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함. 이러한 발언은 통해 강용석은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들을 낮은 계층으로 규정하고, 그 아이들을 ‘관리 대상’으로 치부해버림. 또한 성차별로 인해 국제결혼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나 이주 여성들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선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주 여성들과 그 아이들만이 사회 문제의 원인이라는 듯이 말함으로써 편협한 사고방식을 보여줌.
KBS1	시사기획 창	6월 9일 (373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 / 사진
			 이 날 출연한 취재기자는 모두 남성이었음. 또한, 인터뷰 대상자 중 여성에 비해 남성의 수가 훨씬 많았고, 남성의 경우에는 이종구 前 질병관리본부장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가 많았음.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이귀옥 세종대 교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이주실 국립보건원장을 제외하고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리고 가는 어머니나 메르스 확진 환자의 부인 등이 등장해 ‘엄마’ 또는 ‘아내’ 이미지로서의 여성의 모습이 부각됨.
KBS1	TV비평 시청자 데스크	6월 6일 (624회)	제작 현장속으로 / 이재홍 아나운서가 유승지 시청자에게 “만드신 요리 중에 집에서 해봐야겠다 하시는 거 없었나요?” 라고 질문하였는데 ‘남편에게 요리를 유도하게 하거나 참여시킬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으면 좋았겠음. 요리는 엄마가 만드는 것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온가족이 참여하는 즐거운 시간이라는 관념으로 변화하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를 바람.
KBS2	특파원 현장보고	6월 6일 (403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 / 사진
			프로그램 제목대로 특파원들이 주축이 되는 프로그램인데, 출연한 특파원들이 전원 남성으로 구성됨(홈페이지 확인 결과, 특파원 25명 중 여성은 단 1명).
MBC	이슈를 말한다	6월 7일 (50회)	 아르바이트생이라 소개되는 채선아 아나운서에 대해 단 두 번의 질문과 간단한 답 뿐 보조진행도 아니고 거리를 두고 거의 역할 없이 앉아있도록 출연시키는 건 성차별적인 모습임. 방송의 콘셉트로 볼 수 있다고 해도, 여성 보조진행자의 비중이 매우 낮으며 지속적으로 서서 응답하는 모습과 주 진행자로서 여성의 역할이 보이지 않은 것은 성별 불평등해 보임
MBC	PD수첩	6월 9일 (1041회)	 오프닝 전 인터뷰 장면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소개된 인터뷰 대상자 5명이 모두 시장에서 일하는 중년 여성이었음. 이는 가게 부담을 여성에 직결시킴으로써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 소지가 있음.
MBC	PD수첩	6월 2일 (104회)	 그럼 어떤 애가' 아니다. 난 남자로 태어나겠다' 남자도 스펙이다'란 말이 있어요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 / 사진
			 청년들의 취업난을 다룬 방송으로, 한 대기업 인사담당자가 “여성은 자기 의견도 없고 소극적이다. 비슷한 시기에 다 결혼할 텐데 또 비슷한 시기에 임신, 출산 휴가를 낼 것”이라는 성차별적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하고, 이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SBS	열린tv 시청자 세상	6월 12일 (848회)	아이들에게 “혼자 있을 때 택배 아저씨가 오면 문을 열어주지 마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택배 아저씨’라는 표현은 택배 기사라는 직업이 남성 전유로 표현한 것으로, 직업에 대한 성별 불평등을 나타냄.
JTBC	시청자의회	6월 12일 (183회)	 ‘TV 대 TV’ 코너의 주제는 ‘〈유자식 상팔자〉 속 최고의 엄마 찾기’였는데, 아침에 아이를 깨우고 아침밥을 챙겨주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어 마치 아침에 아이를 깨워서 밥을 먹여야 최고의 엄마라고 말하는 듯했음. 가정 내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드러나 아쉬움.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 / 사진
채널A	직언직설	6월 5일	‘신생아 택배 사건’에 대해 신혜식 대표는 “엽기적이다.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이다. 생명존중사상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함. 사건과 관련된 사회 구조적인 문제나 아이 아빠에 대한 언급 없이 산모의 모성애 문제만 지적해 다소 아쉬움. 택배 수신 50대 女, CCTV 확인 후 "내 딸 같다"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	6월 10일 (136회)	‘정아름 미녀 트레이너와 함께하는 속성! 비키니 몸매 만드는 운동법’이라는 코너에서 여성 트레이너의 신체를 부각하는 듯한 복장과 카메라각도를 사용함. 또한 트레이너라는 직업과는 무관한 ‘미녀’라는 호칭을 사용한 데서 외모지상주의 시각을 보여줌.

교양 프로그램 보고서(7월)

I. 모니터 개요

- 모니터링 장르 : 교양
- 모니터링 기간 : 2015년 7월 1일 ~ 10일
- 모니터링 대상매체 :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조선, 채널A, tvN
- 프로그램 수 : 26편, 26회

방송사	제목	시간
KBS1	걸어서 세계속으로	토 오전 9:40
	도전 골든벨	일 오후 7: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월~금 오전 10:00
	세상 끝의 집 - 마음의 언덕	수 오후 10:00
	인간극장	월~금 오전 7:50
	6시 내고향	월~금 오후 6:00
KBS2	VJ특공대	금 오후 8:30
MBC	리얼스토리 눈	월~금 오후 9:30
	다큐스페셜	월 오후 11:15
SBS	SBS 스페셜	일 오후 11:15
	TV 동물농장	일 오전 9:30
	생활의 달인	월 오후 8: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목 오후 8:55
	잘 먹고 잘 사는법, 식사하셨어요?	일 오전 8:20
JTBC	화이트 스완	화 오전 12:30
	님과 함께 시즌2 - 최고의 사랑	목 오후 9:40
MBN	휴먼다큐 사노라면	화 오후 9:50
	나는 자연인이다	수 오후 9:5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수, 목 오후 11:00
	리얼다큐 숨	목 오후 9:50
	현장르포 특종세상	금 오후 9:50
TV조선	이것은 실화다	월 오후 11:00
	내 몸 사용 설명서	토 오후 11:00
	정보끝판왕 황금마차	일 오후 11:00
채널A	충격실화극 싸인	화 오후 11:00
tvN	렛미인5	금 오후 11:30

Ⅱ. 내용 분석

□ 양적 분석

방송사	프로그램	주진행자		패널		출연자		리포터		인터뷰 대상자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KBS1	걸어서 세계속으로	1	0	0	0	0	0	0	0	17	22
	도전 골든벨	1	1	0	0	17	12	0	0	14	16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1	3	1	4	0	0	0	0	0
	세상 끝의 집 - 마음의 언덕	0	1	0	0	10	6	0	0	17	5
	인간극장	1	2	0	0	2	1	0	0	0	0
	6시 내고향	1	1	1	1	0	0	0	2	17	10
KBS2	VJ특공대	0	1	0	0	5	4	4	1	10	5
MBC	리얼스토리 눈	1	1	0	0	0	0	0	1	5	7
	다큐스페셜	0	1	1	0	4	3	2	0	6	8
SBS	SBS 스페셜	1	0	0	0	0	0	0	0	7	13
	TV 동물농장	2	2	0	0	0	0	1	1	7	3
	생활의 달인	2	3	0	0	30	33	0	0	14	7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1	1	0	1	3	1	0	0	22	9
	잘 먹고 잘 사는법, 식사하셨어요?	1	1	0	1	2	3	0	0	0	0
JTBC	화이트 스완	1	1	6	2	4	3	0	0	6	4
	님과 함께 시즌2 - 최고의 사랑	0	0	0	0	2	2	0	0	0	0
MBN	휴먼다큐 사노라면	0	1	0	0	1	1	0	0	0	0
	나는 자연인이다	1	0	0	0	1	0	0	0	0	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1	0	0	0	13	17	0	0	0	0
	리얼다큐 숨	0	0	0	0	5	8	0	0	0	0
	현장르포 특종세상	1	2	0	0	4	2	0	0	2	1
TV조선	이것은 실화다	1	1	0	0	1	1	0	0	0	0
	내 몸 사용 설명서	1	1	2	3	1	0	0	0	0	0
	정보끝판왕 황금마차	2	3	2	0	2	0	0	0	0	0
채널A	충격실화극 싸인	1	0	0	0	4	9	0	0	0	0
tvN	렛미인5	1	3	7	3	0	2	0	0	0	5
합 계		23	28	22	12	115	108	7	5	144	115
총합		51		34		223		12		259	

양적분석 결과, 주진행자의 약 55%, 인터뷰 대상자의 44%를 여성이 차지하는 등대부분 항목에서 성비가 비슷하게 구성되었다. 다만 패널의 경우 여성비율이 약 35%에 그쳤으며, 특히 <화이트스완>(JTBC), <렛미인5>(tvN) 등의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주인공으로 선정된 일반인 여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패널은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된 점이 아쉬웠다.

<정보끝판왕 황금마차>(TV조선)의 경우, 여성 진행자들이 주도적으로 방송을 이끌어어나가는 점은 고무적이나, 일명 ‘끝판왕’으로 등장하는 전문가들은 모두 남성이고 방청객들은 모두 여성으로 구성돼 성비 불균형이 여전하다.

□ 질적 분석

1. 성평등적 내용

○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 위해 노력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여성은 약하다’, ‘여성은 날씬해야 아름답다’ 등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사례가 소개되어 매우 고무적이었다. 우선 <VJ특공대>(KBS2, 7월 10일)에서는 빅 사이즈 모델 표은진 씨가 출연하여 “늘씬한 몸매가 부러울 때도 있지만 꿈이 있고 방송인으로서, 빅 사이즈 모델로서, 가수로서, 연기자로서 제 삶에 만족하며 행복한 거 같아요.”라며 주체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같은 방송에서, 남성 위주의 환경 속에서 묵묵히 활약하고 있는 액션배우 김현이 씨를 통해서 강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의 신체와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VJ특공대>(KBS2, 7월 10일)



<생활의 달인>(SBS, 7월 6일)

<생활의 달인>(SBS, 7월 6일)에서도 여성들이 정확하고 빠른 손놀림을 보여주고, 무거운 것을 잘 끄는 등 성별에 관계없이 주어진 일을 해내는 모습을 강조하였다.

○ 가정 내 성역할 고정관념 완화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부부가 함께 일하고 가사를 분담하는 장면을 방송함으로써 바람직한 부부의 모습을 제시했다. <6시 내고향>(KBS1, 7월 3일)에서는 족발전문점을 공동 운영하는 부부가 소개되었는데,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게 역할을 분담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인상적이었다.



〈6시 내고향〉(KBS1, 7월 3일)



〈리얼다큐 숨〉(MBN, 7월 2일)

또한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SBS, 7월 9일)와 〈님과 함께 시즌2 - 최고의 사랑〉(JTBC, 7월 2일)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집안일을 하는 모습이 방송되었고, 〈리얼다큐 숨〉(MBN, 7월 2일)에서는 주인공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장어를 요리하고 장어요리의 장점을 설명하는 등 평등한 부부관계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부각되어 교양프로그램의 긍정적인 변화를 엿볼 수 있었다.

2. 성차별적 내용

○ 제작진, 양성평등적 시각 여전히 부족

이번 모니터링 중 많은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문제는 출연자들의 성차별적 발언이 여과 없이 방송되거나 심지어 방송 자체가 성차별적인 방향으로 연출되는 등 제작진의 성인지 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우선 외모 때문에 고통 받는 여성들을 선정해 성형수술과 다이어트, 정신과 상담을 진행하는 ‘메이크오버’ 프로그램들은 수많은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논란과 비판을 일으키고 있다. 〈렛미인5〉(tvN, 7월 3일)에서는 출연자의 변신 전-후 차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드림통 같다”, “시댁에는 오지도 말고 아들과 손녀만 보내라”는 시어머니의 외모 비하 발언을 그대로 내보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옛 동료가 출연자를 향해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방송했다. 또한 변신 전에는 출연자가 뛰는 동안 살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을 클로즈업하거나 예전에 입었던 옷을 입게 해서 출연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뉘앙스를 주었고, 변신 후에는 카메라가 출연자의 전신을 위아래로 훑는 등 극단적인 장면들을 연출했다.

〈화이트 스완〉(JTBC, 7월 6일)의 경우에도 출연자가 딸에게 “너는 예쁘게 커라.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예쁘게 커라”라고 말하며 외모지상주의로 인한 스트레스를 드러내는 모습과, 변신 후 “2차 수술이 무서워요”라며 두려워하는 출연자의 모습 등 자극적인 장면들을 방송했다. 성형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을 보면 재건해야 할 부분보다는 그 이외의 부위를 더 많이 성형수술 해줌으로써 출연자의 외모를 바꿔주고, 외모의 변화를 더욱더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헤어와 메이크업 및 의상까지 제공하며 출연자의 이전 외모와 비교해 보여주면서 반전 외모

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제작진이 성형 수술을 권장하고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렛미인5〉(tvN, 7월 3일)



〈화이트 스완〉(JTBC, 7월 6일)

이처럼 두 프로그램 모두 방송에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변신 전’의 출연자들이 받은 차별과 폭언을 여과 없이 내보내고 있지만, 그들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을 일부 시청자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제작진은 출연자들의 고통을 단순히 외모 탓으로 치부하고 이를 변화시키는 데만 주력할 뿐, 정작 고쳐져야 할 한국 사회의 외모지상주의 문제는 외면해 버린다. 심지어는 사회가 요구하는 미의 기준에 출연자들을 맞춘 뒤 그들을 ‘당당하고 행복한 여성들’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외모지상주의에 순응하며 이를 재생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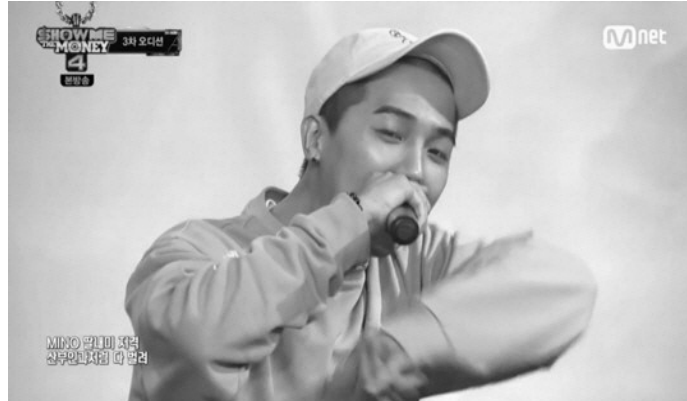


〈인간극장〉(KBS, 7월 1일)



〈정보끝판왕 황금마차〉(TV조선, 7월 5일)

이외에도 많은 프로그램에서 성차별적인 장면들이 발견되어 제작진의 비판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인간극장〉(KBS, 7월 1일)에서 한 출연자의 “젊어서는 어떤 사람도 다 좋지 화사하고 좋고 예쁘고. 더군다나 여자들은 더 그렇고 그래서 그때가 꽃필 때예요. 지금은 할미꽃. (...) 그래도 열매는 맺고 씨는 다 받아놔오니 됐지.”라는 발언이나, 〈충격실화극 싸인〉(채널A, 7월 7일)에서 “씨받이 주제에”, “꽃뱀 주제에”라는 대사 등 여성비하 발언이 적절한 문제 제기 없이 그대로 방송되었다. 〈정보끝판왕 황금마차〉(TV조선, 7월 5일)의 경우, 이영자는 주로 음식을 먹는 식신 콘셉트로, 윤순하는 아이를 키우는 주부로서 살림방법을 배우는 콘셉트로, 김나영은 신혼이기 때문에 살림에 대해 잘 모른다는 콘셉트로 설정되어 제작진이 여성에 대한 전형적인 고정관념을 답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쇼미더머니 4〉(M.net, 7월 10일)

교양 부문은 아니지만 이슈가 되었던 〈쇼미더머니 4〉(M.net, 7월 10일)도 추가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프로그램의 특성상 욕설이나 비속어가 많아서 비프음 처리를 하거나 XX로 자막을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출연자 송민호의 랩 가사 중 “MINO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라는 내용이 방송되었다. 이는 명백한 여성비하의 내용이었지만 제작진이 내용을 아무런 편집 없이 방송에 내보낸 것이다. 특히, 15세 이상 관람가인 이 프로그램의 주 시청자층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방송책임자 및 관계자는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건강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Ⅲ. 나가며

성평등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출연자들뿐만 아니라 제작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프로그램에서 여성비하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하거나 성 고정관념에 기반을 두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성차별적인 내용을 편집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후에야 뒤늦게 사과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며 문제를 일시적으로 봉합하려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출연자들과 제작진, 방송사는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보다 건강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양부문을 모니터링 하면서 예능과 교양의 경계가 모호함을 발견하였다. 오락적 요소를 담고 있으나 시사/교양으로 분류되고 있어 미디어 모니터링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장르 분류가 명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성평등적 내용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평등 내용/사진
KBS1	걸어서 세계 속으로	7월 4일 (443회)	  미국 버지니아 편에서, 어딜 가든 가족 또는 부부 중심으로 움직이며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고, 나누는 모습을 통해 성평등적인 사고가 일상에 배어 있음을 보여줌.
KBS1	도전 골든벨	6월 28일 (775회)	 특공무술을 양성 누구나 할 수 있는 무술로 소개하고,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시범을 보임.
KBS1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7월 1일 (3515회)	많은 방송에서 엉덩이운동은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것과 달리, 이 방송에서는 중년 남성과 여성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엉덩이 근육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함으로써 성평등한 시각을 보여줌.
KBS1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7월 9일 (3520회)	남성 진행자와 여성 진행자가 동등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함. 또한 약차를 달일 때 한 여성 패널이 주도하여 차를 달이며 설명하고, 남성 진행자와 남성 패널이 보조함으로써 성별과는 관계없이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성평등한 모습을 보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평등 내용/사진
KBS1	6시 내고향	7월 3일 (5804회)	 족발전문점을 운영하는 부부를 소개한 장면에서, 부부가 동등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일하는 성평등한 모습을 보여줌
KBS1	6시 내고향	7월 3일 (5804회)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남성을 소개하여 기존의 성 고정관념을 극복함.
KBS1	6시 내고향	7월 6일 (5805회)	 남성 출연자가 은어를 조리해 은어밥, 은어조림, 은어튀김을 만들어 냄. 전문 요리사가 아님에도 능숙하게 요리를 하는 모습이 성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를 불러일으킴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평등 내용/사진
KBS2	VJ특공대	7월 10일 (769회)	 여성 액션배우 김현이 씨 편에서, “TV에서 볼 수는 없지만 화려함 속에서 작은 불꽃을 크게 키우고 싶어요.”라는 발언과 함께, 남성 위주의 환경에서 묵묵히 활약하는 여성의 모습을 소개하여 바람직함.
KBS2	VJ특공대	7월 10일 (769회)	 빅 사이즈 모델 표은진 씨와 마른 몸매의 경마기수 권석원 씨를 소개함으로써 ‘날씬한 여성’과 ‘근육질의 남성’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함. 특히 빅 사이즈 모델 표은진 씨는 “날씬한 몸매가 부러울 때도 있지만 꿈이 있고 방송인으로서, 빅 사이즈 모델로서, 가수로서, 연기자로서 제 삶에 만족하며 행복한 거 같아요.”라며 만족감과 자부심을 드러냄으로써 주체적이고 강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줌.
MBC	다큐스페셜	7월 6일 (676회)	 실험 참가자 12명 중 남성 6명, 여성 6명으로 성비가 균등했음. 또한 러트거스 대학의 해커톤 대회를 취재하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평등 내용/사진
			면서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인터뷰함. 성평등한 방송을 만들려는 제작진의 노력이 엿보여 바람직함.
SBS	SBS스페셜	7월 5일 (405회)	 제주도 해녀 생활 후 일본으로 간 김미진 씨와의 인터뷰 내용 중 “일본 사람들은 해녀를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해서 대우를 받아요. 그런데 ‘제주도 해녀’ 하면 할 거 없고 못 배우고 발일하면서 하는 것… 그게 바로 해녀라고 생각해요. 일본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한 달에 한국 월급으로 500만원씩 받는구나 하면 돼요. 시간상으로 치면 우리처럼 버는 사람들은 없지, 2시간 일하는데.”라는 내용이 방송됨. 이는 해녀라는 여성 직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을 가져다줄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로 보임.
SBS	생활의 달인	7월 6일 (484회)	출연자들이 성별과는 무관하게 정확하고 빠른 손놀림을 보여주고, 힘이 세고 무거운 것을 잘 끄는 모습을 보여주어 성평등함.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평등 내용/사진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7월 9일 (848회)	‘나홀로 사물놀이’ 편에서, 주인공이 아내와 함께 집안 일을 하는 장면이 나와 가사노동은 양성이 함께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줌.
SBS	잘 먹고 잘 사는법, 식사하셨어요?	7월 5일 (61회)	 방송 전반에 걸쳐 남성 요리연구가 임지호와 여성 연예인 이영자가 적절히 역할분담을 해서 조화롭게 진행함. 특히 남성이 음식을 만들어 손님에게 대접하는 모습이 인상적임.
JTBC	님과 함께 시즌2 - 최고의 사랑	7월 2일 (9회)	 가상 부부가 이사한 집을 함께 청소하는 장면에서, 집안 일을 부부가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성평등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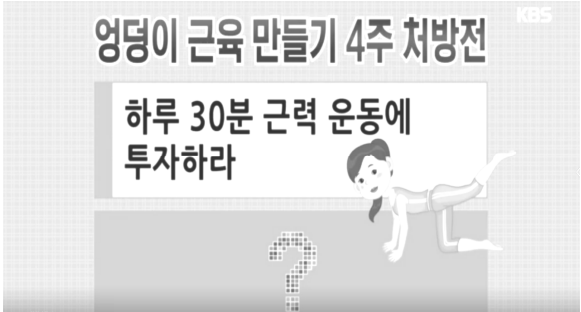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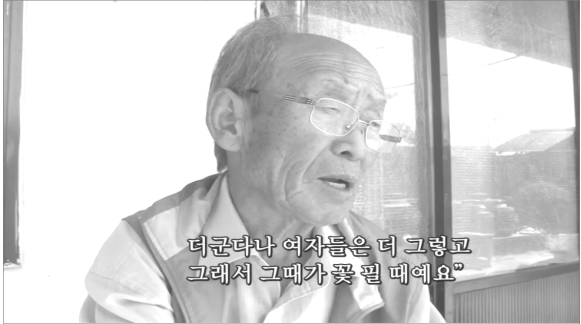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평등 내용/사진
JTBC	님과 함께 시즌2 - 최고의 사랑	7월 9일 (10회)	 오랜 기간 동안 각자 독립된 생활을 해온 남편과 아내가 결혼 후 함께 노력하며 서로 맞춰가는 모습을 보여줌.
MBN	리얼다큐 숨	7월 2일 (170회)	 박대규 씨가 죽방렴이라는 전통 낚시법을 소개하며 직접 잡은 멸치로 회무침도 하고 소금구이도 하는 등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낚시는 남성, 요리는 여성이라는 성 고정관념을 극복함.
MBN	리얼다큐 숨	7월 2일 목 (170회)	 문제정 씨가 돌무덤에서 잡은 풍천장어를 가져다 문제정 씨의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풍천장어즙을 만들면서 장어요리의 장점을 소개함. 이처럼 부부가 함께 요리하는 모습에서 성 고정관념을 탈피함.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평등 내용/사진
TV조선	정보끝판왕 황금마차	7월 5일 (2회)	 진행자들과 패널들이 성별에 따른 구분 없이 동등하게 구성되어 프로그램을 이끌어나감.
TV조선	이것은 실화다	7월 6일 (38회)	아내 측의 변호사는 남성, 남편 측의 변호사는 여성으로 성별의 균형이 맞추어져 있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성비를 맞추어 전문 직업군을 표현한 점과 두 변호사 모두 전문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졌다는 점에서 제작진들의 성평등한 연출이 돋보임. 

■ 성차별 내용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사진
KBS1	도전 골든벨	6월 28일 (775회)	 박태원 MC가 특공무술을 하는 남학생에게 “꿈이 뭐냐”고 질문하자 경찰이라고 대답했는데, 그러자 MC가 여학생에게 “경찰의 아내가 꿈이냐”고 질문함. 이는 경찰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사진
			은 여성의 영역이 아니라는 뉘앙스를 주며, 똑같이 특공무술 시범을 보인 학생들에게 성별에 따라 다른 질문을 한 것은 성차별적임.
KBS1	도전 골든벨	6월 28일 (775회)	 본인 성격이 어떠한지 MC의 물음에 출연 학생은 “수줍고 조신하다”고 했으나, 자막에는 ‘수줍고 조신한 여자’라고 나오고 MC는 “천상여자예요”라고 되받아침. 이는 마치 여학생은 수줍고 조신해야만 ‘천상여자’라고 강요하는 듯해 성차별적임.
KBS1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7월 1일 (3515회)	프로그램 기획의도는 중년의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성평등적이었지만, 진행 과정에 있어서 ‘전문적=남성, 트레이너·출연자=여성’으로 구분한 점과 여성의 신체 부위를 클로즈업한 점은 애초의 기획의도와는 반대로 성차별적이었다고 보여짐.  2015 상반기 프로그램별 시청률 중년 건강에 열광! 열매의 근육 만들기 운동 후 사진  2015 상반기 프로그램별 시청률 중년 건강에 열광! 열매의 근육 만들기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사진
			
KBS1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7월 9일 (3520회)	한 여성 전문가가 야채껍질의 효능을 설명하면서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디톡스 효과가 있다”고 덧붙이자 한 남성 출연자가 “여성들이 많이 먹어야겠다. 백설공주가 껍질 채 먹지 않아서 한 입을 먹고 쓰러졌다”고 말함. 디톡스란 몸 속 독소를 배출하는 것이며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데, 건강을 위해 양성 모두에게 바람직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성들이 많이 먹어야한다고 언급한 것은 성차별적임.
KBS1	세상 끝의 집 - 마음의 언덕	7월 1일 (1회)	국립공주병원의 환우 민현정 씨(남성)의 과거 사진을 보며 아버지가 “아주 체격이 쭉 빠졌어. 집안의 대들보야.”라고 말하는 장면은 남성이 가정의 중심이라는 가부장적 사고의 투영으로 보여 다소 아쉬움.
KBS1	인간극장	7월 1일 (3701회)	 할아버지의 “어려서야 다 꽃이다. 한창 아름답고 곱고 활발하고. 젊어서는 어떤 사람도 다 좋지. 화사하고 좋고 예쁘고. 더군다나 여자들은 더 그렇고 그래서 그때가 꽃필 때예요. 지금은 할미꽃. 다 시들어가는 꽃이지만 그래도 열매는 맺고 씨는 다 받아놔오니 됐지.”라는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함.
KBS1	6시 내고향	7월 3일 (5804회)	여성 진행자는 전체적으로 3회 정도 등장했으며, 남성 진행자에 비해 멘트가 거의 없었음.
KBS1	6시 내고향	7월 3일 (5804회)	이 날 출연한 리포터 4명이 모두 남성으로 구성됨.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사진
KBS2	VJ특공대	7월 10일 (769회)	 빅 사이즈 모델 표은진 씨와 마른 몸매의 경마기수 권석원 씨를 소개함으로써 ‘여자는 날씬해야 한다’, ‘남자는 체격이 커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점은 바람직하지만, 두 사람의 외모를 극단적으로 비교하거나 “때론 자유로운 삶과 늘씬한 몸매가 부럽지 않나”라는 질문을 한 점은 다소 아쉬움.
SBS	SBS 스페셜	7월 5일 (405회)	 자식 뒷바라지가 어머니(여성)의 미덕인 것처럼 방송됨. 또한 해녀라는 직업의 전문성과 기술의 우수성 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머니(여성)로서의 굴곡진 삶에 중점을 두고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감정을 자극하여 오히려 해녀로서, 여성으로서의 적극성과 주체성이 덜 부각됨.
SBS	잘 먹고 잘 사는법, 식사하셨어요?	7월 5일 (61회)	 여성 출연자를 소개하는 자막에서 ‘20대 몸매’와 ‘여인’을 강조하여 여성의 외모를 불필요하게 부각시킴.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사진
SBS	잘 먹고 잘 사는법, 식사하셨어요?	7월 5일 (61회)	 여성출연자들의 외모를 비교하고 평가함.
JTBC	화이트 스완	7월 6일 (6회)	‘아이를 챙기고 나서야 밥을 먹는 보통엄마’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육아는 여자의 몫이라는 성 고정관념을 고착화함.
JTBC	화이트 스완	7월 6일 (6회)	이상우 성형외과의사가 성형수술에 대해 설명하면서 굳이 ‘빠수술하는 여자분들은’이라고 지칭한 것은 여자만 성형수술을 한다는 고정관념을 드러냄.
JTBC	화이트 스완	7월 6일 (6회)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지나치게 외적인 변화를 강조하는 모습들이 보였음. 특히 변신 전-후 모습을 비교하는 장면에서 굳이 전신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스러움.
JTBC	화이트 스완	7월 6일 (6회)	출연자 양혜원 씨가 딸 예빈이를 쓰다듬으며 “너는 예쁘게 커라”,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예쁘게 커라”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양혜원 씨가 외모로 인해 받았던 억압과 고통을 반영한 멘트이기는 하나 여성을 외모로 평가하는 외모지상주의를 여과 없이 어린아이에게 전달하는 듯해 다소 아쉬움.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사진
JTBC	화이트 스완	7월 6일 (6회)	 출연자의 변신 과정에서 부정교합을 위한 양악수술 외에도 지방제거, ‘탄력을 주는 시술’ 등 다양한 성형과 시술이 사용되어 건강 문제보다는 외적인 변화에 치우친 듯해 아쉬움. 특히 “2차 수술이 무서워요”라며 두려워하는 출연자의 모습은 성형수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함. 또한 이는 시청자들에게 과도한 성형과 시술을 보여주어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고 성형과 시술을 남용하도록 부추길 소지가 있어 우려가 됨.
JTBC	화이트 스완	7월 6일 (6회)	 이특이 “마취제가 정력을 감퇴시키는 것이 맞냐”고 물었고, 마취과 의사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다. 원래 약한 게 아니냐”고 대답함. 이에 이승연이 “혹시 지금 걱정이 돼서 질문하는 거냐”고 묻자 이특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급하게 상황을 수습함. 방송 흐름 상 불필요한 장면이었으며 정력=남성이라는 고정관념을 여과없이 내보내어 성차별적인 내용이었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사진
JTBC	님과 함께 시즌2 - 최고의 사랑	7월 2일 (9회)	 문숙의 섬세함에 다시 한 번 감탄 집을 꾸며놓은 안문숙에게 김범수가 “역시 문숙씨가 디테일한 게 여성스럽다니까”라고 말함. 또한 집안의 액자 등을 둘러보며 “여성스럽다”라는 말을 함.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고, 디테일에 신경을 쓰거나 꽃, 구두 등의 그림을 걸어두는 것이 ‘여성스럽다’는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장면임.
JTBC	님과 함께 시즌2 - 최고의 사랑	7월 2일 (9회)	 남자가 뭐 이런 걸 잘하냐~ 김범수와 안문숙이 함께 이불을 정리하는 장면에서, 김범수가 잘 정리하는 것을 본 안문숙이 “남자가 이런 걸 잘 하냐, 기분 나쁘게”라고 말함. 이는 ‘정리는 여자가 더 잘 해야한다’, ‘남자는 정리를 잘 못한다’는 성 고정관념을 주는 장면이므로 성불평등적임.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7월 2일 (74회)	 아까 빌 다친 건 괜찮아?  그런데 자기 언제 집에 갈 거야?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사진
			  제이미의 자상함을 관심으로 착각 여성의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부각되는 장면이 여러 번 방송됨.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7월 8일 (75회)	 아들을 위해 사라지기로 한 어머니 아들을 위해 아픈 어머니가 죽음을 선택하는 장면을 방송함. 아들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미화시킴으로써 비정상적인 모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있음.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7월 8일 (75회)	 딸만 셋 낳은 며느리에게 “여자구실도 못한다”고 타박하는 시어머니를 비롯해서 “대를 이을” 아들을 기대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 전형적인 남아선호사상을 보여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사진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7월 8일 (75회)	 시어머니가 손자를 얻기 위해 딸만 낳은 며느리를 대문 밖으로 내쫓는 장면에서, 며느리를 가족의 일원이 아닌 남성의 부속물로 취급하는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여줌. 또한 이러한 장면은 현실반영성이 부족하며 ‘이 시대의 자화상을 보여 준다’는 프로그램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 보임.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7월 8일 (75회)	 손자를 얻기 위해 첩을 들이려는 시어머니가 여자를 훑쳐보는 장면에서, 카메라 시선이 여자의 얼굴에서 엉덩이 쪽으로 훑어 내림.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7월 8일 (75회)	 남들에게 자신의 아들이 첩의 자식임을 들키지 않기 위해 세 딸을 버리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극단적인 남아선호사상을 보여줌.
MBN	리얼다큐 숨	7월 9일 (170회)	출연자들 중 남성들은 대부분 사장으로, 여성들은 직원으로 소개됨. 또한 여성들은 주로 음식을 만들거나 먹는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사진
			모습이 방송되는 등 성별에 따라 역할이 구분되어 아쉬움.
MBN	리얼다큐 숨	7월 9일 (170회)	달팽이농장을 운영하는 부부를 소개하는 장면에서, 부부가 함께 농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대상은 주로 남편이었으며 아내의 인터뷰는 단 세 건에 불과했음. 인터뷰 내용 면에서도, 남편은 주로 이론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을 설명한 반면 아내는 “자리 잡기까지 힘들었다”는 내용과 음식을 먹는 장면 위주로 구성되는 등 제작진의 성차별적인 사고가 엿보여 아쉬움.
MBN	리얼다큐 숨	7월 9일 (170회)	곰취를 재배하는 부부를 소개하는 장면에서, 여성들의 비중은 적고 보조적이었음. 이는 ‘중요한 일은 남성이 하고 여성은 이를 보조한다’는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듯해 아쉬움.
TV조선	이것은 실화다	7월 6일 (38회)	 남편이 아내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아내 직장 휴직계를 신청하고, 또한 별 무리 없이 휴직계가 수리되는 장면이 방송됨. 다소 비현실적인 장면이면서 마치 아내의 일하는 권리조차 남편의 권한이라는 식의 가부장적 관념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음.
TV조선	내 몸 사용 설명서	7월 4일 (57회)	“여자는 예쁘게 걸어야 한다”는 성차별적인 발언이 방송됨.
TV조선	내 몸 사용 설명서	7월 4일 (57회)	여성 MC의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며 “키가 크고 체격이 커서 남자답다”고 말함. 이는 ‘남자는 체격이 커야 한다’는 성차별적인 시각을 보여줌.
TV조선	정보끝판왕 황금마차	7월 5일 (2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사진
			남성 출연자가 한우를 칼로 해체하다가 땀이 나자 이영자에게 땀을 좀 닦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제가 닦아주면 좋아하겠어요? 황금걸이 해야지요!”라고 하면서 자신보다 더 젊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불러왔고 옆에서 이훈도 맞다고 맞장구쳤음. 단순히 출연자의 땀을 닦아주는 일에 ‘남성은 젊고 예쁜 여성을 좋아한다’는 인식을 연결시킨 것은 부적절함. 
TV조선	정보끝판왕 황금마차	7월 5일 (2회)	 여성 진행자가 총 세 명인데, 이영자는 요리를 잘 하는 여성임에도 주로 음식을 먹는 식신 콘셉트이며, 윤손하는 아이를 키우는 주부로서 자신의 살림방법을 공개하거나 새롭게 배우고 실험해 보는 콘셉트, 김나영은 신혼이기 때문에 살림에 대해 잘 모를 것이라는 콘셉트로 진행함. 이러한 설정은 여성의 외모나 나이, 결혼여부에 따른 고정관념을 드러내므로 성차별적임.
TV조선	정보끝판왕 황금마차	7월 5일 (2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사진
			지난 방송 때 이영자가 윤순하의 의상을 입은 모습을 보여주며 “88사이즈가 55사이즈를 입은 것이 화제가 되었다”며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
TV조선	정보끝판왕 황금마차	7월 5일 (2회)	 김나영이 이영자에게 “가슴둘레가 이훈 씨보다 크다”며 외모를 희화화함.
TV조선	정보끝판왕 황금마차	7월 5일 (2회)	 설상가리 한 점을 먹은 이영자가 “나 장녹수 같은 애였나봐. 먹는 순간 왕의 품에 안겨있네”라고 말한 것은 여성을 연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묘사했으므로 여성비하적인 표현임.
TV조선	정보끝판왕 황금마차	7월 5일 (2회)	 이영자가 자신이 외국에 가면 외국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본다면서 “이 똥땡이 본 적 있는데...”라는 표현을 사용함. 자신의 외모를 비하함으로써 외모지상주의를 강화함.
채널A	충격실화극 싸인	7월 7일 (103회)	‘대리모를 원한 남편’ 편과 ‘누가 어머니에게 독극물을 주었나’ 편에서는 외도하는 남편, 시어머니, 내연녀, 부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사진
			인 사이에서 “씨받이 주제에”, “꽃뱀 주제에”, “애가 뱌 때까지 실수를 하나” 등의 대사가 계속해서 오고감.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드라마임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여성을 비하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채널A	충격실화극 싸인	7월 7일 (103회)	‘5대 독자를 포기한 남편’과 ‘누가 어머니에게 독극물을 주었나’ 편에서, 남편의 외도 상황에서 무조건 아내가 참고 넘어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 된다는 듯 며느리에게 인내와 희생을 강요함.
tvN	렛미인5	7월 3일 (5회)	  며느리가 사둔 라면을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이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외모를 “드럼통 같다”며 비하하는 모습, 시댁에는 오지도 말고 아들과 손녀만 보내라고 소리치는 모습 등 외모 때문에 차별받고 억압받는 모습을 방송함.
tvN	렛미인5	7월 3일 (5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사진
			출연자의 옛 동료가 출연자의 변한 모습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큰소리로 놀라는 모습을 방송함.
tvN	렛미인5	7월 3일 (5회)	 출연자의 외모가 현재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출연자가 뛰는 동안 살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것을 보여주거나 예전에 입었던 옷을 입게 하는 등 심각성을 과도하게 부각시키고 있음.
tvN	렛미인5	7월 3일 (5회)	 총 12명의 전문의 중 여성은 두 명 뿐이었음. 또한 전문의들의 출연 장면이 각 분야의 병원에 대한 간접 광고가 될 소지가 다분했음.
tvN	렛미인5	7월 3일 (5회)	 출연자의 변신 성공을 소개하면서 지속적으로 카메라가 아래에서 위를 찍어 몸매를 부각시킴.
tvN	렛미인5	7월 3일 (5회)	과거에 개그우먼이었던 지원자에게 ‘미녀 개그우먼’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함. 우선 ‘개그우먼’은 직업에 성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사진
			을 부여하는 성차별적인 표현이며, 개그우먼이라는 직업에 ‘미녀’라는 수식어를 붙여 외모를 강조하는 점은, 여성의 외모를 중시한다는 느낌을 들게 함. 또한 두 지원자에 대해 ‘과거미녀’라는 자막을 계속 삽입했는데, 이는 살이 찌기 전 건강했던 모습을 되찾는 것보다도 외모에 더 중점을 둬으로써, 여성에게 건강보다 외모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듯해 성차별적임.  현재 미녀 개그우먼보다 한 수 위였던 미모

〈추가〉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사진
M.net	쇼미더머니4	7월 10일 (3회)	 출연자 송민호의 랩 가사 중 “MINO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라는 내용 방송. 여성비하의 내용을 편집 없이 방송함.

보도 프로그램 보고서(8월)

I. 모니터 개요

□ 모니터 장르 : 보도 프로그램

□ 모니터링 기간 : 2015년 8월 1일 ~ 7일

□ 모니터링 대상매체 : KBS, MBC, SBS, JTBC, MBN, TV조선, 채널A, YTN, 연합뉴스TV

방송사	제목	시간
KBS1	뉴스9	오후 9:00
MBC	뉴스데스크	오후 7:55
SBS	8뉴스	오후 8:00
JTBC	뉴스룸	오후 7:55
MBN	뉴스 8	오후 7:40
TV조선	뉴스쇼 판	오후 9:30
채널A	종합뉴스	오후 9:30
YTN	뉴스만만 뉴스10 YTN24	오후 9:00 오후 9:00(주말) 오후 10:00(주말)
연합뉴스TV	연합뉴스20 뉴스20	오후 7:50 오후 8:00(주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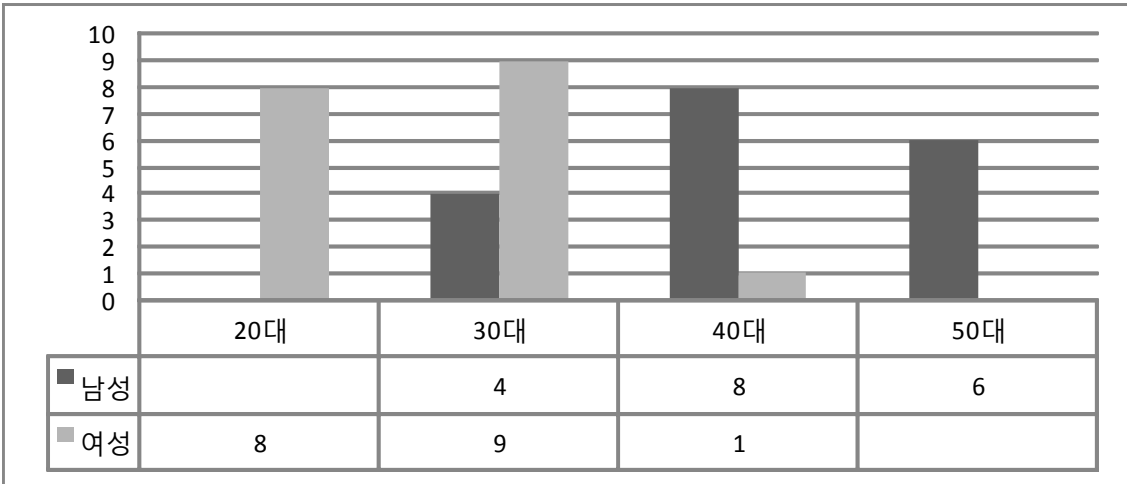
II. 내용 분석

1) 양적분석

(1) 앵커 연령대 분석

앵커 연령대 <주중>									
방송사	KBS	MBC	SBS	JTBC	MBN	TV조선	채널A	YTN	연합 뉴스TV
남성	50대	40대	50대	50대	50대	40대	50대	30대	30대
여성	20대	30대	30대	30대	40대	20대	20대	30대	30대

앵커 연령대 <주말>									
방송사	KBS	MBC	SBS	JTBC	MBN	TV조선	채널A	YTN	연합 뉴스TV
남성	40대	40대	40대	40대	40대	30대	50대	40대	30대
여성	30대	30대	30대	20대	30대	20대	20대	20대	2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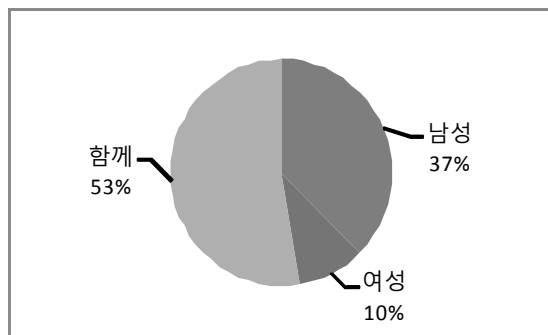


- 각 방송사 양성 앵커의 연령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방송사에서 남성은 40~50대기자 출신으로 구성, 여성은 20~30대의 아나운서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음.
- 남성, 여성 앵커의 연령이 평균 10~20년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전문성의 차이로 연결되어 여성 앵커에 비해 남성 앵커에게 신뢰감과 전문성이 부여되고 있음.
- 반면, 연합뉴스TV 방송사의 경우, 양성 앵커 간에 나이 차이가 적거나 같은 연령대라는 점이 고무적임.

(2) 앵커 오프닝/클로징 멘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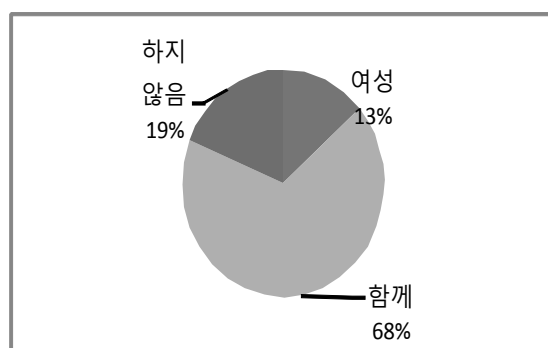
앵커 오프닝/클로징											
	방송사	KBS	MBC	SBS	JTBC	MBN	TV 조선	채널 A	YTN	연합 뉴스TV	합계
오프닝	남성	2		3	4	2	4				15
	여성					2			1	1	4
	함께	4	4	2	1			3	4	3	21
	하지않음										0
클로징	남성										0
	여성			2	1				1	1	5
	함께	4	4	3	2	3	2	3	3	1	25
	하지않음					1	2		1	3	7

	방송사	합계	비율
오프닝	남성	15	37%
	여성	4	10%
	함께	21	53%
	하지않음	0	0%



- 오프닝을 남성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15건, 여성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4건으로 남성이 단독으로 오프닝을 진행하는 횟수가 여성 앵커에 비해 4배 가량 많았음.
- SBS 8시 뉴스(8월 6일) 시작 직전 2분간 진행되는 헤드라인 뉴스를 남성 앵커 단독으로 보도하였는데 이는 뉴스의 주진행자가 남성앵커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성차별의 전형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음.

	방송사	합계	비율
클로징	남성	0	0%
	여성	5	13%
	함께	25	68%
	하지않음	7	19%



- 클로징 멘트는 남성 앵커는 0건, 여성 앵커는 5건이었으나 대체로 양성(남성+여성)이 함께 클로징을 하는 경우가 25건으로 전체의 약 68%로 절반 이상을 차지 하였음.
- 양성 앵커가 함께 클로징을 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성 역할 구분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연합뉴스TV 방송사의 경우, 여성 앵커가 오프닝과 클로징 멘트를 단독으로 진행하여 신선하였다고 평가함.

(3) 뉴스 분야별 양성 앵커 보도수 차이 분석

뉴스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양성 앵커가 소개하는 아이TEM 분야를 정치, 경제, 과학, 사회, 문화, 생활정보 및 기타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뉴스 분야별 양성 앵커 보도										
방송사	구분	정치	경제	과학	사회	문화	생활 정보	교육	기타	합계
KBS	남성	13	11	1	26	2	4	1	10	68
	여성	6	13	1	28	3	2	1	23	77
	함께	2			2					4
MBC	남성	8	10	2	20	1	9		4	54
	여성	1	8	1	21	4	11	3	12	61
	함께	1	2							3
SBS	남성	18	9	1	24	4	4		13	73
	여성	15	9		17	12	8			61
	함께	1								1
JTBC	남성	17	11		24	1	6	1	6	66
	여성	5	1	3	19	5	1		4	38
	함께		1						4	5
MBN	남성	10			37	2	1		4	54
	여성	12			24	3	3		4	46
	함께									0
TV조선	남성	18	14		30	5	3	3	6	79
	여성	8	4		16	1	3	1	6	39
	함께	8	3		8	2	2		1	24
채널A	남성	12	3		22	2			10	49
	여성	13	1		20	3			4	41
	함께	7	2		19	6			2	36
YTN	남성	17	10	0	9	3	2		5	46
	여성	16	16	1	10	2	8		3	56
	함께	3	8	0	3	0	2		1	17
연합 뉴스TV	남성	5	5		13	2	5		5	35
	여성	14	8	1	25	1	20		35	104
	함께	9	7		5		5		2	28

- 정치 분야 소개에 있어서는 여전히 남성의 비율이 높았으나 방송사의 특성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소개하는 비율이 동일하거나 여성이 많은 경우도 있었으며, 사회분야 소개시 여성과 남성이 거의 유사한 비율을 보이기도 하였음.
- 정치, 경제, 과학, 사회 주제는 남성 앵커, 문화, 교육, 생활정보 주제는 여성 앵커가 주로 소개하던 기존의 패턴이 매우 완화된 경향을 볼 수 있었음.

- SBS, MBN, 채널A, YTN에서 성별에 따른 특정 주제 소개의 경계가 많이 완화된 모습을 보였으며 연합뉴스TV의 경우 모든 분야에서 여성 앵커의 역할이 두드러진 면을 볼 수 있었음

(4) 인터뷰 대상자의 성별 직업 분포 차이 분석

인터뷰대상자의 성별 직업 분포										
방송사	구분	공무원	자영업	전문직	학생	회사원	주부	기타	알수 없음	합계
KBS	남성	40	10	27	5	24		24	36	166
	여성	5	2	13	1	3	6	14	19	63
MBC	남성	37	8	35	2	12		32	11	137
	여성	4	1	12	3	4	9	12	19	64
SBS	남성	18	14	25	1	13		9	14	94
	여성	6		7		4	3	5	15	40
JTBC	남성	12		9	1	6		10	8	46
	여성	1	2	1	1	1	3	7	6	22
MBN	남성	40	4	14		9		15	13	95
	여성	8		1	2	1	4	5	6	27
TV조선	남성	17	3	22	3	5		2	16	68
	여성	2		4	2	3	4		13	28
채널A	남성	37		19	4	5		20	17	102
	여성	9	1	6	1	5	6	9	10	47
YTN	남성	14	3	11	1	3		3	8	43
	여성	6	3	3	4	5	2	1	6	30
연합 뉴스TV	남성	9	3	21	2	2		7	5	49
	여성	3		5	2		4	4	2	20

- 인터뷰 대상자를 직업별로 분석한 결과 공무원과 전문직 대상 인터뷰에서 여성의 참여가 부족함.
- 인터뷰 내용에 따른 인터뷰 대상자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문 분야 의견 제시는 대부분 남성이 담당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전문적인 견해보다 일반 시민의 의견제시가 많았음.
- 전문 의견을 얻기 위한 인터뷰 대상으로 남성을 주로 선정하는 것에서 인터뷰 대상자 선정에 있어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5) 기자 성별 총인원 및 뉴스 분야별 양성 기자 보도수 차이 분석

뉴스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방송사별·주제별 양성 기자가 어떤 아이템을 취재하고 리포팅 하였는지를 분석하였음.

기자 성별 총인원										
방송사	KBS	MBC	SBS	JTBC	MBN	TV 조선	채널A	YTN	연합뉴스 TV	합계
남성	78	93	64	60	73	74	77	34	64	617
여성	48	30	20	37	11	59	34	16	44	299

뉴스 분야별 양성 기자 보도										
방송사	구분	정치	경제	과학	사회	문화	생활정보	교육	기타	합계
KBS	남성	14	9	2	19	5	3		26	78
	여성	7	5		30		2		12	56
MBC	남성	15	16	2	36	3	9	2	9	92
	여성		4	3	8	4	10	1	4	34
SBS	남성	12	8	1	26	12	4		9	72
	여성	2	3		11	7	5			28
JTBC	남성	6	17	2	25	1	4	1	12	68
	여성	7	8	1	17	4	3		7	47
MBN	남성	14			46	3	2		9	74
	여성	2			7		1		1	11
TV조선	남성	14	11		30	3	5	3	8	74
	여성	11	10		22	5	2		9	59
채널A	남성	20	3		25	1			8	57
	여성	11	2		21	2			3	39
YTN	남성	10	10		15	1	4	1	3	44
	여성	6	8		4	3	3		1	25
연합 뉴스TV	남성	17	6	1	15	1	15		9	64
	여성	5	8		15	5	6		5	44

- 모든 분야에서 남성 기자의 취재보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남성 기자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여성 기자는 문화, 생활정보 분야를 취재하는 것으로 이분화된 경향을 볼 수 있음.
- YTN의 YTN24 뉴스(8월 1일)의 경우 여성기자와 남성기자가 1:2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 여성기자는 경제와 스포츠 영역을 주로 담당한 반면, 남성기자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다

양한 영역에 분포되어 영역의 편중과 여성기자의 비율 부족이 두드러짐

- 2012년, 2013년, 2014년 모니터링 결과와 비교해볼 때, 여전히 양성 기자의 역할분담이 뚜렷이 구분되고 있는 점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양성 기자의 분야별 취재보도에 있어서 성역할 고정관념 및 역할 이분화의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

2) 질적분석

○ 성평등적 내용

- 이번 모니터링 기간 동안 여성 및 양성평등 관련 보도는 11건으로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었음.
- 보도의 대부분은 ‘교사의 성추행’, ‘경찰의 성폭행’ 관련 학교 내 교사와 학생, 여성의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YTN 뉴스만만(8월 3일)

- YTN의 뉴스만만 8월 1일 방송에서 일기예보 꼭지를 남성 기상캐스터가 단독으로 진행하였고, 8월 3일 방송에서 여성과 남성 기상캐스터가 함께 일기예보를 맡고 있음. 뉴스의 일기예보는 여성이 단독으로 맡는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인상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 성차별적 내용

- 이번 모니터링 기간 동안 성차별적 보도는 9건으로 나타남.
- 8월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의 이벤트나 휴가지 내 몰카 범죄의 실태를 소개하면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클로즈업하여 아래에서 위로 카메라 앵글을 비추거나 비키니 차림 여성의 몸매에 초점을 맞춘 영상이 많았음. 이는 보도 주제와 무관하므로 불필요한 장면이라 생각되며,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된 성상품화의 경향을 그대로 드러내어 문제시 되었음.
- 채널A의 종합뉴스 8월 6일 방송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소재에 대해 다루면서 담화문 내용과는 상관없는 대통령의 패션에 대해 언급하였음. 유독 여성정치인에 대해서만 정치적인 행보보다는 패션과 외모에 대해 언급하는 보도 경향을 따른 듯해 개선이 필요함.

Ⅲ. 나가며

서울YWCA 대중매체 양성평등 미디어모니터회는 8월 1일부터 7일까지 방송된 지상파, 중편, 케이블 뉴스 모니터링을 통해 뉴스의 구성과 형식, 양성의 역할분담 현황에 대한 양적 분석을 실시하는 동시에 뉴스의 보도내용이 양성평등 의식을 기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양성 앵커의 아이템 소개에 있어 이분화된 영역 구분이 완화된 경향을 볼 수 있었고, 오프닝과 클로징에 있어서도 작년에 비해 여성이 전담하거나 양성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뉴스 분야별 양성 기자 보도수 차이 분석에서 여성기자는 경제와 스포츠 영역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남성기자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영역 분포되어 영역의 불균형이 문제시되었다. 또한, 인터뷰 대상자의 직업별 분포에서 공무원과 전문직 대상 인터뷰에 여성 참여가 부족한 면이 두드러져 아쉬움으로 남았다.

한편, 내용적인 면에서 여전히 양성평등적 관점에 입각한 보도보다는 성차별적 내용이 남아 있어, 미디어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한 다각적인 개선운동이 필요해 보인다.

■ 성평등적 내용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성평등 내용/사진
KBS1	뉴스9	8월 6일	뉴스의 꼭지가 25개. 그 중 양성이 같이한 것 1개, 남성 앵커 12개, 여성 앵커 12개로 차등 없이 나눈 것에 주목함. 정치나 경제 문제 또한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배분해서 소개함
KBS1	뉴스9	8월 7일	28개 꼭지 중 1개는 같이, 나머지 27개중 여성 앵커 14개, 남성 앵커 13개 소개 꼭지를 소개하는 기자도 여성기자가 11개, 남성 기자가 12개 소개. 이로써 양적 수는 평등한 것으로 보임
채널A	종합뉴스	8월 1일	방송 내용을 양성 앵커가 같이 멘트하거나 양성이 오프닝과 클로징 뿐만 아니라 기사내용도 같이 멘트하는 경우가 많아 성평등적 관점이 돋보였음
채널A	종합뉴스	8월 5일	
YTN	뉴스10	8월 2일	남성 앵커가 오프닝을 먼저한 것이 아쉽지만 그날의 주요 뉴스 안내를 양성 앵커가 함께 한 점은 양성평등 면에서 바람직함
YTN	뉴스만만	8월 3일	첫 아이터민인 경제계 대기업 총수의 경영권 분쟁 내용을 양성 앵커의 공동 진행으로 세분화하여 보도함. 정치·경제는 남성앵커의 고유 영역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어 유용함
연합뉴스TV	연합뉴스 20	8월 7일	주요 뉴스들을 남성 앵커와 여성 앵커가 함께 진행하는 모습이 평등적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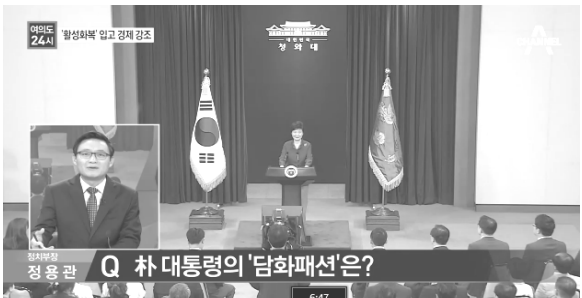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성평등 내용/사진
SBS	8뉴스	8월 4일	학교 내 성희롱과 성추행 실태를 고발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교사의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SBS	8뉴스	8월 4일	‘이별범죄’를 다룬 뉴스에서, 여성들이 받는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한편 가해자들은 가벼운 처벌만 받고 있음을 지적함. 지금까지 다소 소홀히 다뤄졌던 데이트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킴
SBS	8뉴스	8월 4일	여성 직원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성추행을 한 사건을 보도함. “일반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허리, 팔뚝 등을 쓰다듬거나 수 초간 주무르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훈계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추행에 해당한다” 등 대법원 판결을 인용함으로써 직장 내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킴
SBS	8뉴스	8월 5일	경찰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가 해임된 사건을 소개하고, 이어서 경찰 내부에서 성추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분위기를 취재함으로써 여성경찰의 인권 실태를 고발함
YTN	뉴스만만	8월 3일	 여성 기상캐스터와 남성 기상캐스터가 함께 일기예보를 맡고 있음. 일기예보는 여성이 맡는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인상적인 사례임
YTN	뉴스만만	8월 7일	교내 성폭력사건을 은폐만 해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의 새 대책을 소개함으로써 학교 내 여성인권을 보호해야함을 강조함

■ 성차별적 내용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성차별 내용/사진
KBS1	뉴스9	8월 4일	앵커들이 함께 보도하는 내용과 오프닝-클로징을 항상 남성 앵커가 먼저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 남성 앵커가 주도하고 여성 앵커는 보조하는 모습을 보임
MBC	뉴스데스크	8월 5일	기자의 성비를 볼 때 남성은 21명, 여성은 4명으로 남성 기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방송보도의 경우 여성의 진입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을 보여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성차별 내용/사진
SBS	8뉴스	8월 6일	뉴스 시작 직전 2분간 진행되는 헤드라인 뉴스를 남성 앵커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뉴스의 주진행자가 남성 앵커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성차별의 전형임 
MBN	뉴스8	8월 1일	오프닝 멘트는 남성 앵커만, 앵커 멘트는 25개 꼭지 중 19개를 남성 앵커가, 보도 기자도 25개 꼭지 중 22꼭지가 남성기자로 구성, 성비에 있어 뚜렷한 불균형을 보임
MBN	뉴스 8	8월 4일	처음 뉴스 오프닝을 여성 혼자 진행하여 부드러운 이미지를 준 점은 좋았으나 뉴스를 보도하는 기자의 성비가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음
채널A	종합뉴스	8월 7일	남성 앵커와 여성 앵커가 함께 뉴스를 진행할 때 여성 앵커의 멘트는 주로 기사를 소개하거나 부수적인 내용만 말하고, 주요 내용 소개는 남성 앵커가 맡아 여성 앵커는 함께 진행하는 진행자보다는 보조 진행자라는 느낌이 강함
YTN	YTN24	8월 1일	여성 기자의 분포와 남성 기자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1:2 정도이고 여성 기자는 경제와 스포츠 영역인 반면 남성 기자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 분포되어 영역의 편중과 여성 기자 비율 부족이 다소 아쉬움
YTN	뉴스10	8월 2일	여전히 남성 앵커가 먼저 소개를 하고 여성 앵커에 비해 많이 노출되는 것은 성차별적임. 시청자로 하여금 어떤 일에서나 남성을 대표로 인식하게끔 내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정이 필요함
연합 뉴스TV	연합뉴스20	8월 2일	주요 패널, 인터뷰 대상자가 남성으로 집중 편향되어 여성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함
연합 뉴스TV	연합뉴스20	8월 8일	뉴스 진행은 여성앵커 혼자였으나 소식을 전달하는 기자는 모두 남성이었음. 기자의 성별 불균형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났음
KBS1	뉴스9	8월 4일	스포츠뉴스 중, 남자축구대표팀 한일전 보도에서는 ‘남자부 한일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으나 여자축구대표팀에 대해서만 ‘여자부 한일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이는 축구를 남성의 영역으로 보는 고정관념이 반영된 듯해 아쉬움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성차별 내용/사진
			
MBC	뉴스데스크	8월 1일	피서지에서 한 남성이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을 ‘몰래카메라’로 찍다가 경찰에게 압수당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사건과는 무관한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을 보여줌. 실제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상을 더 많이 사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음 
SBS	8뉴스	8월 1일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많은 휴가지에서 이벤트를 벌이고 있음을 소개한 뉴스에서, 순간적으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클로즈업 하거나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에 초점을 맞춘 장면 등 불필요한 장면들이 많았음
JTBC	뉴스룸	8월 1일	 부산 해운대에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내용의 보도 중,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클로즈업해 아래에서 위로 카메라시선을 이동함. 이는 보도 주제와 무관하므로 불필요한 장면으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되어 있어 아쉬움
JTBC	뉴스룸	8월 2일	이민아 선수의 활약상과 선수로서의 기량을 소개하면서도 ‘긴 생머리를 휘날리는 청순한 외모가 화제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고, 특히 자막에는 이민아 선수의 외모에 대한 내용만 실려 다소 아쉬움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성차별 내용/사진
JTBC	뉴스룸	8월 4일	 대부분 촬영용...사생활 침해 우려 ‘몰래카메라’ 범죄 실태를 고발한 보도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클로즈업한 장면을 계속해서 방송해 아쉬움
MBN	뉴스 8	8월 2일	 바닷가에서 비키니 입은 여성을 상대로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실제 사건과는 무관한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을 보여주고, 특히 특정 신체 부위를 클로즈업함
채널A	종합뉴스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뉴스에서 담화문 내용과는 상관없는 대통령의 패션에 대해 언급함. 유독 여성 정치인에 대해서만 정치적인 행보보다는 패션과 외모에 대해 언급하는 보도 경향을 따른 듯해 아쉬움

포털 내 언론기사 보고서(10월)

I. 모니터 개요

- 모니터 장르 : 포털사이트 내 언론기사
- 모니터링 기간 : 2015년 10월 5일 ~ 12일
- 모니터링 대상매체 : 네이버 뉴스스탠드 내 총 35개 매체

번호	매체명	번호	매체명
1	KBS	19	일간스포츠
2	SBS	20	뉴데일리
3	MBC	21	osen
4	전자신문	22	한국일보
5	프레시안	23	머니투데이
6	오마이뉴스	24	세계일보
7	미디어 오늘	25	이데일리
8	노컷뉴스	26	MBN
9	국민일보	27	파이낸셜뉴스
10	뉴시스	28	매일경제
11	아이뉴스24	29	아시아경제
12	ZDNET KOREA	30	YTN
13	한국경제TV	31	SPORTAL KOREA
14	한국경제	32	코리아헤럴드
15	스포츠동아	33	디지털타임스
16	스포츠조선	34	코리아타임스
17	마이데일리	35	헤럴드경제
18	서울신문		

II. 내용 분석

□ 성평등적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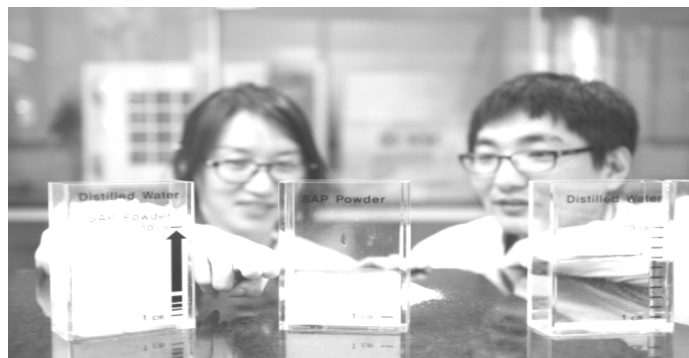
1) 성역할 고정화 탈피 위해 노력

〈아이뉴스 24, 10월 5일〉는 ‘컴퓨팅적 사고력’ 창시자 지넷 윙 방한, 오는 8일 컴퓨팅적 사

고령 포럼서 연구사례 공유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 ‘컴퓨팅적 사고력’을 창시한 지넷 윙 마이크로소프트연구소 부사장이 전문분야에서 여성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긍정적이다. 또한 기사의 사진 역시 여성의 얼굴이나 신체를 불필요하게 부각시키지 않은 점이 인상적이다.



또한 경제 전문지인 <매일경제, 10월 6일>는 건설장인 여성 파워...“금녀의 영역 없다”라는 제목으로 ‘기능경기 수상자 64명 중 12명 여성... 도장 1위도 여성’이라고 소개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도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디지털타임스, 10월 12일>는 뽕송 뽕송 기저귀의 비밀 SAT(고 흡수성 수지)로 LG화학 연구원들의 사진에 여성과 남성 연구원을 모두 배치하여 화학 분야에 대한 성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이 보여졌다.



LG화학 연구원들이 일회용 종이 기저귀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물질인 SAP(고흡수성수지) 제품의 수분 흡수성을 실험하고 있는 모습. LG화학 제공

2) 여론 환기의 역할

여성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부각시켜 주위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 기사도 많았다. <서울신문, 10월 5일>에는 ‘성폭력예방교육, 안 받은 장교, 부서관 진급심사 못 받는다’는 제목으로 여군 1만 시대 그리고 군대 내 동성 간 성폭력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은 양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됨을 강조하였다.

또한 <매일경제, 10월 6일>에서는 ‘여성혐오’ 조장광고, 잇따른 구설수에도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띈다. 여성과 남성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사용해 여성혐오를 조장하는 광고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비판함으로써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뉴시스, 10월 12일>에서는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 집중 신고기간을 기사화해 ‘모성보호 관련 불법 집중 신고기간’을 소개함으로써 모성보호 관련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다.

□ 성불평등적 내용

1) 선정적인 이미지 사용으로 여성을 상품화, 성적대상화

대부분 포털 내 뉴스가 사진 한 장으로 시선을 끄는 형태이다 보니 선정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SPORTAL KOREA>는 여성 연예인의 몸을 강조하여 표현하는 제목들로 여성을 성상품화하였으며, 여성을 비하하는 기사 제목이 다른 언론사에 비해 자주 표현된다. 또한 <스포츠동아, 10월 5일>의 경우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기 위한 선정적 화보와 제목으로 유인했으나 내용과는 상이한 것도 많고, ‘조안나 크루파, PETA 기념파티서 또 한번 화끈한 노출 드레스’라는 제목으로 지나치게 선정적인 사진과 제목을 사용하였다. 이 기사뿐만 아니라 많은 기사에서 여성의 노출을 부각시켰다.



<일간스포츠>는 스포츠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선정적 사진 모음판의 개념이 강했으며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사진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었다.

2)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언어 사용

<세계일보, 10월 12일>에서는 교사가 여고생에게 “너희는 다리만 잘 벌리면 돼”라는 제목의 기사로 교사가 수업 중 여고생들에게 “너희는 다리만 잘 벌리면 된다”는 입으로 윙크기도 민망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기사에서, 자극적인 발언을 제목에 실은 것은 독자들의 불쾌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클릭만을 유도한 기사로 보여진다.

〈YTN, 10월 6일〉에서는 ‘명절스트레스, 날 위한 분노의 쇼핑으로 푼다’ 제목으로 명절후유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사화 하면서 명절후유증 문제와 원인이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처럼 보도하며 여성의 스트레스 해소 방식을 자극적으로 표현하였다.

〈마이데일리〉는 전반적으로 사진과 기사제목이 여성의 특정부위를 강조하고 선정적이었다. 스포츠 뉴스에서 경기의 내용보다는 치어리더의 치마 속이나 다리를 강조하는 기사나 사진이 올라오며 여자 연예인들의 행동을 성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제목으로 표현하여 성을 상품화하는 기사가 많았다.

〈코리아헤럴드〉는 해당 날짜가 아니더라도 해외 기사를 여과 없이 번역하여 올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소 선정적인 부분들이 있고 통속적인 대중 신문, 외국 기사를 여과 없이 수록하여 필터링의 기능이 필요해 보였다.

□ 매체별 분석

1) 경제 보도 전문매체

경제보도 전문매체에서는 대부분 경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여성을 상품화는 내용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매일경제〉는 경제지 중 가장 인지도가 있는 언론으로 여성의 문제도 경제학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많았다. 그러나 일부 기사는 제목에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유도하여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줄임말 표현으로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 많은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예를 들어 경력 단절 여성을 ‘경단녀’ 라고, 〈SPORTAL KOREA〉에서 ‘베이글녀’라고 표현한 것은 요즈음 ‘김치녀’, ‘된장녀’ 처럼 여성 비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TV〉 역시 이목을 끌기위해 선정적인 제목과 사진을 이용하는 등 낚시성 기사들이 많았으며, 〈헤럴드경제〉는 선정적 사진을 메인에 배치하여 시선을 강조했으며,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자극적 소재를 다루는 등 ‘경제지’라는 이미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파이낸셜 뉴스〉는 뉴스스탠드 내 편집한 10월 9일자 해당 기사에 대해 “시민 모니터링단 검토 결과 자극적인 콘텐츠로 판단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자체 검열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언론 매체와 차별화 되었다.

- 대상 콘텐츠 : 러 수감 중 성관계까지 ‘호화생활’

- 시민 모니터링단 의견 : “사건 기사이고 흐리긴 하지만, 동영상 내용이 남녀가 옷을 벗고 안고 있는 등의 영상들이 선정적이며 아이들에게 노출이 부적절해 보입니다.”

2) 스포츠 보도 전문매체

스포츠 보도 전문매체의 경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사진을 내세우고 있는 점은 여전히 심각하다. 여성 연예인의 몸을 강조하여 표현하는 제목들로 여성을 상품화하거나 비하하는 표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스포츠보도 전문 매체지만, 메인화면에서 주요 스포츠 뉴스 기사 외에는 선정적인 기사제목과 함께 여성 연예인의 신체 노출 동일사진이 자주 확인되고 있다.

3) IT 보도 전문매체

IT 보도 전문매체 대부분은 자극적인 기사내용이나 선정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과도하게 노출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관련 기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아쉽다.

4) 기타 매체

포털 내 뉴스가 사진 한 장으로 시선을 끄는 형태이다 보니 기사가 선정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KBS〉는 ‘피 흘리는 기자의 봉대 투혼’이라는 기사에서 ‘여기자’라는 표현을 사용, 〈MBC〉의 경우 상시 수정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내용이 부실하고 제목 역시 기사 내용과의 어울림보다는 시선 끌기 좋은 선정적인 문구 사용과 대안 없는 내용의 기사(10월 9일, “개에 물리고 성희롱에 시달리고” 고달픈 통계청 조사원)를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SBS〉는 문화 또는 생활 정보에 대한 기사들이 다소 많은 편인데, 이 때 흥미위주의 자극적인 제목(10월 5일, ‘남자는 똥똥, 여자는 날씬해야 돈 많이 번다’)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많다. 기사의 본 내용보다는 사이트 접속 시에 보이는 낚시성의 선정적인 광고나 기사의 삽입 화보가 문제시 되었다. 〈마이데일리〉는 전반적으로 사진과 기사제목이 여성의 특정부위를 강조하고 선정적이었다. 스포츠 뉴스에서 경기의 내용보다는 치어리더의 치마 속이나 다리를 강조하는 사진을 배치하여 성을 상품화 하는 기사가 많았다. 〈세계일보〉는 여성 연예인들의 짧은 치마, 노출에 초점을 맞춘 이미지와 이를 더 자극적으로 보이게 하는 제목을 사용한 기사들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소비자를 유혹해 조회수를 늘리려고 하는 기사들이 보였다.

〈노컷뉴스〉는 모니터링 기간 중 양호한 편이었지만, 여성 관련 이슈는 찾을 수 없었고, 〈뉴데일리〉 역시 양성평등에 관계되는 기사를 비롯하여 불평등 해소나 사회 개혁에 대한 기사가 없어 아쉬웠다. 반면 〈뉴스1〉은 사실 위주로 보도를 하여 성차별적인 기사보다는 성평등적인 내용을 생각하게 하는 기사가 더 많았다.

〈서울신문〉은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사진이나 단어를 선택하여 제목을 쓰는 것들이 자칫 독자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몇 개의 기사가 있었지만, 많은 부분에서 여성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알려 주위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 기사가 눈에 띈다. 〈한국일보〉는 타 언론사에 비해 양성평등 관점에서 충실한 기사로 구성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코리아헤럴드〉는 해외 기사를 여과 없이 번역하여 올리기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소 선정적인 부분이 많아 필터링의 기능이 필요해 보인다.

Ⅲ. 나가며

포털사이트는 인쇄매체와 함께 각종 이슈와 사건 보도 등에 대한 기사를 전달하는 주요 매체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스마트 세상으로 변화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포

털사이트는 정보 공유, 전달, 습득을 활성화 시키면서 SNS 사회로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쇄매체와는 다르게 포털사이트 내에서는 방대한 정보가 쏟아지고,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적·낙시성 기사들이 무분별해지고 있으며,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 혹은 과도한 문구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언론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에서의 선정성 문제는 사회적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규제 방안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인터넷상에서의 언론기사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TV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빈도보다 훨씬 높고 다양한 연령층에게 노출되어 있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또한 인터넷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아 그 제재마저 쉽지 않다. 각 언론사들은 기사를 클릭하도록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문구나 이미지를 사용한다. 그러기에 포털에서의 언론 기사를 규제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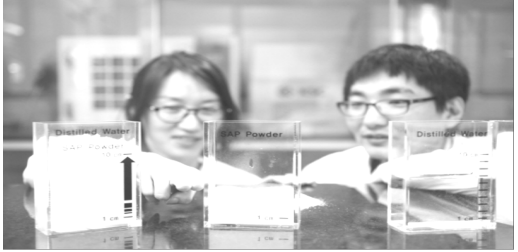
2012년 발족된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통해 인터넷신문매체의 기사와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를 권고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중 선정성 부분의 보다 자세하고 실효성 있는 세칙 제·개정을 통해 인터넷신문매체 스스로 선정성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윤리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모니터링 기간 동안 포털사이트에서 게재된 각종 기사 등을 분석하면서 여성이슈가 많아졌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신체를 노출하거나 외모를 폄하하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점,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거나 성폭행/성희롱/폭력사건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모방범죄의 여지를 주는 점, 심각한 사회적 사건 보도를 개인 혹은 가정의 문제로만 묘사하거나 무분별하게 성차별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규제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 성평등적 내용

포털명	일시	언론사	기사제목	성평등적 내용/사진
네이버	10월 5일	서울신문	성폭력예방교육 안 받은 장교, 부서관 진급심사 못 받는다.	여군 1만 시대 그리고 군대 내 동성 간 성폭력이 끊이지 않는 현재에 성폭력예방교육은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된다고 강조함.
네이버	10월 5일	서울신문	일베, 성매매 음란 등 유해 게시물 최다 적발돼	여성을 비하하고 혐오를 부추기는 사이트의 유해성을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유해매체로 선정했음을 기사화해 여론을 환기시킴.
네이버	10월 5일	아이뉴스24	‘컴퓨팅적 사고력’ 창시자 지넷 윈 방한	‘컴퓨팅적 사고력’을 창시한 지넷 윈 마이크로소프트연구소 부사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컴퓨팅적 사고력 포럼에 참석한다고 소개함. 전문분야에서 여성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바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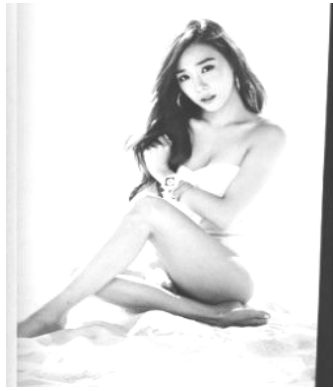
포털명	일시	언론사	기사제목	성평등적 내용/사진
				하며, 기사 사진 역시 여성의 얼굴이나 신체를 불필요하게 부각시키지 않은 점이 인상적임. 
네이버	10월 6일	매일 경제	건설장인 여성 파워... “금녀의 영역 없다”	‘기능경기 수상자 64명 중 12명 여성... 도장 1위도 여성’이라고 소개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도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줌.
네이버	10월 5일	아이 뉴스24	10월 대화면 스마트폰 지존 가린다 갤럭시노트5·아이폰6S+ 경쟁에 V10도 가세	 신형 스마트폰 광고 사진에 남성과 여성이 균형 있게 등장하고, 기사 의도에 맞게 제품이 부각되고 있음. 이는 여성 홍보모델들의 외모가 불필요하게 부각되는 기존의 제품 광고와 달라 인상적임.
네이버	10월 6일	매일 경제	‘여성혐오’ 조장광고, 잇따른 구설수 에도 끊이지 않는 이유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사용해 여성혐오를 조장하는 광고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비판함.
네이버	10월 7일	코리아 타임스	JYP 신인 걸그룹 트와이스, 20일 데뷔... “꿈 향해 나아갈게요”	JYP엔터테인먼트의 새 걸그룹 트와이스를 소개한 기사에서 ‘트와이스는 개성 넘치는 성격과 건강하고 생기발랄한 매력, 성실함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설명함. 불필요하게 선정적인 이미지를 심거나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지 않음.
네이버	10월 9일	뉴시스	임산부 10명 중 4명 배려 받은 적 없다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부족함을 지적해서 독자들의 관심을 고취시킴.

포털명	일시	언론사	기사제목	성평등적 내용/사진
네이버	10월 9일	한국 일보	소피마르소 “취화선은 걸작”	배우 소피 마르소의 내한 소식을 전한 기사에서 “취재진의 질문 하나하나에 허투루 대답하는 법이 없는 그녀의 모습은 35년차 배우이자 영화감독의 내공이 고스란히 묻어났다”며 외모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배우이자 감독으로서의 경력을 강조함.
네이버	10월 10일	한국 일보	훈장 집어던진 페미니즘의 전사	 영국의 여성인권 운동가 데니스 마샬의 이야기를 소개함으로써 페미니즘, 성소수자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킴.
네이버	10월 12일	뉴시스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 집중 신고기간	‘모성보호 관련 불법 집중 신고기간’을 소개함으로써 모성보호 관련법에 대해 관심을 유도함.
네이버	10월 12일	뉴시스	美연쇄 성 폭행범 ‘무기징역 4회’ 초강력 철퇴	우리나라와는 달리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보도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고시킴.
네이버	10월 12일	디지털 타임스	뽀송 뽀송 기저귀의 비밀 SAT (고 흡수성 수지)	 LG화학 연구원들이 일회용 종이 기저귀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물질인 SAP(고흡수성수지) 제품의 수분 흡수성을 실험하고 있는 모습. LG화학 제공 LG화학 연구원들의 사진에 여성과 남성 연구원을 모두 배치함. 화학 분야에 대한 성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이 보여 바람직함.
네이버	10월 12일	매일 경제	가정폭력 피해자 생계비 조기소진	가정폭력 피해자 생계비 지원이 조기 소진 되어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가정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해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 독자들의 관심을 고취시킴.
네이버	10월 12일	매일 경제	강은희 “재취업한 경단녀 절반이 반 년 만에 포기”	경력단절 여성이 새로일하기센터를 이용하여 취업한 후 반 년 만에 포기 한다는 내용으로

포털명	일시	언론사	기사제목	성평등적 내용/사진
				고용 안정성의 불확실과 저임금의 실태를 알림으로써, 여성의 일자리가 양질의 것이 되어야 함을 강조함.
네이버	10월 12일	한국 경제 TV	한국 남녀 평균 데이트 비용 ...이성간 자존감 키우는 방법은?	한국 양성 간 데이트 비용 부담 실태를 소개하고, “이성간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또 스스로가 한 일에 대해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자.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등 성 차별에 치우치지 않음.

□ 성차별적 내용

포털명	일시	언론사	기사제목	성차별적 내용/사진
네이버	10월 5일	스포츠 동아	조안나 크루파, PETA 기념파티서 또 한번 화끈한 노출 드레스	 지나치게 선정적인 사진과 제목을 사용함. 이 기사뿐만 아니라 많은 기사에서 여성의 노출을 부각시킴.
네이버	10월 5일	SBS	‘남자는 똥똥, 여자는 날씬해야 돈 많이 번다’	외국대학의 단순 통계자료를 통한 흥미유도식의 기사로,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해 논란의 소지를 남김. 기사 중 실험 내용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이나 사회적 문제의식이 없어서 아쉬움.
네이버	10월 5일	SPORT AL KOREA	AOA 설현, 베이글녀 인증 셀카...핫볼룸 공개	“그룹 AOA의 설현이 청순한 미모를 뽐냈다. 지난 20일 설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 장의 사진을 게재하며 근황을 공개했다”는 기사내용과는 다르게 기사 제목이 선정적임.

포털명	일시	언론사	기사제목	성차별적 내용/사진
네이버	10월 5일	SPORT AL KOREA	소시 티파니 ‘터질 듯한’ 가슴골	 특정 부위를 강조하는 기사제목을 사용, 선정적이고, 성을 상품화함.
네이버	10월 5일	SPORT AL KOREA	이리나 샤크, 비키니 촬영하다 노출 사고 10	노출이 심한 사진을 게시함.
네이버	10월 5일	뉴 데일리	한그루 결혼, 한그루 침대 위 에서 ‘육감적인 가슴라인 뽐내며’ ‘나 콩꼬또~결혼하는 콩꼬또!’	배우 한그루가 결혼을 발표한 가운데 개인 사진을 소개함. 전혀 선정적이지 않은 사진이지만 ‘섹시한 가슴라인이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성차별적임.
네이버	10월 5일	아시아 경제	[포토] 헬가 러브케이티, 명불허전 비키니 여신	별 기사 내용도 없이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선정적인 사진을 게시해 독자들의 시선을 유도함.
네이버	10월 5일	전자 신문	출시 한달 ‘루나’ 팬덤 조짐...온라인상 1만명 모여 정보교류	 제품 광고 사진에서, 제품보다는 여성 모델이 부각되어 아쉬움.
네이버	10월 6일	YTN	명절스트레스, 날 위한 ‘분노의 쇼핑’으로 푼다	명절후유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명절후유증 문제의 원인을 보도하기보다는 여성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식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성불평등적임.

포털명	일시	언론사	기사제목	성차별적 내용/사진
네이버	10월 6일	SPORT AL KOREA	‘아찔한 볼륨’ 전효성의 란제리 화보	 여성 연예인의 속옷 화보에 대해 ‘아찔한 볼륨’이라고 강조하며 선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성차별적임.
네이버	10월 6일	스포츠 동아	개리 ‘엉덩이’ 뮤비 섹시女 심경고백 “처음엔 하체 노출까지…”	기사제목과 메인페이지에 뜨는 내용이 다른 것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임. 또한 여성의 신체에 대한 선정적인 사진과 표현을 사용함.
네이버	10월 6일	코리아 타임스	역대급 몸매, FC 최초 ‘中 로드걸’	중국인 만능엔터테이너 앵커가 9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360게임 로드FC’에서 로드걸로 데뷔한다는 기사에서 불필요한 선정적인 이미지를 실음.
네이버	10월 6일	코리아 타임스	도로변 만취녀의 ‘하의실종’ 테러	선정적이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이미지와 ‘만취녀’라는 성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함. 술에 취해서 도로변에 누워있던 여성에 대해서는 ‘테러’라고 표현한 반면,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온라인에서 공유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지 않아 아쉬움.
네이버	10월 7일	MBN	여감독 샤워실 ‘몰카’ 신고...부산영 화제 ‘시끌’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한 한 여성 감독이 관객 숙소 샤워실에서 몰래카메라에 촬영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라는 기사 내용임. 사용된 화면에 굳이 여성이 벗고 샤워하는 장면을 그려서 넣어야 했는지 의문임. 선정적인 장면이므로 삭제가 요구됨.
네이버	10월 7일	KBS	피 흘리는 기자의 ‘붕대 투혼’	기사제목에서는 기자라고 지칭했지만 앵커 멘트에서는 “총성이 빗발치는 분쟁지역에서 봉대투혼을 발휘한 여기자가 화제입니다”라며 ‘여기자’라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해 아쉬움.

포털명	일시	언론사	기사제목	성차별적 내용/사진
네이버	10월 7일	SBS	길가에 쪼그려 앉아 출산..	 남성과 여성이 아이를 유기했다는 기사인데, 제목에는 여성이 출산한 내용만 담고 삽화에도 여성 이미지만 넣어 여성만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도록 함.
		서울신문	中길가에 아기 낳아 꽃밭에 버리고 간 젊은 여성	젊은 여성과 남성이 아기를 유기한 사건인데, 제목에는 ‘젊은 여성’이라고만 달아 유기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기는 듯함.
네이버	10월 7일	YTN	BIFF 관객숙소에서 여감독 ‘몰카’ 피해	기사제목과 내용에서 굳이 ‘여감독’이라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함.
네이버	10월 7일	뉴시스	[세계군인체육대회] “군인 오빠들 화이팅!” 지역 주민 응원 열기 고조	군인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아우르는 표현인데 ‘군인 오빠’라고 한정지은 것은 성차별적임.
네이버	10월 7일	매일경제	외교관시험 ‘여인천하’...올 합격자 65%차지	외교관시험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이 65%라며 ‘여인천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여성은 외교관이 되기 어렵다는 성차별적 사고에서 나온 듯해 아쉬움. 단순히 여성 합격자 비율이 많아진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성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성평등한 기사가 되었을 것임.
NAVER	10월 7일	세계일보	유명 개그우먼 남편, “제수씨~”라며 유부녀 치마 속 더듬다 재판에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기사 제목에 선정적인 표현들을 사용함.
NAVER	10월 7일	세계일보	대학축제 주점 또 논란... AOA설현 포스터 걸고 “먹고싶지?”	AOA설현의 사진이 대학축제 음란성 홍보에 이용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에서, 선정적인 제목과 사진을 사용함.
네이버	10월 7일	스포츠동아	니콜, 강력해진 섹시함...팬티까지 노출하고 아찔	지나치게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함.

포털명	일시	언론사	기사제목	성차별적 내용/사진
네이버	10월 7일	스포츠 동아	여가수, 손바닥만한 비키니가 신경쓰여...나쁜손 포착	비키니를 입고 바다에서 수영하는 크리스티나 밀리안의 사진에 대해 불필요하게 선정적인 제목을 설정함으로써 관심을 유도함.
네이버	10월 7일	한국일보	부역을 거부하는 세상의 마초들에게	기사제목에서 요리를 여성의 몫으로 치부하고 부엌일을 돕기를 거부하는 남성들을 ‘마초’라는 단어로 포장함. 또한 기사내용 중 “요리가 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핑퐁 경기로 치부되고 있는 동안에는 기득권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방의 남녀평등, 이것은 꿈과 같은 얘기입니다. 한번 물꼬가 터지면 제방은 무너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절대 지켜야 할 것은 요리를 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 경상도 대구의 보수적인 가정에서 장남, 장손의 타이틀을 달고 태어나 부엌은 남자가 가장 멀리해야 한다고 배우며 자란 제가 뒤늦게 요리에 뛰어든 것은 가사노동 분담이나 성 평등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며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재생산함.
네이버	10월 8일	OSEN	포토갤러리	 여성의 과한 노출 사진이나 특정부위를 강조하는 사진 등을 게시하고 있어 여성을 성 상품화함.
네이버	10월 8일	MBC	뉴질랜드 현지언론 “한인여성 5명 감금중?”	 한인여성 5명이 감금되어 있다는 기사에서, 이를 비판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대신 단순히

포털명	일시	언론사	기사제목	성차별적 내용/사진
				구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기사제목과 사진을 선정한 것으로 보임.
네이버	10월 8일	뉴 데일리	‘언프리티 랩스타 시즌2’ 예지 미친 것 같은 몸매 I’m a crazy dog	 ‘언프리티 랩스타 시즌2’에서 예지가 ‘미친 개’를 통해 찬사를 받은 가운데, 과거 촬영한 화보 속 볼륨 몸매가 눈길을 끈다는 내용의 기사. 음악 실력으로 평가 받은 가수의 몸매를 불필요하게 부각시킨 것은 가수를 성 상품화하는 것으로 보여 성차별적임.
네이버	10월 8일	일간 스포츠	여 파이터 방송에 노 속옷의상 딱 걸렸어	드레스를 입고 토크쇼에 출연한 론다 로우지의 사진 중에서 가슴 주위를 클로즈업하여 메인화면에 게시함. 또한 제목에서 실명 대신 ‘여 파이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노 속옷의상’이라는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선정성을 부각시킨 제목으로 관심을 유도함. 기사 내용에서 역시 ‘최근 “경기 전 성관계 되도록 많이 해, 남성호르몬 수치 높여주기 때문”의 발언이 다시 화제가 됐다’며 자극적 내용 실음.
네이버	10월 8일	세계일보	[포토]소유, ‘감출 수 없는 볼륨 몸매’	걸그룹 씨스타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어바웃미 명동점에서 열린 팬사인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음. 선정적인 기사제목과 사진으로 여성 연예인의 몸매를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부각시킴.
네이버	10월 8일	일간 스포츠	‘드라마 어워즈’ 곽지민, ‘얇 드레스가 발에...’	 시상식장에서 드레스를 입은 배우의 사진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더욱 선정적인 이미지를

포털명	일시	언론사	기사제목	성차별적 내용/사진
				게시함. 이외에도 메인화면에 선정적인 사진이 난무한 가운데 해당 기사를 클릭하면 사진과 무관한 기사가 나옴. 또한 우측에 ‘여 모델상의 끈 풀며’ 등 선정적인 이미지와 제목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네이버	10월 8일	코리아 타임스	광고계 이단아 아메리칸 어패럴 파산 신청	파산을 신청했다는 중심 내용과는 거리가 먼 선정적인 광고사진을 사용함.
네이버	10월 8일	코리아 헤럴드	지하철 변태 지나가는 여성치마에..	중국 광저우 지하철역에서의 성추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여성의 옷에 묻은 정액사진을 노출시킴으로써 불쾌감을 야기함. 또한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여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함.
네이버	10월 9일	MBN	에일리, 아찔한 볼륨감 드러낸 비키니 몸매 보니? ‘입이 짹’	가수가 자신의 개인 SNS에 올린 사진을 기사화함. 여성의 몸매를 평가하고 노출한 사진을 기재함으로 여성을 성 상품화함.
네이버	10월 9일	MBC	“개에 물리고 성희롱에 시달리고” 고달픈 통계청 조사원	많이 본 뉴스 중 2위, 통계청 소속 여성 현장 조사원이 음담패설을 들어야하는 등의 사실을 대안 없이 자극적 제목으로 실었음.
네이버	10월 9일	헤럴드 경제	한그루 의붓 언니 “우리엔겐 고문”	뉴스스탠드 메인에 나오는 헤럴드경제의 첫 화면에는 경제신문답게 주가상승 그래프 등이 나왔으나, 정작 클릭하면 연예 기사 및 선정적 사진이 주를 이룸.
네이버	10월 11일	국민일보	이렇게 예뻐 수가 역대급 꽃미모 CEO	여성 CEO가 어린 시절 가난을 이기고 온라인 쇼핑몰 CEO가 되었다는 기사인데, 제목에서는 불필요하게 외모만을 부각시키고 경영능력에 대한 언급은 없어 성차별적임.
네이버	10월 11일	매일경제	미혼여성 10명 중 4명 “연하남과 경험을...”	미혼여성 10명 중 4명은 연하와 연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기사에서 제목을 선정적으로 설정해 관심을 유도함.
네이버	10월 12일	마이데일리	이것이 꿀벅지다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기사제목으로 언급하고 있음. 여성을 성 상품화함.
네이버	10월 12일	마이데일리	강지영 단편영화 첫 주연 “4개국어 도전”	여성 연예인의 작품 활동에 관한 기사지만 메인 화면에 게시된 사진과 제목은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게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함. 관심을 유도하고 기사를 홍보하기 위해 여성을 성 상품화하는 것은 부적절함.

포털명	일시	언론사	기사제목	성차별적 내용/사진
네이버	10월 12일	세계 일보	교사가 여고생에게 “너희는 다리만 잘 벌리면 돼”	교사가 수업 중 여고생들에게 “너희는 다리만 잘 벌리면 된다”는 입으로 옮기기 민망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기사에서, 자극적인 발언을 제목에 실은 것은 독자들의 불쾌감을 고려하지 않고 관심을 끌고자 한 것으로 보임.
네이버	10월 12일	스포츠 조선	스타 핫 포토	 여성 연예인들의 선정적인 사진을 사용함.
네이버	10월 12일	아시아 경제	연예 란	메인 화면에서 독자들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 부위가 부각된 사진을 사용함.

신문 보고서(4월)

I. 모니터 개요

- 모니터 장르 : 신문
- 모니터링 기간 : 2015년 4월 22일 ~ 28일
- 모니터링 대상매체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문화일보

II. 내용 분석

1) 양적분석

- 총 보도 수 대비 여성관련 보도 수

신문	총 보도 수	여성 관련 보도 수	총 보도 수 중 여성 관련 보도 수 비율
조선일보	383	34	8.88%
중앙일보	242	6	2.48%
동아일보	192	10	5.21%
경향신문	177	11	6.21%
한겨레	198	3	1.52%
문화일보	265	9	3.40%

- 외부기고가 중 여성 기고가의 수

신문	외부기고가 총 인원	남성	여성
조선일보	35	27(77%)	8(23%)
중앙일보	13	11(85%)	2(15%)
동아일보	16	14(88%)	2(12%)
경향신문	20	15(75%)	5(25%)
한겨레	13	11(85%)	2(15%)
문화일보	4	3(75%)	1(25%)

2) 질적분석

□ 성평등적 내용

(1) 성평등적 표현 및 사진 사용

〈LPGA 코스 날로 길어져도… 한국 선수들 문제없어〉(동아일보, 4월 23일)에서는 한국 여자 골프 선수들의 활약상을 보도하였다. 기사 제목은 여자선수라는 표현대신 한국 선수들이라 표현하였다. 기사 내용에서는 신체적 조건이 열세임에도 훈련과 노력으로 비거리 투어는 평균 이상이며, 쇼트게임 실력도 우수하여 한국 선수들이 필드의 대세임을 소개했다.



〈기적의 김세영… 칩샷·이글샷 무슨 클럽 썼지?〉(조선일보, 4월 24일)

〈기적의 김세영… 칩샷·이글샷 무슨 클럽 썼지?〉(조선일보, 4월 24일)기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개막한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스윙잉스커츠 클래식예 출전한 김세영의 내용을 다루며 아래와 같은 사진을 사용했다. 일반적으로 여성 골퍼가 좋은 성적을 기록했을 경우 의상을 중심으로 몸매가 드러난 모습의 사진을 게재하였지만, 이 기사는 김세영이 4월 19일 롯데 챔피언십 4라운드 18번 홀에서 칩샷을 하는 모습을 실었다.

(2) 인식 환기

〈“선생님도 ‘김치녀’인가요?” 초등 남학생까지 여성 조롱〉(중앙일보, 4월 25일)에서는 최근 이슈화되었던 유명 연예인들의 성차별적 발언과 논란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갈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전문가들은 남녀 갈등의 원인으로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루저가 될 수밖에 없는 많은 이가 분노를 배출할 수 있는 타깃을 찾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한다. 또한 이 갈등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도덕성 등 남녀를 넘어선 ‘인간’을 향한 감수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심각한 남녀 갈등 문제로 치부될 수 있는 상황을 인권에 대한 문제로 접근한 기사이다.



〈“선생님도 ‘김치녀’인가요?” 초등 남학생까지 여성 조롱〉(중앙일보, 4월 25일)

〈여성 노후 대비하는 ‘따로 또 같이’〉(조선일보, 4월 27일) 혼자 사는 노인 중 87.7%가 여성, 12.3%가 남성(보건복지부 2014년 통계)이며, 여성의 기대수명은 85.1세로 남성보다 6.5년을 더 살기 때문에(아내의 나이가 남편보다 평균 3세 낮음) 여성은 사별 후 약 10년을 혼자 살게 된다는 것을 언급한다. 이에 따라 여성은 경제적·심리적으로 독립해야 하는 것을 강조한다. 경제적 독립은 양성 평등 문화,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부부 공동 출산·육아휴직 제도 및 영유아 보육정책, 경단녀 재취업, 빈곤 여성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확대 등 정부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심리적 독립은 ‘따로 또 같이’ 생활방식을 응용해 패러다임을 바꾸어 주체적인 삶을 설계해야 함을 강조한다.

〈아베크롬비가 남성 ‘몸짱 모델’ 퇴출한 까닭〉(조선일보, 4월 27일)은 의류 브랜드인 아베크롬비&피치가 식스팩을 갖춘 근육질 남자 직원들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 것을 7월 말부터 폐지한다는 소식을 다뤘다. 아베크롬비 차기 CEO 후보인 크리스토스 앤젤리데스 브랜드 부문 대표는 “앞으로 매장 직원들은 외모에 집착하기보다 의류 판매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신체적 매력을 내세운 마케팅 전략이 수정될 것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아베크롬비가 남성 ‘몸짱 모델’ 퇴출한 까닭〉(조선일보, 4월 27일)

〈예전 얼굴로 돌아갈래... ‘붕어빵 외모’ 복원성형 급증〉(4월 27일)은 성형수술 분위기에 휩쓸려 수술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만의 매력을 되찾기 위해 성형복원수술을 하는 현상을 짚

고 있다. 개성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사회적인 경향과 성형이 대중화되면서 의란성 쌍둥이(성형외과 의사들이 만들어낸 비슷한 외모)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비슷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 것에 대한 반감으로 복원 수술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도했다.

□ 성차별적 내용

1) 기사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사진 사용



〈비만 기준〉(조선일보, 4월 24일)



〈돌아온 선텐의 계절〉(경향신문, 4월 24일)

〈비만 기준〉(조선일보, 4월 24일)은 비만과 건강의 영향에 관한 기사이다. 뚱뚱하지만 신체 활동이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비만의 역설을 설명한다. 하지만, 삽화는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는 뚱뚱하지만 열심히 운동 하는 여성과 도도한 표정으로 서 있는 날씬한 여성의 모습을 나타낸 그림을 사용하였다

〈돌아온 선텐의 계절〉(경향신문, 4월 24일) 수영장 개장 소식을 알리며 비키니 입은 여성의 신체를 부각시킨 사진을 사용하였다.

〈어제 올진 31.7도 오늘도 더운 봄〉(조선일보, 4월 27일) 4월 26일 경북 올진의 낮 최고 기온이 31.7도까지 오른 것을 비롯해 강원도, 대구의 기온이 30도까지 오른 것을 보도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부산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물놀이 모습 사진을 사용하였다. 더위를 표현하기 위해 바닷가에서 비키니 옷을 입고 물놀이를 하는 여성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아쉬웠다.



〈어제 올진 31.7도 오늘도 더운 봄〉(조선일보, 4월 27일)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사진
			인권유린 ‘신고도 못해’	고통 속에 있으면서 신고도 못했던 여성들의 도움 요청이 빚발치고 있다는 내용임. 탈북 여성 인권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을 환기 시킴. 北처럼 경찰 두려워... 탈북여성 인권유린 ‘신고도 못해’ “北서 왔다고 무사·출대 가정폭력·성희롱 시달려 상담소 열자 전화 불어져 때 경찰은 막연히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 이다. A 씨는 이렇지만 ‘북한이탈주민 여 성 전문 상담소’의 문을 두드렸다. 최근 가정폭력이나 성희롱·성착취 등 을 호소하는 탈북 여성들이 늘고 있다. 경 찰은 북한 사회에서 살던 생활상 사법 당 국에 대한 불신 탓에 피해를 호소하지 못 했다가 탈북 여성만을 위한 상담소가 문 을 열자 조심스럽게 상담에 나섰고 있는 것이다. 23일 북한이탈주민 여성전문 상담소에 있었다. 북한에서 살 때나 중국 도피 생활 때만 지난 3월 10일 개소한 상담소에는 성희롱과 함께 “북한에서는 이런 일(성희 롱)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10명까지 모두 24시간의 상담이 진 행됐다. 하루 10명대로 상담이 이뤄진 것 이다. 탈북 여성들은 가정폭력이나 직장 내 성희롱, 우울증 등 다양한 고민을 토 로하고 있다. 상담소 세 개는 최근 남한에게 있어 일 과로 목 부러가 심하게 찾아왔지만 경찰 신고 대신 상담소에 도움을 받았다. 현재 상담소는 5개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남한 을 고소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20대 C 씨는 회사 지령에 계속적인 성희롱과 함께 “북한에서는 이런 일(성희 롱)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탈북 상담사 이모(여·42) 씨는 “북한 은 보수적인 문화가 남한보다 훨씬 깊어 가정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해도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가장 먼저 남에게 드러내야 한다고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도 않는 여성, 탈북 여성 인권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 했다. 김영주 기자 everynews@
문화 일보	4월 23일	31면	정부수립 후 첫 여성 의정관 김혜영씨 30년 행자부서 잔뼈, 상훈 관리·의전 행사 등 총괄	정부 수립 이래 첫 여성 의정관으로 임명된 김 혜영씨에 대한 인물소개 내용으로 부드러운 리 더십으로 주어진 업무를 빈틈없이 관리하며 국 제적 감각을 갖추고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이해가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기술하였음. 또한 김혜영씨 임명에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신인사 운영 3대 원칙 및 10대 혁신방안’에서 밝힌 주 요 간부 직위 여성 임용 확대 방침의 일환에 따 른 것이라고 밝힘(현재 행자부 공무원 중 여성이 28%, 과장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14명에 불과). 정부 수립 후 첫 여성 의정관 김혜영씨 30년 행자부서 잔뼈 상훈 관리·의전 행사 등 총괄 가상장 관리와 훈·포 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포상 운 영을 총괄하게 된다. 김 의정관은 지난 1983년 5급 특채로 입직해 30여 년간 옛 행정안전부 윤리 과장, 과천청사관리소장 등을 두루 역 임했다.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주어진 업 무를 빈틈없이 관리하며 국제적 감각을 갖추고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이해가 빠 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종섭 장관은 “김 의정관 임명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신인사운영 3대 원칙 및 10대 혁신방안’에서 밝힌 주 요 간부 직위 여성 임용 확대 방침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현재 행자부 구 성원 중 약 28%가 여성이며 과장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14명이다. 유희경 기자 yoology@ 고위 공직 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적 정책 실현을 보여준 기사임.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사진
조선 일보	4월 24일	A25	기적의 김세영 컵샷, 이글샷 무슨 클럽 썼지?	 기존에 여성골퍼가 좋은 성적을 냈을 경우 그날의 의상을 중심으로한 몸매가 드러난 모습을 위주의 화보를 실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었으나 이를 벗어나 그녀의 경기내용에 관한 내용을 실었음.
		A28	한국여성 누아르의 새 지평 활짝...29일 개봉 ‘차이나 타운’의 두톱 히어로	여배우 2명이 주연인 영화 홍보 인터뷰로 예전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낚시성 기사가 아닌 객관적이고 정확한 표현과 인터뷰 또한 섹시 이미지의 김혜수임에도 기사에서 연관된 단어를 찾을 수 없었음. 
중앙 일보	4월 25일	16면	“선생님도 ‘김치녀’인가요?” 초등 남학생까지 여성 조롱	 최근 이슈화 되었던 유명 연예인들의 성차별적인 발언들과 실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 등을 통해 남성과 여성간의 갈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지적함. 추가적으로 일반인들의 생각과 교수의 의견을 기재함으로 양성평등 관련 문제가 현 시대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 지 나타냄.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사진
문화 일보	4월 27일	12면	“예전 얼굴로 돌아갈래” ... 복원성형 급증	 여성은 꼭 예뻐야만 했다는 과거의 사람들 인식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무작정 성형 수술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각자의 개성을 잃어가고 있고 모두가 획일화된 미인의 기준에 들고 있다고 느껴 복원 성형이라는 수술까지 하게 됨. 이는 개성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사회적인 경향에 대한 인식 환기를 시켜줌.
조선 일보	4월 27일	A1	3.1 만세 여성들 日경찰이 성고문 美 교회 聯, 1919년 상황 보고서	일제 강점기에 일본 경찰이 한국 여성을 상대로 성고문과 강간을 자행한 사실을 기록한 미국 기독교 단체의 보고서가 발견됨. 3.1운동이 일어난 역사적 배경과 무자비한 탄압, 식민지배 정책 등을 포함하여 “당시 강간 처벌도 없었다.”며 보고서를 공개함. 외국인의 입장에서 일제의 성유린과 만행, 한국여성의 성에 관한 인권을 주장하는 기사라서 평등 기사로 추천함.
		A6	일제의 만행을 외국인이 작성 日帝 性고문	 [뉴욕한인교회 보고서] 1919년 3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국인 631명이 사망하고 2만 8934명이 체포되어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사진
				5156명이 투옥됨. 특히 일본 경찰이 젊은 여성과 여학생을 발가벗겨 조사하고 고문하고 학대했다고 작성됨. 이 보고서는 뉴욕 한인교회가 100년사를 발간하기 위해 창고에 보관된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음.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잘못 인정이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자료 발견한 것을 보도한 기사이기 때문에 추천함.
조선일보	4월 27일	A23	美 의류브랜드 '아베크롬비'가 남성 몸짱 모델 퇴출한 까닭	의류브랜드 아베크롬비는 그동안 식스팩을 갖춘 근육질의 남자직원들을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회사유니폼을 입은 판매대리인을 매장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힘. “우리 제품에 어울리는 고객은 몸매가 날씬한 멋진 아이들”이라는 전CEO의 잘못된 발언으로 ‘외모지상주의’란 비판을 받고 이사회에 퇴진 압력을 받아 그는 회사를 떠남. 미국에서 체형이나 신체적 매력을 앞세워 성공해 온 업체들의 마케팅 전략이 대폭 수정되는 좋은 사례로 보임. 직원들의 외모에 집착하기보다는 의류판매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방침은 현시대의 외모지상주의에 경종을 울리는 좋은 사례임.  [아베크롬비 몸짱 남자 직원들과 기념사진 장면]
조선일보	4월 27일	A 33	아베 美 연설에서 性노예 사과해야하는 까닭	올해 8월 15일은 일본의 항복과 한국이 독립된 지 70주년이 되는 날임. 29일 미 상·하원 합동 연설은 세계 리더들의 평화를 호소하는 장에서 아베 총리가 과거 ‘인권위반’을 인정한다면 한국민의 참전용사의 치유를 돕고 정의를 바라며 세계인의 공감을 얻을 것임. 어두운 과거에 상처받은 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제 위안부 할머니는 53명만이 남은 시점에서 여성의 인권과 역사적 화해와 치유, 반성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기사임. 미연방 위원 찰스 랭글의 특별기고로 이뤄짐.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사진
		A35	여성 노후 대비하는 따로 또 같이	혼자 사는 노인 중 87.7%가 여성이고 남성은 12.3%임(보건복지부 2014년 통계). 노인의 빈곤율은 OECD회원국 중 압도적 1위인 현재 여성의 경제적, 심리적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함. 여성의 경제적, 심리적 독립을 위해 양성평등 문화, 일가정 양립, 빈곤여성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확대 등 정부지원이 체계적으로 생애 주기별로 이뤄져야하며 심리적으로는 ‘따로 또 같이’라는 생활방식을 응용해 패러다임을 바꿔야하며 주체적인 여성의 삶을 설계해야한다는 내용의 양성평등 기사임.
조선 일보	4월 27일	A26	일병 골퍼 ‘우승경례’ 국군 체육부대 허인회 18번홀 ‘우승 버디’ 한국여자 골퍼 고진영	제목에서 일병 골퍼 ‘우승경례’ 국군 체육부대 허인회와 8번홀 ‘우승 버디’ 고진영으로 제목을 뽑아 성의 차별이나 여성에게는 미모를 앞세우지 않아 좋은 사례임. 또한 KLPGA 넥센 마스터즈 고진영의 경우에도 이승현을 1타차로 제치고 극적 승리라며 여성의 성을 부각시키지 않고 동등한 능력과 실적으로 제목을 뽑아 유용함. 
동아 일보	4월 27일	A33	59세 미혼… ‘늘 설렘 주는 골프가 평생 반려자’	 한국 여자 골프 1호로 역사의 산증인이며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사진
				KLPGA 정회원 2008명을 대표하는 강준자 한국 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수석 부회장이야기. 남녀의 구분없는 기사제목. 여고남저의 프로골퍼의 전성기시대임을 알려줌.
동아일보	4월 27일	A30	20세 고진영. 1년만에 입맞춤	프로골퍼의 성별을 앞세우지 않아 이름만으로는 성별을 구별할 수 없는 성평등적인 기사임. 

■ 성차별적 내용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차별적 내용/사진
문화일보	4월 23일	11면	北처럼 경찰 두려워...탈북女 인권유린 '신고도 못해'	‘탈북女’라는 용어와 같이 ‘~女’라는 표현은 명시적인 성차별 표현은 아니나 불필요하게 성을 강조한 용어로 특정성에 대한 비하의 느낌을 줄 수 있어 암시적인 성차별 표현으로 볼 수 있음. 탈북한 남자에 대해서는 ‘탈북男’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탈북자’, ‘탈북남성’, ‘새터민’이라고 쓰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음
중앙일보	4월 23일	23면	잘 웃고 적극적인 아침형... 아이디어가 많은 저녁형	아침형, 저녁형 인재에 모두 남성 사진임. 
조선일보	4월 24일	A22	재즈가 꺼안은 국악, 궁금하시죠?	‘재즈 여제(女帝)’ 나윤선(46)이 국악 페스티벌 예술감독으로 돌아온다...는 기사의 첫 머리처럼 예술감독이란 위치의 중요성보다 남녀의 구분을 짓고 있음이 강조되어 보임.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차별적 내용/사진
				
		A34	비만기준	 비만의 영향에 관한 기사로 내용은 건강에 관한 기사인데 삽화가 여성의 모습으로 여성의 미를 강조한 기사처럼 보임.
경향 신문	4월 24일	31면	순수한 피를 더럽히지 마라 - 피에 대한 오해들	영화 <B형 남자친구>를 소개하는 글에서 ‘여대생’이라는 호칭이 사용됨.
		24면	영화 한마당	<반짝이는 박수소리> 소개글 중 딸이 아들보다 누나이지만 ‘아들과 딸’이라 기재함.
		17면	돌아온 선탠의 계절	 수영장 선탠 사진에서 비키니 입은 여성의 신체를 부각시킴.
경향 신문	4월 28일	26면	지소연 잉글랜드 축구‘올해의 여자선수상’	여성이 축구라는 항목에서 상을 받은 것을 보도하는 것은 좋지만 굳이 여자선수상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는 것은 성차별적이라고 판단됨. 남자선수에 관해 남자선수상이 아닌 올해의 선수상이라고 하는 것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차별적 내용/사진
문화 일보	4월 27일	18면	뒤태 패션	패션의 한 종류이긴 하지만 여자들의 뒤통노출에 있어 더 자극적이고 섹시하다는 키워드로 속옷의 형태를 교묘히 드러내는 패션을 유행같이 퍼뜨림. 여름이어서 옷이 짧아지는 것과 어느 정도의 노출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이렇게 과한 홍보는 여성의 노출조장으로 보이는 바 있음. 
조선 일보	4월 27일	A14	低학력,無職 여성 우울증 더 많이 경험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은 2010년에서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울증상을 분석하였는데 소득수준을 4단계로 나누었을 때 가장 낮은 집단에 속한 여성의 우울 경험율이 24.8%, 직업별로는 주부를 포함한 무직 여성의 우울 증상 경험이 17.1%로 가장 높았다고 분석함. 다만 여성의 우울치에 관련한 기사이나 무직에 주부를 포함한 점이 아쉬움. ‘직업별로 주부를 포함한 무직여성의 우울증상 경험률’이라는 표현은 주부의 가치를 경제성이나 효용 측면에서 배제하는 듯 이분법적인 분류가 아쉽고,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보여 아쉬운 기사임.
조선 일보	4월 27일	A14	어제 울진 31.7도 오늘도 더운 봄 26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물놀이 모습	 26일 경북 울진의 낮 최고 기온이 31.7도 가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차별적 내용/사진
				치솟은 것을 비롯해 강원도, 대구등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림. 다만 더위를 표현하기 위해 외국 여성이지만 비키니를 입은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어 아쉬움.
동아일보	4월 27일	A16	실종치매할머니 24시간만에 찾은 sns	경찰이 실종된 치매노인을 찾기 위해 페이스북으로 시민에게 요구했다는 내용인데 본문은 실종노인이라 하면서 제목을 치매할머니라고 한 것은 차별적 표현
동아일보	4월 27일	A16	해운대는 벌써 여름.... 대구 최고 31도 27일도 더워요	 전국 대부분이 초여름날씨를 기록한 가운데 해운대 앞바다에서 제트스키가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고 있다는 기사인데 비키니차림의 여성이 누워있는 모습을 굳이 카메라각도에 넣어야 하는지. 뒷모습을 보이면 서있는 남성과는 대조적이고 인위적 연출의 모습이 보임.
동아일보	4월 27일	B4	아빠 이런 자전거 사주세요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제10회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물 체험에서 아빠만 자전거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음. 

신문 보고서(5월)

I. 모니터 개요

- 모니터 장르 : 신문
- 모니터링 기간 : 2015년 5월 6일 ~ 15일
- 모니터링 대상매체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II. 내용 분석

1) 양적분석

- 총 보도 수 대비 여성관련 보도 수

신문	총 보도 수	여성 관련 보도 수	총 보도 수 중 여성 관련 보도 수 비율
조선일보	235	24	10.2%
중앙일보	165	2	1.2%
동아일보	170	8	4.7%
경향신문	200	14	7%
한겨레	183	5	2.7%

- 외부기고가 중 여성 기고가의 수

신문	외부기고가 총 인원	남성	여성
조선일보	14	13(92.8%)	1(7.2%)
중앙일보	17	14(82.4%)	3(17.6%)
동아일보	7	5(71.5%)	2(28.5%)
경향신문	15	13(86.6%)	2(13.4%)
한겨레	16	13(81.2%)	3(18.8%)

2) 질적분석

- 성평등적 내용

(1)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남녀의 차별 없는 사회진출 독려

〈K뷰티 대박 만든 건 한국여성의 섬세함〉(조선일보, 5월 12일)에서는 국내 화장품의 여성

인력 비율이 60%이며 유연한 조직문화를 보이는 아모레퍼시픽 그룹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 그룹에서는 지난 1월에 권금주 에뛰드 대표가 그룹 최초의 여성 CEO로 발탁되었고 내부에서는 선구적으로 사장, 팀장, 부장의 모든 직위를 없앴으며 본사에 어린이집을 세워 일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키운 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화장품업계의 생산과 소비, 시스템의 탄력성을 바탕으로 여성의 힘과 아이디어가 모든 영역에 발휘되어 대박의 신화를 이루는 주춧돌이 되었다는 기사로 여성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유용한 기사였다.



〈K뷰티 대박 만든 건 한국여성의 섬세함〉(조선일보, 5월 12일)

〈구글 캠퍼스 서울, 구성원 다양〉 메리 그로브 구글 총괄(조선일보, 5월 12일)에서는 구글이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 창립한 구글 캠퍼스 서울의 메리 그로브 총괄이 창업은 기술자나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며 구글이 펼치는 사업이 중장년층과 엄마를 위한 프로그램임을 밝혔다. 따라서 누구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구글 캠퍼스로 올 것을 독려하며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면서 성공한 여성의 전형을 보여주어 남녀의 차별 없는 사회진출을 독려한 기사였다.

(2)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관심기사

〈코웨이 등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적극 지원〉(경향신문, 5월 14일)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경력단절 여성을 돕는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소개하였다. 사례로 코웨이의 ‘리엔케이’, 로레알코리아의 ‘워킹맘, 두 번째 아름다운 선택’ 등이 소개되었다. 또한 같은 날 〈환경 가전 서비스 전문가 ‘코디’ ... 86%가 여성〉이라는 기사를 소개하며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적합한 직종으로 코웨이의 코디와 결혼정보회사의 커플매니저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상세한 정보를 제시한 면에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킨 내용이었다.

(3) 성평등적 표현

〈“성용 오빠가 힘내라고 소고기 사줬어요”〉(경향신문, 5월 14일)에서는 여자 축구 국가대표

지소연의 기사 중 언급된 기성용을 ‘축구 대표팀’이 아닌 ‘남자 축구 대표팀’이라 명칭함으로써, ‘축구 대표팀’이라는 표현이 남성과 여성을 모두 아우르는 용어임을 암시했다는 면에서 성평등적 의식을 갖춘 표현으로 꼽혔다.

□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

〈해병대 부자의 군장체험, 해병대 연인의 ‘고무신 서약’〉(조선일보, 5월 12일)에서는 경북 포항 해병대 교육단에서 열린 입영 문화제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군장체험과 장정의 여자친구 2명이 ‘남자친구 전역까지 기다리겠다’는 고무신 서약 장면을 기사화 하였다. 입영에 용기와 자부심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여성에게 남성을 기다리며 순종을 맹세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내재된 모습이 보여 다소 아쉽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병대 부자의 군장체험, 해병대 연인의 ‘고무신 서약’〉(조선일보, 5월 12일)

〈“어머님 보고 싶었어요”〉(동아일보, 5월 8일)에서는 육군 부대에서 남자병사가 부모님께 큰절을 올리는 사진을 게재하였다. 여군도 국방에 한 몫을 하고 있는 요즘 어버이날에 남자사병의 사진만을 게재한 것은 급변하는 현실에 대한 파악이 미흡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어머님 보고 싶었어요”〉(동아일보, 5월 8일)

〈아내까지 동원하며 진실게임 벌이는 남편들〉(조선일보, 5월 12일)에서는 홍준표 지사가 2011년 경선 당시 선거 기탁금 1억 2000만원은 아내의 비자금이라고 멘트하였음을 보도하였고,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아내가 모는 차타고 국회에 가서 1억 전달했다”라며 서로 난타전을 벌였음을 기사화 하였다. 사회적 권력을 가진 지도층 인사가 아내까지 동원하여 자기변명과 죄를 덮으려는 행위는 여성을 부속물로 여기는 근대적인 모습을 투영하며 부정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내용으로 지적되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미술관 속 아수라장〉(동아일보, 5월 6일)에서는 조각 작품 위에 아이 앉히고 사진 찍는 관객에게 만류하는 직원에 대해, 항의하며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나가는 삽화가 실렸다. 이 삽화는 마치 모든 여성이 아이와 교양 없는 행위를 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하는 성차별 삽화로 보였으며, 보도 내용뿐만 아니라 삽화에서도 성역할 고정관념의 극복이 필요함을 과제로 남겼다.

(2) 여성의 성상품화

〈동서를 다 받아준 ‘4색 바다’〉(경향신문, 5월 14일)에서는 터키의 파묵칼레 온천에 누워 일광욕을 즐기는 여행객들을 담은 사진에 비키니 입은 여성 두 명만 등장하였다. 특별히 여성과 관련된 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출된 신체만 사진으로 담았다는 면에서 문제로 지적되었다.



〈동서를 다 받아준 ‘4색 바다’〉(경향신문, 5월 14일)

〈커피 드시고 여행 가세요〉(경향신문, 5월 14일) 기사에서는 동서식품의 경품응모행사 소개 사진에서 세 명의 여성이 제품을 홍보하고 있는 사진이 실렸다. 이 사진 상에서 행사나 제품이 특정 성별에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만을 모델로 채용한 점이 문제시되었고, 〈애플망고 넣은 빙수 나왔어요〉(동아일보, 5월 6일)에서는 디저트 전문 프랜차이즈 설빙의 애플망고를 넣은 빙수 등 신상품 소개를 하면서 여성 모델만을 기용한 사진이 게재되었다. 커피와 빙수는 남녀의 구분 없이 즐기는 식음료임에도 불구하고 신제품과 계절상품 소개 등에 예쁜 여성 모델의 얼굴만 확대한 채 실어, 상품보다는 여성의 외모를 부각시키고 성상품화를 조

장하였다는 면에서 시급한 의식 개선이 필요해보였다.



〈커피 드시고 여행 가세요〉(경향신문, 5월 14일)

■ 성평등적 내용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사진
조선 일보	5월 12일	B1	K뷰티 대박 만든 건 한국여성의 섬세함	국내 화장품의 여성인력 비율이 60%이며 유연한 조직문화를 보임. 지난 1월에는 권금주 에뛰드 대표가 아모레퍼시픽그룹 최초의 여성 CEO로 발탁됨. 내부에선 선구적으로 사장, 팀장, 부장의 모든 직위를 없앴으며 본사에 어린이집을 세워 일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키움. 국내 화장품업계의 생산과 소비, 시스템의 탄력성을 바탕으로 여성의 힘과 아이디어가 모든 영역에 발휘되어 대박의 신화를 이루는 주춧돌이 되었다는 기사라 유용함 
조선 일보	5월 12일	B2	‘구글 캠퍼스 서울, 구성원 다양’ 메리 그로브 구글 총괄	구글이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 창립한 구글 캠퍼스 서울의 메리 그로브 총괄은 “창업은 기술자나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다.”며 구글이 펼치는 이 사업은 중장년층과 엄마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누구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구글 캠퍼스로 오세요”라며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사진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의 모습과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며 성공한 여성의 전형을 보여주어 유용함.  매리 그로브 창업가지원 총괄
조선 일보	5월 12일	D6	창간 5주년 특별 좌담회	 강학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부장 비영리단체의 기부금 운용 이해 기부 관련 법·제도 통합정리 시급  배정식 하나은행 신탁부 상속신탁팀장 부동산·주식 등 비현금성 자산 전문적인 컨설팅으로 관리  김현아 아름다운재단 나눔사업국장 기부 효과성 관심 커진 자산가 비영리 투명성만큼 전문성 중요  김성기 삼성패밀리오피스 센터장 고액자산가에게 몰도넬 보이어가 장래적 기부자 이끌어 낼 수 있어  이상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영 유산 10% 기부시 상속세 감면 한국서도 세금 공제 혜택 필요  안재란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장 기부하고 연금도 받는 '기부연금제' 나눔기본법으로 민간협력 이끌어  백한희 더나은미래 편집장 기부금 10조 시대 남은 한국 기부·금융 결합한 상품 다양화해야  최일밀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기부는 일개, 윤영은 투명하게 공익신탁으로 기부 활성화할 것 ‘기부의 미래를 말한다’라는 좌담회로 8명의 토 론자 중 3명의 여성이 참석한 특별 좌담회임. 초고액 기부시대를 맞이하여 학계, 정부, 비영리 단체, 금융기관 등의 전문가가 참석한 좌담회에 서 다양한 기부형태와 협력, 제도개선 등의 논의 가 이뤄짐. 싱글여성과 기업 CEO의 기부문제도 많은데 수십 억 원대 아파트를 사후 개도국 어 린이들에게 기증하겠다는 여성분을 월드비전과 연계해 유언대용신탁을 체결하고 특히 아모레퍼 시픽 창업주인 고 서성환 가족으로 주식을 기부 받아 250명의 여성가장이 가게를 연 사례는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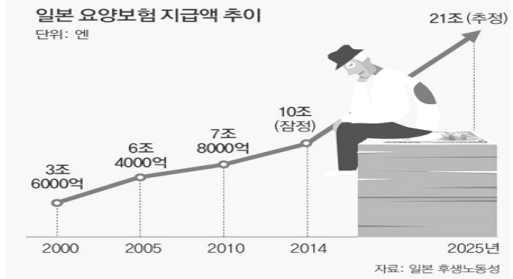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사진
				정적인 사례임. 기부의 영역에서도 여성의 참여 확대가 긍정적임
조선 일보	5월 12일	D8	창간 5주년 기부왕 10인이 말한다	송경애 S.M C&C사장은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처럼 졸업식, 성년식, 생일 등 특별한 날마다 기부하는 여성으로 불려짐. 2011년 여성 CEO최초로 1억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고 그해 포브스에서 선정한 아시아 기부 영웅 48명에 오름. 나눔과 기부에 여성의 약진과 사회공헌과 지속성,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는 방향성, 실천가로서의 여성 CEO의 모습이라 유용한 기사임. 
동아 일보	5월 8일	A16	유관순 ‘바다의 수호신’으로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214급 잠수함 6번함인 유관순 함 진수식이 열렸음. 다양한 기능을 갖춘 잠수함에 독립운동을 한 유관순 열사의 이름을 붙인 것이 자랑스러움. 
동아 일보	5월 6일	A18	우주에서 마시는 에스프레소커피	이탈리아 최초의 여성 우주인 사만타 크리스토포레티가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에스프레소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사진
				커피를 마시고 있는 사진으로 제목만으로는 남녀의 성차별이 없음 
경향신문	5월 14일	18	코웨이 등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적극 지원	여성의 사회진출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경력단절 여성을 돕는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소개함. 이러한 것들에는 코웨이의 ‘리엔케이’, 로레알코리아의 ‘워킹담, 두 번째 아름다운 선택’ 등이 있음.
경향신문	5월 14일	18	환경가전 서비스 전문가 ‘코디’ … 86%가 여성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적합한 직종을 소개함. 코웨이의 코디와 결혼정보회사의 커플매니저 등이 있음.
경향신문	5월 14일	24	남자들의 쿡방 학교 급식 어때요?	최근 방송에서 남성들의 ‘쿡방’이 대세임을 소개하고, 현실에서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게 요리를 하기를 권유함.
경향신문	5월 14일	26	“성용 오빠가 힘내라고 소고기 사줬어요”	여자 축구 국가대표 지소연의 기사 중 언급된 기성용을 ‘남자 축구 대표팀’이라 명칭함으로써, ‘축구 대표팀’이라는 표현이 남성과 여성을 모두 아우르는 말임을 암시함.
한겨레	5월 9일	10	“철조망 때문에 강원도 해녀들이 힘들드래요”	강원도 해녀들이 낚은 환경에서도 물질을 계속하는 모습을 소개함으로써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줌.

■ 성차별적 내용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차별적 내용/사진
조선일보	5월 9일	A14	‘축구광’ 20살 女大生, 노동당 거물 꺾었다.	 최연소 하원의원이 당선된 기사에서 동일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차별적 내용/사진
				한 신문의 하원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스무살의 여대생’ 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린학생을 염려하기보다 여대생임을 강조하는 내용 이므로 성차별적 타이틀로 보여짐
조선일보	5월 12일	A8	아내까지 동원하며 진실게임 벌이는 남편들	홍준표 지사는 2011년 경선당신 선거 기탁금 1억 2000만원은 아내의 비지금이라고 멘트함. 또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아내가 모는 차타고 국회에 가 1억 전달했다’라며 난타전을 벌임. 사회적 권력을 가진 지도층 인사가 아내까지 동원하여 자기변명과 죄를 덮으려는 행위는 여성을 부속물로 여기는 근대적인 모습을 투영하며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내용임
조선일보	5월 12일	A10	해병대 부자의 군장체험, 해병대 연인의 ‘고무신 서약’	경북 포항 해병대 교육단에서 열린 입영 문화제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군장체험과 장정의 여자친구 2명이 ‘남자친구 제대까지 기다리겠다’는 고무신 서약 장면임. 입영에 용기와 자부심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여성에게 남성을 기다리며 순종을 맹세하는 모습으로 보여 다소 아쉬움 부자간의 제명과 연인의 제명도 이분법적인 제명으로 보여 다소 아쉬움.한쪽은 씩씩하며 한쪽은 순종적인 제명으로 보임 해병대 연인의 고무신 서약 해병대 부자의 군장체험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차별적 내용/사진
동아일보	5월 8일	A12	“어머님 보고 싶었어요”	육군 부대에서 남자병사가 부모님께 큰절을 올리는 사진을 게재. 여군도 국방에 한몫을 하고 있는 요즘 아버지 날에 남자 사병의 사진을 게재 한건 급변하는 현실을 파악 못한 기자의 실수로 보임 
동아일보	5월 6일	A2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미술관속 아수라장	조각작품 위에 아이 앉히고 사진 찍는 관객에게 만류하는 직원에 대항, 항의하며 아이 손 잡고 나가는 삽화는 기사내용대로 여성이 아이 손잡고 나가는 삽화이나 마치 모든 여성이 아이와 교양없는 행위를 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성차별 삽화 
동아일보	5월 6일	A5	〈과잉복지신음하는 일본〉 끈질긴 무상복지의 유혹 -일본 요양보험지급액 추이	일본 요양보험 지급액 추이 단위: 엔  일본 후생노동성의 삽화를 그대로 옮겨왔다 하더라도 삽화를 보면 일본은 남성 노인에게만 요양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음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차별적 내용/사진
동아일보	5월 6일	A23	애플망고 넣은 빙수 나왔어요	 디저트 전문 프랜차이즈 설빙의 애플망고를 넣은 빙수 등 신상품 소개를 하면서 여성의 사진을 넣음. 신제품, 계절상품소개 등에 예쁜 여성의 얼굴만 확대해서 넣는 것은 성차별임
경향신문	5월 14일	12	법조 명문가 '잘나가던 검사' '돌연 사직'에 루머 급속 확산	검사가 돌연 사직한 이유로 예측되는 것 중 하나가 후배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것임. 이를 기술할 때 후배 여성 검사를 '여검사'라고 지칭함. 특정 직업명 앞에 '여'를 붙이는 것은 성불평등적 표현임.
경향신문	5월 14일	17	동서를 다 받아준 '4색 바다'	터키의 파묵칼레 온천에 누워 일광욕을 즐기는 여행객들을 담은 사진에 비키니 입은 여성 두 명만 등장함. 특별히 여성과 관련된 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출된 신체만 사진으로 담음.  파묵칼레 온천에 누워 일광욕을 즐기는 여행객들. 아래로 공한 호수가 내려다보인다.
경향신문	5월 14일	19	커피 드시고 여행 가세요	동서식품의 경품응모행사 소개 사진에서 세 명의 여성이 제품을 홍보하고 있음. 행사나 제품이 특정 성별에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만을 모델로 채용함. 

신문 보고서(6월)

I. 모니터 개요

- 모니터링 장르 : 신문
- 모니터링 기간 : 2015년 6월 1일 ~ 14일
- 모니터링 대상매체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문화일보

II. 내용 분석

1) 양적분석

- 총 보도 수 대비 여성 관련 보도 수

신문	총 보도 수	여성 관련 보도 수	총 보도 수 중 여성 관련 보도 수 비율
조선일보	208	4	1.9%
중앙일보	158	5	3.1%
동아일보	212	12	5.6%
경향신문	196	7	3.5%
한겨레	217	13	5.9%
문화일보	270	8	2.9%
계	1,261	49	3.9%

- 외부 기고가 중 여성 기고가의 수

신문	외부기고가 총 인원	남성	여성
조선일보	18	9(50%)	9(50%)
중앙일보	12	12(100%)	0(0%)
동아일보	25	23(92%)	2(8%)
경향신문	8	8(100%)	0(0%)
한겨레	10	7(70%)	3(30%)
문화일보	14	10(71%)	4(29%)
계	87	69(79%)	18(21%)

2) 질적 분석

모니터링 기간 동안 메르스(MERS) 여파로 인해 보도내용 전반이 메르스 관련 내용으로 채워져 여성 관련 이슈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꼭 다뤄져야 할 내용들이 기사화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다.

□ 성평등적 내용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한 기사로는 〈초등학교 유쾌한 바짓바람… 아빠들의 ‘洞아리’〉(동아일보, 6월1일)를 들 수 있다. 육아-학업 중심의 ‘어머니회’와 달리 아버지회에서는 자녀들과의 캠핑 등 야외활동에 집중하고 회원들끼리 의기투합하여 ‘직장체험’ 행사도 열고 있음을 기사화하였다. 그동안 자녀교육은 엄마가 전담하는 것으로 비춰졌던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자녀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빠의 모습을 통해 자녀교육에 있어 양성의 공동참여가 돋보이는 기사였다.



〈초등학교 유쾌한 바짓바람… 아빠들의 ‘洞아리’〉(동아일보, 6월 1일)

〈암극복 미국 92세 할머니 마라톤 최고령 완주〉(경향신문, 6월 2일)에는 암을 이겨낸 90대 여성이 최고령으로 마라톤 완주 기록을 세웠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구강암 앓은 전력과 한 쪽 다리에 포도상구균감염증을 앓는 상황에서도 백혈병과 림프종 환자를 위한 모금 마라톤에 참여하여 완주했다는 내용은 스포츠분야에서 여성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기사였다.



〈암극복 미국 92세 할머니 마라톤 최고령 완주〉(경향신문, 6월 2일)

□ 성차별적 내용

○ 사진이나 삽화 속에서 여성의 이미지 왜곡

〈감염확산 막으려면 2009년 신종플루 때처럼 병원 정보 공개해야〉(조선일보, 6월5일) 기사에서는 이종구 서울대 의대 글로벌의학센터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방역 당국이 메르스 환자가 나온 병원명을 공개하고 질병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 기사에 덧붙인 지하철 내부를 청소·소독하고 있는 사진은 여성청소원에만 크게 초점을 맞추므로 여성이 지위가 청소 노동자에 근무하고 있음을 부각시켜 직업적 성차별을 드러낸 사례로 꼽혔다.



〈감염확산 막으려면 2009년 신종플루 때처럼 병원 정보 공개해야〉(조선일보, 6월5일)

〈택시 오른쪽 뒷좌석〉(조선일보, 6월5일) 기사의 경우, 사람들이 주로 택시 오른쪽 뒷좌석에 승차하는 관계로 의자가 꺼진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 회사에서 의자 쿠션을 보강해 꺼지지 않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담은 기사였다.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여성만은 아님에도, 삽화에 보기 흉한 얼굴로 다리를 접어올린 불편한 자세의 여성을 삽입함으로써 여성의 이미지를 왜곡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해보였다.



〈택시 오른쪽 뒷좌석〉(조선일보, 6월5일)

○ 양성평등 위배 발언 그대로 담은 인터뷰 기사

〈한식 세계화하려면 조리법, 자격증, 까다롭게 지켜야〉(한겨레, 6월 11일)는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는 ‘한식대첩’의 음식평론가 심영순 씨를 다루고 있다. ‘한식대첩’에서 팔도 요리사들에게 촌철살인의 요리평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그의 삶과 엄격한 어머니 밑에서 전국 맛집을 돌며 홀로 공부해 재벌가 옥수동 선생님이로 정평이 난 그의 삶을 기사에 담았다.

전통요리인 한식에 대한 곧은 견해와 음식에 대한 정성적 측면은 돋보였으나, ‘요즘 주부들은 요리를 귀찮아 한다’. ‘아침밥 대신 빵 주는 주부는 자격 없다’ 는 말을 서슴없이 하였고 기사 역시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일·가정 양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대여성의 삶을 고려하지 않고 ‘가정에서 요리의 주체는 곧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을 드러냈으며, 1인 독신가구의 증가라는 시대적 변화를 간과한 발언을 그대로 담은 언론사의 인식에 문제제기가 필요해 보인다.

〈당구 여신 차유람 스타작가 이지성 부부 된다〉(경향신문, 6월 2일)에서는 여성에게만 ‘여신’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여 외모를 부각시키고 있어 여성은 외모가 아름다워야 인정을 받는다는 성차별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 성평등적 내용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사진
동아일보	6월 1일	A12	초등교 유쾌한 바짓바람... 아빠들의 ‘洞아리’	육아-학업 중심의 ‘어머니회’와 달리 자녀들과 캠핑 등 야외활동에 집중, 회원들끼리 의기투합하여 ‘직장체험’ 행사도 열고 있음. 지금까지 자녀교육은 엄마 담당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자녀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적극적인 아빠의 모습을 그려 미래지향적임. 
한겨레	6월 11일	13	중국 간 수치, 인권문제 말할까	아웅산 수치가 류샤오보 감금을 비롯한 중국의 인권상황에 입을 열 것인가를 다룬 기사임. 인권에 대한 수치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우려를 담은 기사이기는 하나, 노벨평화상을 받은 민주화의 상징이자 총선과 대선의 판도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사진
				를 좌우할 유력한 야당 지도자로 언급한 기사의 논조는 능력 중심으로 여성정치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차별화되고 유용한 기사로 보임. 
경향신문	6월 2일	23	암극복 미국 92세 할머니 마라톤 최고령 완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로큰롤 마라톤대회에 최고령 완주를 기록한 해리엇 톰슨을 다룬 기사임. 스포츠 분야에서 여성의 능력을 보여주어 성평등적임 

□ 성차별적 내용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차별적 내용/사진
조선일보	6월 5일	A6	감염확산 막으려면 2009년 신종플루 때처럼 병원 정보 공개해야	지하철 속 기물 청소 중 여성청소원에만 초점을 맞추므로 청소 노동자에 대한 직업적 성차별로 보임. 
조선일보	6월 5일	A21	택시 오른쪽	택시 오른쪽 뒷좌석 의자가 꺼지는 경우가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차별적 내용/사진
			뒷좌석	많아 자동차회사에서 의자 쿠션을 보강할 것을 제안하는 기사임. 삼화에 보기흉한 얼굴로 다리를 접어올린 이상한 자세의 여성을 그려, 여성에 대한 그릇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음. 
조선일보	6월 4일	B6	건강에 좋은 '퀴노아' 반값인 9900원에 팔아요	 건강에 좋은 '퀴노아', 반값인 9900원에 팔아요 3일 서울 중구 동대문로 서울역에서 코알라가 건강식품으로 불리는 퀴노아와 퀴노아로 만든 음식을 소개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4일부터 10일까지 유통 단계를 개선해 가격을 앞장한 '미국산 퀴노아 400g'을 기존 상품의 절반 수준 가격인 9900원에 판매한다.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마트의 세일 사진. 노출이 심한 옷을 착용한 모델을 부각시키고 있어 건강식품을 광고하여 소비자 건강을 돕겠다는 것인지 노출이 심한 모델의 판매로 눈길을 끌자는 것인지, 의도가 분명하지 않음. 여성의 외모를 상업적인 광고에 적극 이용하는 광고로 보여 성차별적임.
한겨레	6월 11일	27	한식 세계화하려면 조리법, 자격증, 까다롭게 지켜야	‘한식대첩’ 음식평론가 심영순 씨를 다룬 기사임. 한식대첩에서 팔도요리사들에게 촌철살인의 요리평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심영순씨의 한식에 대한 꿈은 견해와 음식에 대한 정성적 측면은 돋보이나 '요즘 주부들은 요리를 귀찮아 한다'는 역설을 담음. 이미 '아침밥 대신 빵 주는 주부는 자격 없다'는 말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는 심영순 씨 기사는 일·가정 양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대여성의 삶과 1인 독신가구의 증가라는 시대적 변화를 간과하였으며 '가정에서 요리를 하는 주체는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을 드러내어 다소 아쉬움.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차별적 내용/사진
				
경향신문	6월 2일	23	당구여신 차유람 스타작가 이지성 부부된다	여성에게만 ‘여신’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여 여성의 외모가 아름다워야 한다는 성차별적 인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

신문 보고서(7월)

I. 모니터 개요

- 모니터링 장르 : 신문
- 모니터링 기간 : 2015년 7월 1일 ~ 10일
- 모니터링 대상매체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문화일보

II. 내용 분석

1) 양적분석

- 총 보도 수 대비 여성 관련 보도 수

신문	총 보도 수	여성 관련 보도 수	총 보도 수 중 여성 관련 보도 수 비율
조선일보	211	20	9.47%
중앙일보	262	10	3.81%
동아일보	280	14	5.00%
경향신문	278	10	3.59%
한겨레	237	12	5.06%
문화일보	288	23	7.98%
계	1,556	89	5.71%

- 외부 기고가 중 여성 기고가의 수

신문	외부기고가 총 인원	남성	여성
조선일보	9	8(89%)	1(11%)
중앙일보	23	21(91%)	2(9%)
동아일보	16	11(69%)	5(31%)
경향신문	24	17(71%)	7(29%)
한겨레	30	29(97%)	1(3%)
문화일보	8	8(100%)	0(0%)
계	110	94(85%)	16(15%)

2) 질적 분석

□ 성평등적 내용

○ 사회 각계 여성들 사례 다수 소개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사회 각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성들의 사례가 다수 소개되어 고무적이었다. 한국 다이빙 첫 메달의 주인공 김나미 선수를 소개한 〈다이빙 눈물녀, 光州서 웃었다〉(조선일보, 7월 6일)에서는 여성 운동선수의 외모보다는 능력과 노력에 초점을 맞췄다. 〈서서히 발효하는 장처럼 깊은 마을 맛에 빠졌어요〉(한겨레, 7월 8일)에서는 여성 마을지원활동가 박혜연 씨를 소개했고, 〈겹겹 박은 누비에 옷칠 입혀 ‘명품 원단’ 개발했죠〉(한겨레, 7월 8일)에서는 경남공예대전에서 특선을 수상한 정숙희 씨를 소개하는 등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여성들의 사례를 다뤘다.



〈겹겹 박은 누비에 옷칠 입혀 ‘명품 원단’ 개발했죠〉(한겨레, 7월 8일)

이 외에도 〈조은희 서초구청장 - 김수영 양천구청장, 두 여성구청장 아동학대예방 협약〉(문화일보, 7월 7일)에서는 두 여성 구청장들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소개했고, 〈“온종일 소변-피만 봐요”... 도핑과의 전쟁 24시〉(동아일보, 7월 10일)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성 연구원들의 사진을 실어 인상적이었다.

여성들이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지향한 기사도 있었다. 〈여성, 하루 14분 더 일하고 18분 덜 쉰다〉(경향신문, 7월 3일)에서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소개하며 “남성보다 더 많이 일하고 여가생활이 적은 ‘슈퍼맘’의 고단한 삶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성차별적 내용

○ 여성의 신체가 부각된 이미지 남용

기사 주제와는 거리가 먼 여성의 사진을 삽입해 독자들의 시선을 끌려 했다는 비판을 받은 기사들이 많았다. 〈소시·씨스타·걸스데이 ... 태양보다 뜨겁다, 걸그룹 대전〉(중앙일보, 7월 9일)에서는 여성 가수들의 노출사진이 불필요하게 실려, 곡의 특성이나 가요계 동향 등 전문

적인 내용보다는 자극적인 이미지가 부각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소시·씨스타·걸스데이 … 태양보다 뜨겁다, 걸그룹 대전〉(중앙일보, 7월9일)

또한 〈올 여름엔 이렇게~〉(경향신문, 7월 6일)와 〈내 피부는 소중한니까〉(경향신문, 7월 9일)에서는 여성의 신체가 과도하게 부각된 사진이 실려, 아직까지 제품 홍보사진에서 여성의 이미지가 불필요하게 소비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올 여름엔 이렇게~〉(경향신문, 7월 6일)



〈내 피부는 소중한니까〉(경향신문, 7월 9일)

○ 성차별적 문제, 깊이 다루지 못해

성차별적인 내용을 다루면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웠던 기사들도 있었다. 〈‘꽃게 라면’ ‘애인 면회’... 코믹장면이 영화리듬감 살려〉(조선일보, 7월 2일)에서는 영화 ‘연평해전’의 희극 포인트 중 하나로 ‘애인면회’ 장면을 꼽았다. 이 장면은 여성의 외모를 희화함으로써 관객들의 웃음을 유도하는 성차별적인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애인이라곤 없는 박동혁에게 어떤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인의 뒤통이 심상치 않다. 하지만 돌아설 때 낙폭이 커진다. 개그맨 정주리다.”라고 설명한 데서 외모지상주의에 근거한 ‘웃음코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꽃게 라면’ ‘애인 면회’... 코믹장면이 영화리듬감 살려〉(조선일보, 7월 2일)

노인의 성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한 〈노인을 위한 性?...“외로움 달랠 길은 박카스 아줌마뿐”〉(문화일보, 7월 6일)에서도 성평등 차원적 논의는 부족했다. 기사 자체가 남성 노인의 성매매 문제에만 치중되었으며, 몸이 아픈 아내가 남편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사례를 다루면서도 성평등 차원에서의 문제제기는 이루어지지 않아 다소 아쉬웠다.

□ 성평등적 내용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사진
조선일보	7월 6일	A26	다이빙 눈물녀, 光州서 웃었다	 한국 선수단 다이빙 첫 메달의 주인공이 된 김나미 선수를 소개한 기사에서, 제목에 ‘눈물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다소 아쉬우나 기사 본문에서는 성에 관계없이 선수의 능력과 노력에 초점을 맞춰 성평등함. 또한 기존에는 여성 운동선수들의 사진에서 불필요하게 몸매가 부각되던 것과 달리 웃고 있는 표정을 클로즈업해 인상적임.
중앙일보	7월 3일	34	여초시대 - 여성 친화적 사회를 고민할 때다	인구 구성변화에 따라 여성인력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사설이 실림. 성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내용이어서 인상적임.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사진
	7월 3일	B2	여보세요 IT	 실리콘밸리의 ‘우먼파워’를 소개한 기사에서, 여성의 사회적 성공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 등 성차별이 지속됨을 지적함.
중앙일보	7월 6일	A16	SNS시대 미 대선 ‘셀카 딜레마’	 유권자들과 셀카를 찍는 정치인들에 관한 기사의 사진으로 남, 여 정치인들의 사진을 하나씩 실음. 이는 기존 매체에서 주로 남성 정치인만 대표적으로 실었던 점과 비교했을 때 성평등함.
동아일보	7월 10일	A23	“온종일 소변-피만 봐요”... 도핑과의 전쟁 24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원들을 소개한 기사에서, 과학 기술 분야에서는 주로 남성 위주로 보도됐던 것과는 달리 여성 연구원들의 사진을 실어 인상적임.
경향신문	7월 3일	13	여성, 하루 14분 더 일하고 18분 덜 쉰다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15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소개하며 “남성보다 더 많이 일하고 여가생활이 적은 ‘슈퍼맘’의 고단한 삶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함. 이는 성평등 문제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사진				
				의식을 환기시켜 바람직함. 한국인의 하루 생활시간(2014년) <table> <tr> <td> 여가생활시간 (교제문화스포츠 등) 여 4시간40분 남 4시간58분 </td> <td> 필수생활시간 (수면식사개인 유지 등) 여 11시간16분 남 11시간11분 </td> </tr> <tr> <td> 의무생활시간 (일가사노동학습이동 등) 여 8시간4분 남 7시간50분 </td> <td></td> </tr> </table>	여가생활시간 (교제문화스포츠 등) 여 4시간40분 남 4시간58분	필수생활시간 (수면식사개인 유지 등) 여 11시간16분 남 11시간11분	의무생활시간 (일가사노동학습이동 등) 여 8시간4분 남 7시간50분	
여가생활시간 (교제문화스포츠 등) 여 4시간40분 남 4시간58분	필수생활시간 (수면식사개인 유지 등) 여 11시간16분 남 11시간11분							
의무생활시간 (일가사노동학습이동 등) 여 8시간4분 남 7시간50분								
한겨레	7월 7일	19	금호 일가 ‘여성 경영참여 금지’ 합의도 금 가	형제만이 경영권을 맡았던 금호그룹에서,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의 딸이 상무로 선임 받아 경영에 참여하게 됐음을 설명하며 주체적인 여성의 경제활동을 소개함.				
	7월 8일	18	복숭아 철이 왔어요	 복숭아를 광고하는 사진에서, 일반적으로 젊은 여성들이 상품광고를 하던 데 반해 남녀 직원이 함께 등장해 인상적임.				
		20	서서히 발효하는 장처럼 깊은 마을 맛에 빠졌어요	 여성 마을지원활동가 박혜연 씨를 통해 주체적인 여성의 활동을 소개해 바람직함.				
		28	겉껍 박은 누비에 옷칠 입혀 ‘명품 원단’ 개발했죠	경남공예대전에서 특선을 수상한 정숙희 씨를 소개함으로써 여성이 주체적으로 활동한 사례를 제시함.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사진
				
문화일보	7월 7일	13	여성당이 만지고 도망간 男...꼼꼼한 여경에 '덜미'	‘여경’이라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한 점은 다소 아쉬우나, 여성 경찰이 기지와 대담함을 가지고 성추행범을 잡아낸 활약상을 소개해 인상적임.

□ 성차별적 내용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차별적 내용/사진
조선일보	7월 2일	A3	‘꽃게 라면’ ‘애인 면회’ ...코믹장면이 영화리듬감 살려	 영화 ‘연평해전’의 희극 포인트 3가지 중 하나로 ‘애인면회’ 장면을 꼽음. 이 장면은 여성의 외모를 희화화함으로써 관객들의 웃음을 유도하는 외모지상주의적이자 성차별적인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애인이라곤 없는 박동혁에게 어떤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인의 뒷태가 심상치 않다. 하지만 돌아설 때 낙폭이 커진다. 개그맨 정주리다.”라는 설명과 함께 비판의식 없이 실음.
		A29	U are special 섹시스타.암 극복 u대회 ‘특별한 선수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들을 소개한 기사 중 여성 허들 선수 미셸 제네커를 소개한 부분에서 부제목으로 ‘명품몸매로 남심 흔들어’를 싣고, “경기 전 워밍업으로 좌우로 허리를 흔들고 꺾충꺾충 뛰며 건강한 몸매를 뽐내어 유튜브로 화제가 되었다”고 설명하는 등 선수의 경기력보다는 외모로 평가해 다소 아쉬움.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차별적 내용/사진
중앙일보	7월 3일	29	미녀새 최예은 ‘얼굴 아닌 실력으로 뜰래요’	‘미녀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기사 제목 자체가 외모지상주의를 암시하고 있어 성차별적임.
	7월 9일	25	소시·씨스타·걸스 데이 … 태양보다 뜨겁다, 걸그룹 대전	 ‘걸그룹 대전’을 소개한 기사에서, 불필요하게 여성 가수들의 노출사진을 실음. 곡의 특성이나 가요계 동향 등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자극적인 사진을 내세워 시선을 끌려는 듯해 아쉬움.
동아일보	7월 1일	A16	빗속 수국.... 여심유혹	 제목을 굳이 ‘여심유혹’이라 붙인 데서 여성만이 꽃을 좋아한다는 고정관념이 드러남.
		B4	전세계 100대뿐인 伊시계가격은 ...1억2000만원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전시된 ‘루미노르 1950 투르비용’을 소개하는 사진에서, 본문과는 무관하게 굳이 여성의 얼굴을 클로즈업해 시계와 함께 찍음. 이는 여성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음.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차별적 내용/사진
경향신문	7월 6일	18	올 여름엔 이렇게~	 별 다른 내용 없이 ‘올 여름엔 이렇게~’라는 기사제목과 사진만 있는 기사에서, 여성 모델들이 수영복을 입고 있는 모습만 보여줌으로써 상품 홍보는 젊은 여성만 하는 기존의 관습을 답습함.
		19	엄마, 기저귀 입은 사진 올리면 선물	 아기가 기저귀 입은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페스티벌에 참가하면 선물을 준다는 내용의 기사에서, 제목을 ‘엄마, 기저귀 입은 사진 올리면 선물’로 선정해 육아는 여성만의 몫이라는 뉘앙스를 줌.
	7월 9일	19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피부제품을 홍보하는 모델들이 불필요하게 수영복을 입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노출이 부각됨.

신문 보고서(8월)

I. 모니터 개요

- 모니터 장르 : 신문
- 모니터링 기간 : 2015년 8월 1일 ~ 7일
- 모니터링 대상매체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문화일보

II. 내용 분석

1) 양적분석

- 총 보도 수 대비 여성관련 보도 수

신문	총 보도 수	여성 관련 보도 수	총 보도 수 중 여성 관련 보도수 비율
조선일보	181	20	11%
중앙일보	161	13	8%
동아일보	177	14	7%
경향신문	202	9	4%
한겨레	231	14	6%
문화일보	257	24	9%
합 계	1,209	94	8%

- 외부기고가 중 여성 기고가의 수

신문	외부기고가 총 인원	남성	여성
조선일보	18	15(83%)	3(17%)
중앙일보	15	13(87%)	2(13%)
동아일보	5	4(80%)	1(20%)
경향신문	17	14(82%)	3(18%)
한겨레	2	2(100%)	0(0%)
문화일보	9	8(89%)	1(11%)
합 계	66	56(85%)	10(15%)

2) 질적분석

□ 성평등적 내용

○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담아내

중앙일보(8월6일)에서는 <긴즈버그 “남성에 대한 차별도 걷어내야 진정한 양성평등”>이라는 헤드라인으로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 인터뷰를 통해 “평등을 이루려면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 대한 차별적 장벽까지 걷어내야 한다”고 말하며 “진정한 양성평등은 양성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해주자는 것”임을 분명히 하여 여성우대로 오인되고 있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내용을 담았다.



<긴즈버그 “남성에 대한 차별도 걷어내야 진정한 양성평등”>(중앙일보)

또한 중앙일보(8월7일)는 <딸의 부모 부양능력, 아들의 절반만 인정, 양성평등, 못 따라가는 복지 제도 수두룩>에서 국민연금과 부모 부양능력에 여성 차별 조항과 남성 차별 조항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여성차별조항으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이혼을 하면 여성이 연금을 분할받을 수 없다는 점, 국민연금은 직장생활하며 보험료 내다가 결혼해 전업 주부가 된 446만 명의 여성이 국민연금 대상서 제외된 점 그리고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여성이 재혼을 하면 없어진다는 점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한편, 남성차별조항으로는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이 500만원이 안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료 책정을 위한 소득 추정시, 20~29세 남성의 경우 9,968원으로 같은 연령 여성 7,832원보다 2,136원이 많음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또한 기초 수급자 대상을 선정함에 아들의 부양비의 절반만 딸에게 부양비로 계정하기에 아들을 둔 부모가 기초수급자 되기가 딸을 둔 부모보다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이는 딸이 ‘출가외인’이란 전통적 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예전부터 내려오던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성차별적 내용

○ 성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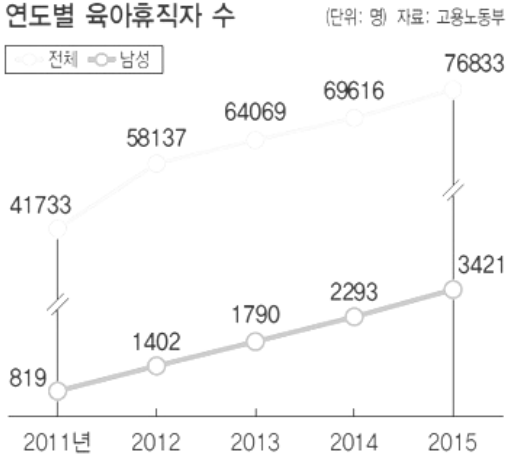
▲ 일러스트 = 전용훈 기자 jeon@
〈수업 중 제자 가슴 만지고… 교수가 남학생 나체 촬영도…〉(문화일보)

문화일보(8월4일) 〈수업 중 제자 가슴 만지고… 교수가 남학생 나체 촬영도…〉에서는 성폭력이나 성추행 등의 잘못된 행동을 표현하는 삽화로 남성이 성폭력 가해자로 그려지고 있었다. 성폭력과 관련된 삽화는 통상적으로 여성이 주로 피해자이며 남성은 가해자로만 그려져 성폭력에 대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은 이성간의 상황이 아니라 동성이나 노소(老少) 등의 사이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삽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성평등적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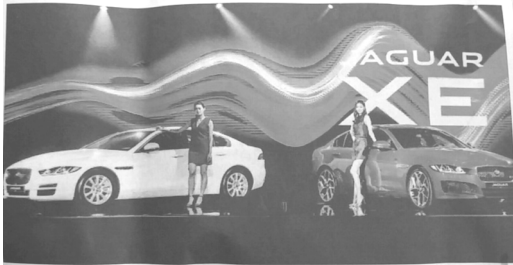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사진
조선일보	8월 5일	A16	‘조선족 그녀 중국군 되다’	 〈미사일 전문가 리첸위… 통신병으로 출발 소장 진급〉 중국군 최초 조선족 출신의 여성소장이 탄생하였는데 중국 명문 베이징대 석사 출신으로 “당신 같은 젊은 인재가 제 2포병군에 일하면 훨씬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입대를 결심한 그녀는 제2포병의 미사일 전문가로 성장함. 소수민족인 조선족 여성이 중국군에서 별을 달았다는 건 그만큼 그녀의 노력과 능력이 뒷받침됐다는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사진
				것으로 영역의 구분 없이 능력에 따른 성공을 다룬 기사로 유용함
중앙일보	8월 6일	8	긴즈버그 “남성에 대한 차별도 견어내야 진정한 양성평등”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 인터뷰를 통해 “진정한 양성평등은 양성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 되도록 해주자는 것”이라는 인터뷰를 통해 여성우대로 오인되고 있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함 
중앙일보	8월 7일	10	딸의 부모 부양능력, 아들의 절반만 인정, 양성평등, 못 따라가는 복지 제도 수두룩	국민 연금과 부모 부양능력에 여성 차별 조항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양성평등에 역행하는 복지 제도라고 비판하여 양성평등적 내용을 담았음
동아일보	8월24일	A24	무승부다 하는 순간 ... 일 골망이 출렁였다	 주장 조소현, 후반 9분 동점골 이어 전기를 추가 시간 극적 프리킥 결승골, 강호 일본에 2-1 역전승... 2연승 질주등의 부제와 함께 축구가 남성의 영역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성별 구분 없이 기사 제목을 활용한 점에서 성평등적 시각이 나타났음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사진																		
한겨레	8월5일	18	[포토]추어탕 간편식	 4일 오전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삼복더위를 맞아 남원시와 공동 개발한 남원 추어탕을 선보이고 있음. 보통의 젊은 여성들이 상품을 선전하는 광고를 탈피하고 양성 직원이 함께 선전하여 양성평등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한겨레	8월5일	A10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육아휴직 급여...막노동하 기도	연도별 육아휴직자 수 (단위: 명) 자료: 고용노동부 전체 남성 <table><thead><tr><th>연도</th><th>전체</th><th>남성</th></tr></thead><tbody><tr><td>2011년</td><td>41733</td><td>819</td></tr><tr><td>2012</td><td>58137</td><td>1402</td></tr><tr><td>2013</td><td>64069</td><td>1790</td></tr><tr><td>2014</td><td>69616</td><td>2293</td></tr><tr><td>2015</td><td>76833</td><td>3421</td></tr></tbody></table> 서울고등법원이 3일 육아휴직 급여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일당을 번 남성 노동자한테 휴직급여를 반납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현실화해 실질적인 생계보전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2014년 10월부터 맞벌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한테는 첫 달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아빠의 달’이 시행되고 있음. 이는 거의 대부분의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아빠라는 사실을 알려줌. 연도별 육아 휴직자 수를 보면 전체에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011년 2%에서 2015년 4.5%로 증가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현저히 낮음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긍정적임	연도	전체	남성	2011년	41733	819	2012	58137	1402	2013	64069	1790	2014	69616	2293	2015	76833	3421
연도	전체	남성																				
2011년	41733	819																				
2012	58137	1402																				
2013	64069	1790																				
2014	69616	2293																				
2015	76833	3421																				

□ 성차별적 내용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차별적 내용/사진
조선 일보	8월5일	B2	‘증권사 첫 PB사관학교’독 하게 ‘프로’기른다	지난달 29일 과천 KDB대우증권 연수원. PB후보 생 14명은 4월부터 입교해 지옥훈련을 받고 있 음. 시황발표, 상담, 현장실습 등 하루 3~4시간 자며 과제물을 챙기며 빡빡한 일정을 보내고 있 음. 한편 여성 교육생 구민경 씨는 ‘입교 후 수면 부족으로 피부가 많이 상했는데 피부관리는 커녕 미용실도 한번 못 갔다’며 인터뷰가 이뤄짐. 전문 성을 갖춘 프로로 훈련받는 상황에서 업무능력이 나 마인드의 내용보다 외모적인 멘트가 이뤄지고 대화내용이 삽입되어 다소 아쉬움  〈PB사관학교 교육생들의 교육모습〉
조선 일보	8월5일	A27	‘이영애의 남자’ 된 송승헌	드라마 ‘사임당의 양성 주연 맡아 이영애의 12년 만의 드라마 복귀작에 송승헌이 합류한 기사를 다룸. 다만 ‘ ~의 남자,~의 여자’라는 제명은 여 성이나 남성을 단순 보조나 부속물처럼 보이도록 하여 다소 아쉬움. 동등한 역할을 담은 제명이 좀 더 바람직해 보임
동아 일보	8월5일	A24	금메달10개...한 국, 4회 연속 ‘톱10’도전-개막 1년 앞으로 다가온 리우올림픽... 야망	205개국서 선수 1만500명 참가, 양학선 2연패- 손연재 첫 메달 관심... 볼트, 사상 첫 3연속 3관 왕, 육상 남자 100m, 200m 세계기록 보유자인 ‘번개’ 우사인 볼트(자메이카)는 육상 단거리 사 상 초유의 ‘올림픽 3연속 3관왕’에 도전한다. 앞 선 올림픽에서 두 차례 정상에 올랐던 여성 장대 높이뛰기의 ‘미녀새’ 엘레나 이신바예바(러시아) 의 올림픽 세 번째 금메달 도전도 관심사 라는 기사 내용에서 여전히 여성의 미모를 앞세운 ‘미 녀새’라는 표현을 사용함. 운동선수 고유의 영역 보다는 외모를 우선시하여 외모지상주의를 강조 하는 성차별적 내용임
경향	8월7일	16면	새 재규어XE	‘재규어XE 미디어 출시 행사’관련한 다양한 사진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차별적 내용/사진
신문			출시	들 중에서 날씬한 여성 모델들만 등장하는 사진을 실은 것은 여성의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여 성차별적임  새 JaguarXE 출시 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JaguarXE 미디어 출시 행사'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1. 연합뉴스
한겨레	8월5일	9	대법관 후보 강형주·성낙송· 이기택 추천...‘판사 일색’	 왼쪽부터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성낙송 수원지법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다음달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 후보로 위 세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함. 양 대법원장은 곧 최종 후보자 1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임.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여론을 외면함. ‘50대-남성-서울대법대’라는 기존의 대법관 임명 ‘공식’을 벗어나지 못함. 국민의 절반이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으로 볼 때 대법관의 후보에 여성이 없는 것은 우리사회의 심각한 성불평등을 보여줌
문화일보	8월4일	8	수업 중 제자 가슴 만지고... 교수가 남학생 나체 촬영도...	 ▲ 일러스트 = 안영준 기사 jeon@ 성범죄 관련 기사에서 삽화로서 남성과 여성의 모습을 삽입함. 성범죄는 남성과 여성 간 뿐만 아니라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간에도 발생할 수 있음을 반영하지 못해 다소 아쉬움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차별적 내용/사진
문화 일보	8월6일	14면	경청	 입시를 맞는 부모들을 위한 대입설명회에 참석한 엄마들의 사진을 보면서 입시는 엄마가 책임지는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생길 수 있어 성차별 사 hangim

신문 보고서(9월)

I. 모니터 개요

- 모니터 장르 : 신문
- 모니터링 기간 : 2015년 9월 1일 ~ 12일
- 모니터링 대상매체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문화일보

II 내용 분석

1. 양적 분석

- 총 보도 수 대비 여성관련 보도 수

신문	총 보도 수	여성 관련 보도 수	총 보도 수 중 여성 관련 보도수 비율
조선일보	233	9	3.86 %
중앙일보	177	7	3.95 %
동아일보	168	15	8.92 %
경향신문	163	6	3.68 %
한겨레	184	11	5.97 %
문화일보	239	8	3.34 %

- 외부기고가 중 여성 기고가의 수

신문	외부기고가 총 인원	남성	여성
조선일보	24	20(83%)	4(16%)
중앙일보	26	14(53%)	2(76%)
동아일보	16	11(68%)	5(31%)
경향신문	6	5(83%)	1(16%)
한겨레	18	16(88%)	2(11%)
문화일보	19	16(84%)	3(15%)

2. 질적 분석

□ 성평등적 내용

1) 한 사람의 고정된 역할이 아닌 가족의 역할로



〈치매환자 가족 돌보는 ‘치유연극’〉(경향신문)

경향신문(9월 4일)에서는 〈치매환자 가족 돌보는 ‘치유연극’〉을 보도하였다. 이 기사는 ‘치매환자 가족 치유연극’이라는 이름의 치매환자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치매 환자를 위해 가족이 함께 노력하도록 긍정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흔히 치매 환자를 돌보는 역할은 여성의 역할로 고정된 점을 연극이라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소개하여 ‘치매’를 온 가족이 함께 극복해야 할 일이자,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한 점에서 양성평등적 시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통한 성차별적 요소 개선 노력

조선일보(9월 4일)에는 〈금남의 벽 허무는 인하공전 항공운항과〉가 기사화되었다. 1977년 국내 최초로 개설된 인하공전 항공운항과는 지금까지 여성만 선발해 왔었으나 “인하공전이 객실 승무원을 양성하는 항공운항과 교육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2018년부터는 신입생 모집에 남성도 선발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고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한 사례로 평가된다.

□ 성차별적 내용

1) 여성차별·여성비하 용어 무분별하게 사용

중앙일보(9월 1일)의 〈어릴 적 요리사 꿈꾸던 여대생, 국제 기능올림픽 제빵왕 됐네〉와 동아일보(9월 8일)의 〈‘세계 최초 금속활자는 한국의 직지’ 반크 여대생, 세계적 출판사 오류 시정〉 등에서 ‘대학생’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한 제목을 굳이 ‘여대생’이라고 표현하였다. ‘남대생’

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여대생’이라는 표현 자체로도 성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다.

경향신문(9월 1일)에서는 <법원, 내연녀에게 준돈은 불법... 못 돌려받는다. 불륜유지비용으로 손해배상도 기각>에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불륜상대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기사를 통해 ‘불륜관계’로 표시할 수 있는 기사를 ‘내연녀’라고 표현하여 여성의 문제로 인식되도록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거나, 문화일보(9월 10일) <부킹녀 性폭행 2심 법정구속>에서도 ‘부킹녀’라는 제목을 통해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부각시켜 양성평등적 관점을 찾기 어려웠다.

2) 여성 외모지상주의 부각



<“화장도 취업 전략입니다”>(동아일보)

동아일보(9월 8일)에서는 <화장도 취업 전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2015 KU 잡페어 취업 박람회’에서 한 대학생이 메이크업 관련 취업상담을 받고 있는 내용과 삽화를 수록하였다. 대학생이 취업을 위해 능력을 배양하거나 인성을 쌓는 것을 강조하기보다 외모, 특히 여성은 취업을 위해서 외모를 가꿔야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그대로 담아내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70발 예포..하늘 수놓은 ‘70’자 축하비행..첨단 무기 100분 쇼>(경향신문)

경향신문(9월 4일)에서는 <70발 예포..하늘 수놓은 '70'자 축하비행..첨단 무기 100분 쇼>로 중국의 열병식을 소개하였다. 중국의 2차 대전 승전 70주년 기념 열병식은 국제적으로 보기 드문 최대의 군사쇼로 '정의필승, 평화필승, 인민필승'을 외치고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는데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진으로 '미녀 의장대'는 평균 키 178, 평균 나이 20세의 여군으로 구성되었다고 소개하며 여성의 외모를 강조한 점, 사진 속 열병식 행진에 대한 설명조차 미모에 대한 내용을 강조해 다소 아쉬웠다.

□ 성평등적 내용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차별적 내용/사진
경향신문	9월 1일	5	김다운양을 위한 항변	진주여고를 자퇴한 김다운양이 벌인 1인 시위로 김다운양은 교육제도가 잘못되었다며, 이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1인 시위를 진행함. 공부하는 기계, 남을 이기는 도구로 전략한 자신의 비루한 모습을 묘사하는 등 시위가 기사화됨.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학교교육의 불평등에 대한 1인 시위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사회 이슈로까지 환기시켰다는 점, 특히 전문가나 유명인이 아닌 고등학생으로서 시위를 했다는 점에서 성평등 기사로 평가함.
조선일보	9월 4일	A12	금남의 벽 허무는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1977년 국내 최초로 개설된 인하공전 항공운항과는 지금까지 여성만 선발해 왔었다. “인하공전이 객실 승무원을 양성하는 항공운항과 교육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2018년부터는 신입생 모집에 남성도 선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함.
경향신문	9월 4일	14	치매환자 가족 돌보는 '치유연극'	 치매 환자 가족을 돌보는 분들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치매어르신을 돌보는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만 아니라 온 가족의 문제이며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함.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차별적 내용/사진
동아 일보	9월 8일	A25	기재부 ‘1호 여성 과장’ 김경희씨 7년만에 1호 여성 국장 됐다	기획재정부에서 처음으로 국장급 여성 공무원이 탄생했다는 기사임. 조직 내에서 세제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았다는 평가임. 고위 공무원에 여성이 임명된 것을 기사화하여 전문적인 분야에도 여성의 역할이 부각되어 긍정적임.

□ 성차별적 내용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차별적 내용/사진
중앙 일보	9월 1일	B6	어릴 적 요리사 꿈꾸던 여대생, 국제 기능올림픽 제빵왕 됐네	제목에서 ‘여대생’이라는 단어를 사용. 그냥 ‘대학생’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것을 불필요하게 성별을 강조한 표현임. ‘남대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여대생’이라는 것은 성차별적인 표현임.
경향 신문	9월 1일	5	고려항공 승무원 ‘세련된 변신’	북한의 대외용 월간화보 ‘조선9월호’에 게재된 여승무원은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착용하고 짧은 치마 세련된 화장 등으로 꾸며 2013년과 대비된다는 기사로 고려항공승무원은 모두 여성으로만 구성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외모를 앞세운 것으로 성차별적 기사임 
경향 신문	9월 1일	16	경기“육아품앗이” 사업나섰다	마을육아공동체사업은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일대일 방문 돌봄서비스를 하는 방식임. ‘재택맘’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워킹맘”은 안심하고 사회적 기업에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이다’라는 내용인데 육아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는 것지만 여성의 역할로만 한정하거나, 남성들도 재택대디, 워킹대디가 있는데 굳이 재택맘, 워킹맘이라는 단어를 고집한 것은 육아는 여성 영역이라는 성차별적 의식을 내포하고 있음.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차별적 내용/사진
경향신문	9월 4일	2	‘70발 예포..하늘 수놓은 ‘70’자 축하비행.. 첨단 무기 100분 쇼	중국의 2차 대전 승전 70주년 기념 열병식은 국제적으로 보기드문 최대의 군사쇼로 ‘정의필승, 평화필승, 인민필승’을 외침. 다만 기사와 사진캡션에서 ‘미녀 의장대’는 평균 키 178,평균 나이 20세의 여군이라면서 외모와 미를 미(美)를 강조하거나 열병식의 행진조차 미모를 강조함. 
동아일보	9월 8일	A14	“시댁에 밍보일라” ... 그릇-명품가방 바리바리	 남과 혼을 의식한 고가의 예단은 예비 신혼부부와 양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대형 백화점에 전시된 고급 혼수용 식기. 동아일보DB 결혼할 때 남성은 집을 마련하면 여성은 그에 맞는 예단을 하는 것이 상례이며 여성쪽에서 걸맞은 예단을 해오지 않으면 ‘미운털’이 박혀 결혼생활 전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기사. 결혼을 위해 남성은 집을 준비하고, 여성은 시댁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성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동아일보	9월 8일	A20	“화장도 취업 전략입니다”	 ‘2015 KU 잡페어 취업 박람회’에서 한 대학생이 메이크업 관련 취업상담을 받고 있음. 여성이 취업을 위해서 외모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외모지상주의를 강조함.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차별적 내용/사진
문화 일보	9월 10일	22	부킹녀 性폭행 2심 법정구속	부킹녀 性폭행 2심 법정구속 ●...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유상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40시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3년 9월 28일 오전 2시 전안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40대 여성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속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성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경험 ‘부킹녀’라는 표현으로 여성 비하함.

신문 보고서(10월)

I. 모니터 개요

- 모니터 장르 : 신문
- 모니터링 기간 : 2015년 10월 5일 ~ 12일
- 모니터링 대상매체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문화일보

II. 내용 분석

1. 양적 분석

- 총 보도 수 대비 여성관련 보도 수

신문	총 보도 수	여성 관련 보도 수	총 보도 수 중 여성 관련 보도수 비율
조선일보	210	9	4.29 %
중앙일보	154	7	4.55 %
동아일보	142	10	6.90 %
경향신문	155	6	3.87 %
한겨레	190	11	5.80 %
문화일보	245	8	3.27 %
합 계	1,096	51	4.65 %

- 외부기고가 중 여성 기고가의 수

신문	외부기고가 총 인원	남성	여성
조선일보	24	20(83%)	4(16%)
중앙일보	24	22(92%)	2(8%)
동아일보	13	10(77%)	3(23%)
경향신문	6	5(83%)	1(16%)
한겨레	14	12(86%)	2(14%)
문화일보	16	13(81%)	3(19%)
합 계	97	82(85%)	15(15%)

2. 분석결과

□ 성평등적 내용

중앙일보 10월 8일자 <이배용 ‘명성황후는 고종의 유능한 정치참모’>에서는 “일제의 식민사관, 우리 내부의 가부장적 시각 때문에 다소 부정적이었던 명성황후 평가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의 명성황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실은 기사 제목과 기사 내용이 성평등 문제의식을 환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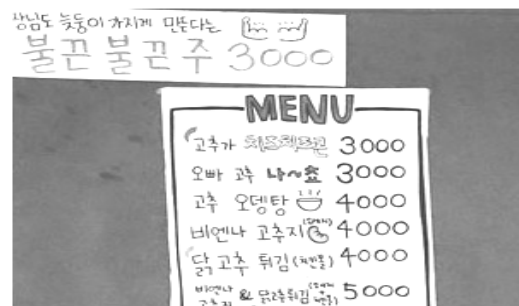


7일 가이 토시오 '명성황후를 생각하는 모임' 고문(오른쪽)이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왼쪽),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게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사과의 의미를 담은 연을 선물했다. [김경빈 기자]

중앙일보 10월 8일자 <이배용 “명성황후는 고종의 유능한 정치참모”>

□ 성차별적 내용

조선일보 10월 12일 <립스틱 질게 바른 '19禁 대학축제'> 보도는 대학가 축제에 성을 매개로 한 성인 술집이나 선정적인 내용의 축제 현장을 소개한 기사로 경기도 한 대학의 축제장에서 학생들이 운영하는 주점의 메뉴판과 미니스커트 차림의 여학생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내용은 성과 술이 지배하는 축제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논의할 때라는 단서를 달고 있으나 '립스틱 질게 바른 19禁 대학축제'라는 제목에서 보여 지듯, 여학생들이 그릇된 축제의 장본인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성차별적인 사고를 확장할 우려가 있다.



조선일보 10월 12일 <립스틱 질게 바른 '19禁 대학축제'>

동아일보 10월 6일 <‘배우중심 연극’ 진수 보여준 박정자의 관록>에서는 국립극단의 신작 ‘키 큰 세 여자’의 리뷰를 소개하였다. 김윤철 국립극단 예술감독이 새로 내건 ‘배우 중심 연

극'의 첫 번째 작품으로 관록의 두 여배우(박정자, 손숙)가 8년 만에 함께 무대에 올라 화제를 모았다는 내용의 기사인데, 박정자와 손숙이 여성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도 두 여배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여성을 강조하려는 성 불평등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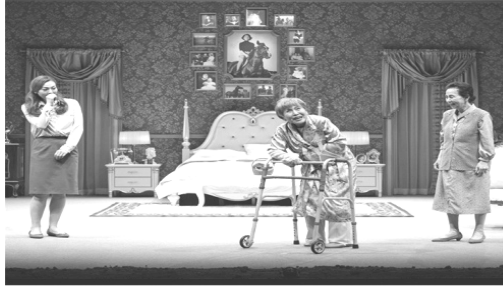
또한 동아일보 10월 6일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이 여성 지휘자를 만나면?>에서는 젊고 열정적인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에 도전하는 여성 지휘자 성시현을 소개하면서 여성 지휘자가 지휘하는 것 자체를 흥밋거리로 묘사하거나, '지휘'라는 영역보다는 여성 지휘자로서 고정적인 여성의 모습을 기대하는 등의 기사는 성역할 고정관념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하였기에, 기자의 의식 개선이 필요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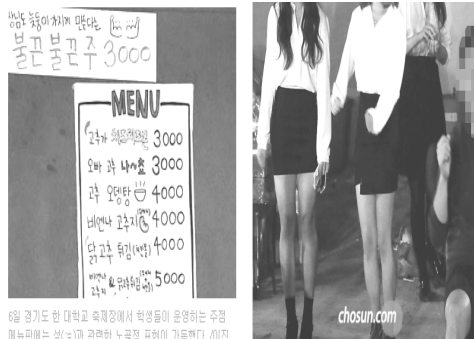
경향신문 10월 9일 <우리 아기한테 뭐가 좋을까> 보도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유아, 아동 제품 박람회 '서울 베이비 키즈 페어'를 찾은 시민이 아기띠를 직접 해 보는 사진을 실었는데 여성들만이 아기띠를 매고 찾는 모습을 보여주어 출산과 육아뿐만 아니라 출산/육아용품 구입도 여성만의 전유물로 보여주어 다소 아쉬웠다.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증대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육아를 여성의 역할로만 강조하는 기사는 문제의 소지가 많다. 공동육아·공동양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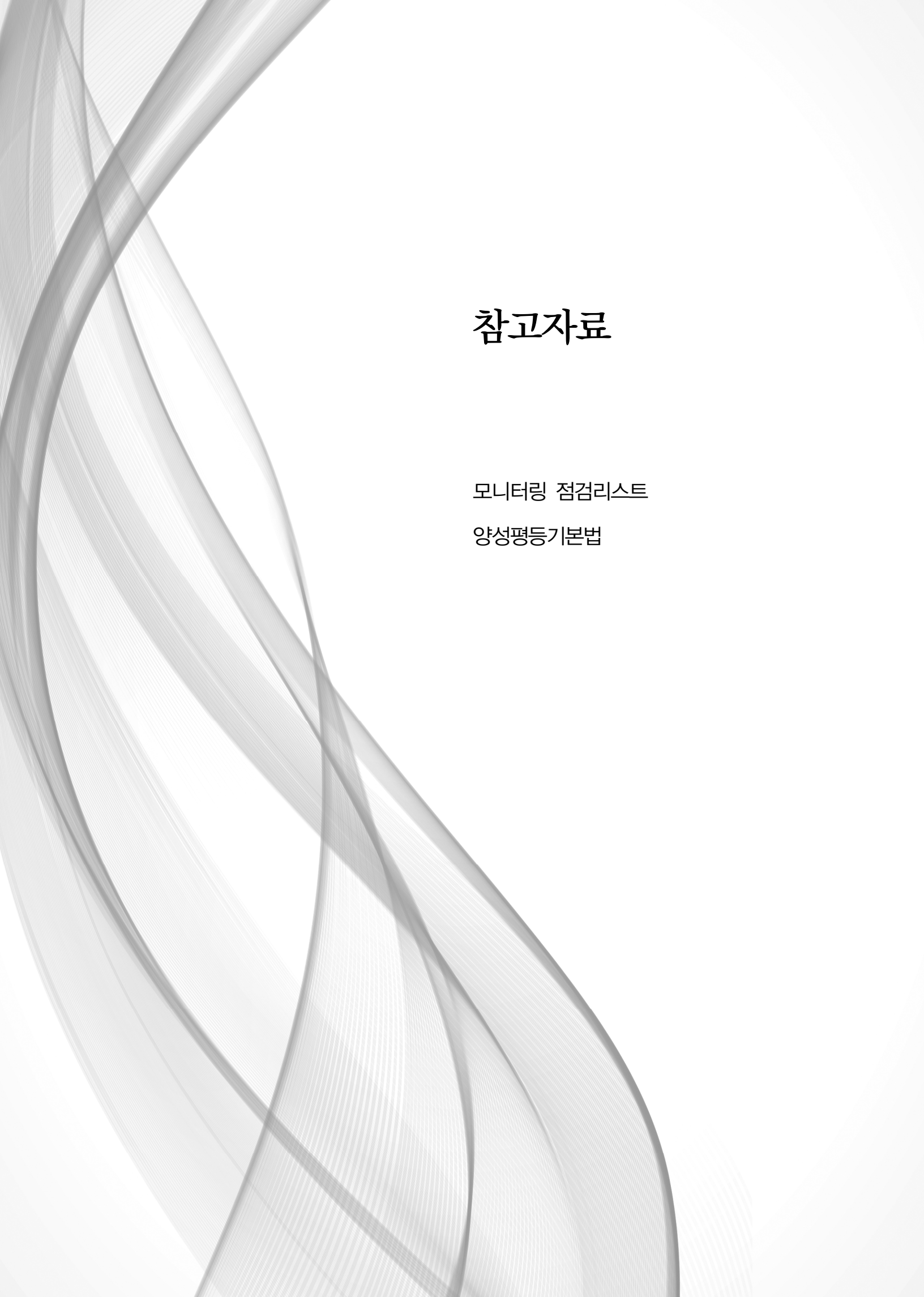
□ 성평등적 내용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평등적 내용/사진
중앙 일보	10월 8일	25	이배용 “명성황후는 고종의 유능한 정치참모”	 7일 기이 토시오 '명성황후를 생각하는 모임' 고문(오른쪽)이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왼쪽),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게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사과의 의미를 담은 연을 선물했다. [김경빈 기자] “일제의 식민사관, 우리 내부의 가부장적 시각 때문에 다소 부정적이었던 명성황후 평가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명성황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실은 기사제목과 기사내용이 성평등 문제의식을 환기시키는 내용임.

□ 성차별적 내용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차별적 내용/사진
동아일보	10월 6일	A25	‘배우중심 연극’ 진수 보여준 박정자의 관록	 국립극단의 신작 ‘키 큰 세 여자’의 리뷰를 소개함. 김윤철 국립극단 예술 감독이 새로 내건 ‘배우 중심 연극’의 첫 번째 작품으로 관록의 두 여배우, 박정자와 손숙이 8년 만에 함께 무대에 올라 화제를 모았다고 소개함. 박정자와 손숙이 여성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두 여배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여성을 강조하려는 성불평등한 표현임.
동아일보	10월 6일	A25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이 여성 지휘자를 만나면?	 젊고 열정적인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에 도전하는 여성 지휘자 성시현. 강렬하고 원색적인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여성 지휘자가 지휘한다면 어떤 색깔과 감성이 나올까. 여성 지휘자가 지휘하는 것 자체가 홍보의 대상이 될 정도로 여성 지휘자가 드물다는 사실이 아쉬움. 여성 지휘자에만 관심이 몰려 여성으로서 다른 지휘모습을 바란다는 성 고정관념적인 뉘앙스를 풍긴 기자의 성평등 의식이 부족함. 오히려 성 단장은 ‘여자 지휘자의 봄의 제전이 아니라 성시현의 봄의 제전을 관객에게 들려드리겠다’고 말함.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차별적 내용/사진
경향신문	10월 9일	18	우리 아기한테 뭐가 좋을까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유아, 아동 제품 박람회 ‘서울 베이비 키즈 페어’를 찾은 시민이 아기띠를 직접 해 보는 모습으로 여성들만이 아기띠를 매고 찾는 모습을 보여주어 출산과 육아용품 구입도 여성만의 전유물로 보여주어 다소 아쉬움. 남성과 아빠들의 참여모습도 보여주면 더욱 좋겠음.
조선일보	10월 12일	A12	립스틱 질게 바른 ‘19禁 대학축제’	 6월 경기도 한 대학교 축제장에서 학생들이 운영하는 주점 메뉴판에는 성(男)과 관련한 노골적 표현이 가득했다. [이진한 기자] 이날 세 개를 세가 한 경기도의 한 대학교 축제장에서 주점 운영하는 학생들이 주점 앞 카페를 돌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 [이진한 기자] 대학가 축제에 성을 매개로 한 성인 술집이나 선정적인 내용의 축제 현장을 소개한 기사로 경기도 한 대학의 축제장에서 학생들이 운영하는 주점의 메뉴판과 미니스커트 차림의 여학생의 사진을 게재함. 내용은 성과 술이 지배하는 축제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논의할 때라는 단서를 달고 있음. 그러나 ‘립스틱 질게 바른 19禁 대학축제’라는 제목에서 보여지 듯, 축제에 여학생들이 그릇된 축제의 장본인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성차별적인 생각을 갖게 함.



참고자료

모니터링 점검리스트

양성평등기본법

□ 모니터링 점검리스트(드라마)

1. 모니터요원 :
2. 방송사 :
3. 드라마명 :
4. 방송일시 :
5. 양적분석(드라마별 1회)
 - 주인공 (여자 주인공)

1.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2. 연령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3. 학력	① 중졸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이상 ⑤ 기타()
4. 결혼여부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기타
5. 직업	① 전문직 ② 재벌, 대기업 경영자 ③ 임원급 ④ 중간관리자 ⑤ 하급관리자 ⑥ 평사원 ⑦ 중소기업 경영자 ⑧ 자영업자(소규모) ⑨ 경찰/군인 ⑩ 연예인 ⑪ 운동선수 ⑫ 교직 ⑬ 프리랜서 ⑭ 전업주부 ⑮ 서비스 ⑯ 학생 ⑰ 일용직/아르바이트 ⑱ 무직 ⑲ 기타()
	① 직업의 전문성 묘사 정도(1점-5점) :
6. 성격	① 선함 ② 악함 ③ 복합
7. 거주유형	① 1인가구 ② 부부 ③ 부모+자녀 ④ 조부모+부모+자녀 ⑤ 기타()

- 주인공 (남자 주인공)

1.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2. 연령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3. 학력	① 중졸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이상 ⑤ 기타()
4. 결혼여부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기타
5. 직업	① 전문직 ② 재벌, 대기업 경영자 ③ 임원급 ④ 중간관리자 ⑤ 하급관리자 ⑥ 평사원 ⑦ 중소기업 경영자 ⑧ 자영업자(소규모) ⑨ 경찰/군인 ⑩ 연예인 ⑪ 운동선수 ⑫ 교직 ⑬ 프리랜서 ⑭ 전업주부 ⑮ 서비스 ⑯ 학생 ⑰ 일용직/아르바이트 ⑱ 무직 ⑲ 기타()
	① 직업의 전문성 묘사 정도(1점-5점) :

6. 성격	① 선함 ② 악함 ③ 복합
7. 거주유형	① 1인가구 ② 부부 ③ 부모+자녀 ④ 조부모+부모+자녀 ⑤ 기타()

- 서브 주인공

1.성별	① 여성 ② 남성
2.연령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60 대이상
3.학력	① 중졸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이상 ⑤ 기타()
4.결혼여부	①미혼 ②기혼 ③이혼 ④기타
5.직업	① 전문직 ② 재벌,대기업경영자 ③ 임원급 ④ 중간관리자 ⑤ 하급관리자 ⑥ 평사원 ⑦ 중소기업경영자⑧ 자영업자(소규모) ⑨ 경찰/군인 ⑩ 연예인 ⑪ 운동선수 ⑫ 교직 ⑬ 프리랜서 ⑭ 전업주부 ⑮ 서비스 ⑯ 학생 ⑰ 일용직/아르바이트 ⑱ 무직 ⑲ 기타() ① 직업의 전문성 묘사 정도(1점-5점) :
6.성격	① 선함 ② 악함 ③ 복합
7.거주유형	① 1인가구 ② 부부 ③ 부모+자녀 ④ 조부모+부모+자녀 ⑤ 기타()

- 서브주인공

1.성별	① 여성 ② 남성
2.연령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이상
3.학력	① 중졸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이상 ⑤ 기타()
4.결혼여부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기타
5.직업	① 전문직 ② 재벌,대기업경영자 ③ 임원급 ④ 중간관리자 ⑤ 하급관리자 ⑥ 평사원 ⑦ 중소기업경영자⑧ 자영업자(소규모) ⑨ 경찰/군인 ⑩ 연예인 ⑪ 운동선수 ⑫ 교직 ⑬ 프리랜서 ⑭ 전업주부 ⑮ 서비스 ⑯ 학생 ⑰ 일용직/아르바이트 ⑱ 무직 ⑲ 기타() ① 직업의 전문성 묘사 정도(1점-5점) :
6.성격	① 선함 ② 악함 ③ 복합
7.거주유형	① 1인가구 ② 부부 ③ 부모+자녀 ④ 조부모+부모+자녀 ⑤ 기타()

– 주요 갈등유발자

1.등장인물명		2.성별	①여성 ②남성
3.역할			

– 주요 갈등해결자

1.등장인물명		2.성별	①여성 ②남성
3.역할			

6.내용분석

•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

구분	방영일시 (회차)	내용 및 이유
주체성		
현실반영성		
다양성		
대안성		

– 기타

• 성차별적 내용

방영일시 (회차)	내용 및 이유

■ 성차별적내용

- ① 방송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을 다루는가
 - 가. 남존여비, 남아선호, 여성비하, 가부장제를 강화시키는 내용
 - 나. 순결의 주체를 여성으로만 국한시키는 내용
 - 다. 가사노동을 평가절하하거나 전업주부를 과소평가하는 내용
 - 라. 사회적 직업을 가진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
 - 마. 사회적 직업과 권력을 가지지 못한 남성을 무시하거나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
 - 바. 여성을 남성의 단순보조나 부속물로 취급하는 내용 혹은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내용
- ② 방송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부각시키는가
- ③ 방송은 출연자의 외모를 미화시켜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가
- ④ 방송은 출연자의 외모를 조롱, 혐오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와 관련된 언어를 사용하는가
- ⑤ 방송은 여성에 대한 폭력, 성희롱, 성폭력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 ⑥ 방송은 프로그램 내에서 출연자 및 방청객을 성희롱하는 행위 및 언어를 포함하고 있는가
- ⑦ 방송은 독신, 한부모, 이혼가족, 재혼가족, 동성가족,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부정적으로 그리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 ⑧ 방송은 부부간의 관계를 묘사할 때,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한 쪽에게 복종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가
- ⑨ 방송은 미망인, 미스, 올드미스, 여사, 과부, 여류, 출가외인 등 가부장적이거나 성차별적인 단어(혹은 어휘, 혹은 표현)를 사용하는가

□ 모니터링 점검리스트(드라마)

1. 모니터 요원 :

2. 방송사 :

3. 드라마 명 :

4. 방송일시 :

5. 드라마 유형

- ① 갈등형 ② 화합형 ③ 사회 고발형 ④ 사회 환기형
 ⑤ 막장형 (배신, 음모, 범죄.....)
 ⑥ 기타 ()

6. 양적분석 (드라마별 1회)

1) 여 주인공

1. 성별	① 여성
2. 연령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3. 대상	① 청소년/대학생/청년 ② 중년 · 장년 ③ 시니어 ④ 기타()
4. 결혼여부	① 비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기타
5. 직업군	① 전문직(의사, 교수, 연구원 등) ② 기업 CEO ③ 기업 임원급 ④ 기업 중간관리자 ⑤ 사원 ⑥ 교직 ⑦ 공무원(경찰, 군인 등) ⑧ 연예인/운동선수 ⑨ 프리랜서 ⑩ 자영업자(소규모) ⑪ 주부/학생 ⑫ 기타()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6. 가구유형	① 1인가구 ② 부부 ③ 부모+자녀 ④ 조부모+부모+자녀 ⑤ 기타 ()

2) 남 주인공

1. 성별	① 남성
2. 연령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3. 대상	① 청소년/대학생/청년 ② 중년 · 장년 ③ 시니어 ④ 기타()
4. 결혼여부	① 비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기타
5. 직업군	① 전문직(의사, 교수, 연구원 등) ② 기업 CEO ③ 기업 임원급 ④ 기업 중간관리자 ⑤ 사원 ⑥ 교직 ⑦ 공무원(경찰, 군인 등) ⑧ 연예인/운동선수 ⑨ 프리랜서 ⑩ 자영업자(소규모) ⑪ 주부/학생 ⑫ 기타()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6. 가구유형	① 1인가구 ② 부부 ③ 부모+자녀 ④ 조부모+부모+자녀 ⑤ 기타 ()

7.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평등 내용/사진

8. 성불평등/성차별 내용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사진

■ 성차별적 내용

- ① 방송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을 다루는가
 - 가. 남존여비, 남아선호, 여성비하, 가부장제를 강화시키는 내용
 - 나. 순결의 주체를 여성으로만 국한시키는 내용
 - 다. 가사노동을 평가절하하거나 전업주부를 과소평가하는 내용
 - 라. 사회적 직업을 가진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
 - 마. 사회적 직업과 권력을 가지지 못한 남성을 무시하거나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
 - 바. 여성을 남성의 단순보조나 부속물로 취급하는 내용 혹은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내용
- ② 방송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부각시키는가
- ③ 방송은 출연자의 외모를 미화시켜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가
- ④ 방송은 출연자의 외모를 조롱 또는 혐오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와 관련된 언어를 사용하는가
- ⑤ 방송은 여성에 대한 폭력, 성희롱, 성폭력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 ⑥ 방송은 프로그램 내에서 출연자 및 방청객을 성희롱하는 행위 및 언어를 포함하고 있는가
- ⑦ 방송은 독신, 한부모, 이혼가족, 재혼가족, 동성가족,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그리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가
- ⑧ 방송은 부부간의 관계를 묘사할 때,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한 쪽에게 복종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가
- ⑨ 방송은 미망인, 미스, 올드미스, 여사, 과부, 여류, 출가외인 등 가부장적이거나 성차별적인 단어(혹은 어휘 또는 표현)를 사용하는가
- ⑩ 기타

□ 모니터링 점검리스트(예능)

1. 모니터요원 :
2. 방송사 :
3. 프로그램 명 :
4. 출연자 인원 및 성별 :

역할	남성	주체성 (없음:0, 조금있음:1, 우수함:2)	여성	주체성 (없음:0, 조금있음:1, 우수함:2)
주진행자	명		명	
패널	명		명	
출연자	명		명	

5. 프로그램 분류

- ① 뷰티/미용 프로그램 ()
- ② 토크 프로그램 ()
- ③ 퀴즈 프로그램 ()
- ④ 기타 ()

6. 해당 날짜의 프로그램 주제 및 내용 :

7.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평등 내용 / 사진

8. 성불평등/성차별 내용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 / 사진

□ 모니터링 점검리스트(시사·토론·옴부즈맨)

1. 모니터요원:

2. 방송사:

3. 방송일시:

4. 프로그램 명:

5. 양적분석 (여러명인 경우 간단히 기술)

1) 여성 진행자 인원(명) 연령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2) 남성 진행자 인원(명) 연령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3) 오프닝 멘트: ① 여성앵커 ② 남성앵커 ③ 둘 모두 함 ④ 하지않음

4) 클로징 멘트: ① 여성앵커 ② 남성앵커 ③ 둘 모두 함 ④ 하지않음

6. 주제분석

1) 아이템 제목과 진행자/리포터(기자)/패널/인터뷰 대상자 성별과 주된 역할

아이템 제목		
역할	성별 인원	주요 역할 설명
진행자	남성 ()명	
	여성 ()명	
리포터/ 기자	남성 ()명	
	여성 ()명	
초대 패널	남성 ()명	
	여성 ()명	
인 터 뷰 대상자	남성 ()명	
	여성 ()명	

- 기타 의견:

7. 모니터링 내용

1)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평등 내용 / 사진

2) 성불평등/성차별 내용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 / 사진

□ 모니터링 점검리스트(교양)

1. 모니터요원 :
2. 방송사 :
3. 프로그램 명 :
4. 출연자 인원 및 성별 :

역할	남성	주체성 (없음:0, 조금있음:1, 우수:2)	여성	주체성 (없음:0, 조금있음:1, 우수:2)
주진행자	명		명	
패널	명		명	
출연자	명		명	
리포터(기자)	명		명	
인터뷰대상자	명		명	

5. 소재분석 : KBS1 〈6시 내고향〉, KBS2 〈생생정보통〉, 〈굿모닝 대한민국〉, MBC 〈생방송 오늘아침〉, 〈생방송 원더풀 금요일〉, SBS 〈생방송 투데이〉 등 매일 다양한 아이템을 소개하는 주부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범주	가사	육아	요리/ 음식	건강	다이 어트	경제	문화/ 연예	레저/ 여행	법률	자선	소수자
횟수											

6. 해당 날짜의 프로그램 주제 및 내용 :

7.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평등 내용 / 사진

8. 성불평등/성차별 내용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 / 사진

□ 모니터링 점검리스트(보도)

1. 모니터요원 :
2. 방송사 :
3. 프로그램 명 :
4. 양적분석(엑셀 파일에)
5.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평등 내용/사진

5. 성불평등/성차별 내용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회차)	성차별 내용/사진

□ 모니터링 점검리스트(포털 사이트 내 언론기사)

1. 모니터 요원 :

2. 포털명 :

3. 언론사 :

4. 일시 :

5. 분야 : ☐ 정치 ☐ 경제 ☐ 사회과학 ☐ 문화
☐ 생활정보 ☐ 지역이슈 ☐ 기타

6. 내용분석

1) 성평등적 내용

포털명	일시	언론사	기사제목	성평등적 내용/사진

2) 성차별적 내용

포털명	일시	언론사	기사제목	성차별적 내용/사진

3) 종합의견

--

* 포털사이트 내 언론기사 모니터링 참고사항

모니터링	- 성평등적 내용을 담고 있는가? - 성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는가? -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가? -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가? - 여성의 노출 빈도, 횟수 등 - 여성 비하 및 성역할고정관념을 포함하고 있는가? - 성을 상품화 하고 있는가? - 성폭력, 성희롱, 폭력 등 희화화
------	---

□ 모니터링 점검리스트(신문)

1. 모니터요원 :
2. 신문사 :
3. 발행일 :
4. 외부기고가 양적분석

총 인원	남성	여성
명	명	명

5. 전체 신문 중 여성관련 보도 비율 및 유형

총 보도 수	건	여성관련 보도 수	건
여성관련보도 형태별 분류	단순보도		건
	기획/정책이슈 보도		건

6. 내용 분석

- 1)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평등적 내용/사진

- 2) 성차별적 내용

신문사	발행일	발행면	기사제목	성차별적 내용/사진

■ 성평등적 내용

- ① 성평등 문제의식 환기
- ② 여성이슈 소개
- ③ 남성 육아 정보 게재
- ④ 기타

■ 성차별적 내용

- ① 사회구조적문제를 배제하고 개인적 노력만 강조
- ② 선정적 기사 제목
- ③ 성차별적 용어
- ④ 외모지상주의
- ⑤ 기타

양성평등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 ①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제

제1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 ⑤ 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된 시

행계획을 점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국민이 양성평등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절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제11조 (양성평등위원회)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主流化)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에 관한 사항
6.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 ①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양성평등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여성가족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전담전문인력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

제14조 (성 주류화 조치)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5조 (성별영향분석평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②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제16조 (성인지 예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17조 (성인지 통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성인지 교육)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성인지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국가성평등지수 등)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 조사 결과,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에 관한 각 지표별 통계와 지표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의 내용 및 조사·공표의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양성평등 참여

제20조 (적극적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적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공직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 (정치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경제활동 참여)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 (모·부성의 권리 보장)

-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모·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

제26조 (일·가정 양립지원)

-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여성인재의 관리·육성)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이하 이 조에서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범위·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 관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제29조 (성차별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2.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제5항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⑦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성희롱 실태조사)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복지증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 (건강증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

련하여야 한다.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제35조 (양성평등한 가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령·제도 또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양성평등 교육)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연수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연수교육 과정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 (양성평등 문화조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대중매체에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을 점검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 (양성평등주간)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제39조 (여성친화도시)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국제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특히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간의 교류와 연대(連帶)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이를 사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평화·통일 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평화 문화 확산과 통일 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여성평화증진 및 통일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42조 (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44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임명된 자가 각각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이사(理事)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
 - 가. 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 나.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재무관의 직무
2.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직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
 - 가. 기금지출직원: 기금지출관의 직무
 - 나. 기금출납직원: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제5장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제45조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6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 ① 국가는 양성평등교육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 사업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3.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 협력 지원 사업
 6.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연구 사업
 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려면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 ① 시·도지사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7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청문)

시·도지사는 제48조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0조 (여성사박물관의 설립·운영)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고, 여성을 위한 교육과 국민의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사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여성사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여성 관련 문화유산의 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
 2. 여성사의 발굴 및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경험·가치에 대한 연구
 3. 역사발전·사회변화를 일구어 낸 여성인물과 업적 발굴
 4. 여성문화·지역여성·여성운동·여성단체·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자료 발굴·보존·연구·교육
 5. 미술·음악·문학 등 여성문화 활동
 6. 그 밖에 여성사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성사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여성사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중 국립중앙박물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